


제주해녀 노래집
The Anthology of Jeju-Haenyeo's Song

이어 이어 이어도사나

제주해녀 노래 집
The Anthology of Jeju-Haenyeo's Song

이어 이어 이어도사나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조사·집필 좌혜경·권미선

초판 인쇄 2010년 4월
초판 발행 2010년 4월
디자인·제작 도서출판  (TEL. 064-725-4410)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79-6500361-000002-01

제주해녀 노래집
The Anthology of Jeju-Haenyeo's Song

이어 이어 이어도사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일러두기】

- 이 책에 실린 자료들은 해녀박물관이 해녀노래 가창기능과 사설능력이 출중한 해녀들을 선정해서 노래에 얹힌 생애담과 생애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들임.
- 이 책의 현장론적 일부 자료와 사진들은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자료 및 『제주100년』 (제주도, 1996), 『만농 흥정표 사진집』 (국립제주대학교, 2002)의 자료를 인용하였음.
- 노래사설에 나타난 제주어 등의 표기는 이해하기 쉽도록 그에 해당하는 표준어를 각주 혹은 해설을 통해 밝혔음.
- 영문번역은 전문번역가 한진이(제주대)의 도움을 받음.

제주 전통문화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노력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전통의 뿌리가 견고해야만 흔들림 없이 다른 훌륭한 문화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은연중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란 어떤 것을 두고 이르는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제주해녀문화일 것입니다.

이는 과거 오랜 세월 동안 면면히 이어져 오면서 찬란한 역사를 창조했고, 지난해에는 해녀들의 삶이 민속신앙으로 승화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해녀는 제주여성의 상징적 존재이자 고난의 삶을 극복한 제주인의 정신적 모태이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없이 해녀들은 이른바 ‘바당밭’이라 일컫는 작업 현장에서 술한 자맥질과 함께 ‘숨비소리’를 연발하며 ‘물질’이란 힘든 노동을 숙명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노동현장에 어찌 노래가 빠질 수야 있겠습니까.

‘이여도사나’로 대표되는 해녀노래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전승·보존되고 있습니다.

해녀박물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한 차례씩 상설무대를 마련해 해녀노래 전수교육과 도내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을 벌여 해녀들은 물론 일반인 들을 대상으로 전승보존 노력을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와 같은 활동의 결실이자 의지의 산물로서 제주전통문화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노력의 시금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욱이 해녀연구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녀노래의 영문번역도 함께 실었습니다.

제주해녀노래를 집대성한 이 책을 통해 제주전통문화의 맥이 이어지고, 해녀분들의 위상이 더욱 고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들과 이 일에 관계하여 애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목차

발간사

■ 국문판

1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 | 9

2부 해녀들의 정신,그녀들의 정서 | 69

3부 해녀노래, 누가 잘 불렀나 | 139

참고문헌 | 233

■ 영문판

I . The Songs of the Jeju Haenyeos | 237

II . The Sentiments and Functions of the Haenyeos’ Songs | 243

III. The Changes in the Haenyeos’ Songs | 251

IV. The spirit of the Haenyeos and their sentiments | 261

해녀노래

(1) 백대웅 채보의 ‘김녕리 해녀노래’ | 283

(2) 조영배 채보의 ‘행원리 해녀노래’ | 284

1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

1. 서언

제주 해녀노래의 명칭은 다양한데 ‘배젓는 소리’, ‘이엿싸 소리’, ‘네 젓는 소리’(노 젓는 소리), ‘잠수소리’ 등으로 불려 왔다. 이는 곧 과거 해녀들이 돛배나 테우 등을 타고 물질 나갈 때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해녀노 젓는 소리’를 말한다.

배의 형태가 기계화되어 동력선으로 대체된 이후부터 노동을 위한 노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노래의 노동기능성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해녀노래를 잘 부르는 가창자(歌唱者)들은 많다. 바로 섬문화의 지리적 환경과 삶의 일상성 때문이다.

이들 해녀노래의 구연 양태는, 대체로 한 배에 20여 명 정도 승선하여 육지로 출가물질을 나가거나 혹은 연안의 가까운 섬으로 이동하면서 노 젓는 사공의 힘을 실어주곤 했다.

가창형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즉, 사설을 매기는 선소리와 뒷소리 후렴으로 구성되는 선후창의 형식, 혼자만의 구연으로 이루어지는 독창형식과 선소리와 뒷소리 모두가 의미 있는 사설을 부르는 교창형식이 그것이다. 특히 삶을 노래하는 개인적 정서를 표출하면서 불러나갈 때는 교창형식이 자연스런 구연방법이다. 곧, 해녀노래는 해녀들의 삶을 통해 빚어진 생활의 문학으로서 바다 물질 작업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제주 여성들의 노래인 것이다. 바다노동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빚어지는 노동 기능성

으로 생산층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바다 근처 마을에 살았던 제주여성들 대부분이 해녀 물질¹의 경험이 있고, 그 작업에 임해 오달진 삶을 살아왔으므로 제주여성이 부르는 민요 중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물질이라는 공동의 노동 속에서 생성·구전되고 다시 육지로 출가물질 갔을 때 일정 지역에서 만나 다시 그 노래들을 공유했기 때문에 제주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해녀노래는 거의 동일한 음악과 사설들을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해녀노래는 시퍼런 바다 위에서 물질 작업에 임하거나 또한 노를 젓는 행위가 공동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여럿이 소리를 맞추어야 하므로 구연이 공식적인 편이다.

해녀노래에 관심을 두었던 외부 관찰자가 바라보던 시각은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제주여성들은 강하다.”, 해녀노래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지닌 노래들이다.” 라고 느꼈던 경험을 종종 표출한다.

해녀노래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는 1970년대 현장조사보고가 있고,² 해녀민속과 관련된 구비전승으로서의 노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³ 그 결과 노래에 나타나는 해녀작업 기능과 관련된 노래내용은 해녀작업의 실상, 한계, 고통, 노 젓는 바다의 상황과 뱃길, 노 젓는 기백, 출가생활에서 얻은 개인적인 서정 등으로 분석된다.

해녀노래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첫째, 제주 해녀의 노래는 노동현장과 삶, 제주여성, 제주민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노래를 통해서 섬사람들의 삶의 존재방식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다.

1 물질이라는 것은 해녀들이 어떠한 기계장치 사용 없이 나잠수(裸潛水) 작업으로 바다에 들어가 해 산물을 따거나 해조류를 채취하는 노동행위를 말한다.

2 김영돈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3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둘째, 해녀노래는 원시어업노동요로서 미학적 가치가 뛰어나다. 고난과 극복의 인간적 삶을 표현하는 문학적 양식(樣式)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노 젓는 소리’를 통해서 노동현장과 제주여성의 삶, 이 노래를 부르는 해녀들의 정서를 찾을 수 있다.

셋째, 해양문명사적 관점에서 해녀노래는 노동 기능요(機能謠)로서 노동과 관련되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기원과 음악·문학적 특성을 살필 수 있다.

넷째, 물질작업을 위해 배를 타고 가면서 불렀던 ‘노 젓는 소리’는 현재도 전승되고 있고 육지부에도 전파되어 전국적으로 간간이 불린다. 이러한 전통의 원시적 어업 노동요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물질작업에 임하는 여성들 노래 각 편을 중심으로 사설을 분석해 기능성과 정서가 표출된 단락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통 속에 내재된 제주 여성들의 삶을 조명할 수 있다.

II. 기능보유자의 해녀노래

해녀노래 1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싸나 이어싸나
요넬젓고⁴ 어딜가리
진도나바당⁵ 한골⁶로가게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삼돛돌양⁷ 배질⁸하게
선주사공 노넬⁸이여
붓대나심영⁹ 글잘쓰긴
서울양반 노넬이여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

4 이 노를젓고

5 진도 바다

6 한 골

7 세 개의 돛을 달고

8 놀음

9 붓대나 잡고

혼목을 짓엉 남을준덜
 허리나지덕 배지덕말라
 이어싸나 이어싸나
 잘잘가는 잣나무배가
 술술가는 소나무배가
 우리야매는 껌도재다¹⁰
 춤매¹¹새끼 노는듯이¹²
 처라 자리야 잘잘 잘도간다
 처라 베겨라 이여도싸나
 혼목을 짓엉 남을준덜
 허리야지덕 배지덕말라
 이여싸나 이여도싸나
 우리나라 어멍¹³ 날날적인¹⁴
 가시나무 몽고지¹⁵에 손에 꿩이¹⁶
 백이려고¹⁷ 날났던가
 요 벤드레¹⁸ 그차지면
 부산항구 아사이노¹⁹가 없일소나

10 빠르기도 빠르다

11 참 매

12 나는 듯이

13 어머니

14 날 낳을 적에

15 노의 손잡이로 쓴 가시나무의 꿩이

16 손바닥이 굳어뭇이 박힌 것

17 박히게 하려고

18 배 멩에와노를 묶어 놓은 밧줄

19 일본산 하사노

요내착이 부러지면
 대마도 산천 올곧은남이
 처라 없일소나
 어기야 차 어기야 차
 이여도사나
 우리야 배는 잘도간다
 이물에랑²⁰ 이사공아
 고물에랑²¹ 고사공아
 허릿대²²밑에 화장아²³야
 물때나 점점 늦어간다

해녀노래 2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
연화욕지 ²⁴	밤바당에
파도가들영	궁글리곡 ²⁵
자그만	여자의 마음
한구미들영 ²⁶	궁글리네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

20 뱃전에는 이씨 사공아

21 배의 후미에는 고씨 사공아

22 배의 허리칸에세운 돛대

23 배에서 불을 이용하거나식사를 담당해 밥을 짓는 일꾼.

24 경남 통영의 연화도와 욕지도

25 흔들리고

26 한 꾸러미

돈아돈아	말모른돈아
개도췌도	안먹는 돈아
창고망도	못부르는
돈이로구나	이여도싸나
이여싸나	돈아니민
부모형제	이별헛곡
울산강산	뿔이나 좋아 왔던고
언제나면	어둑칠월
동동팔월	돌아오라
가고야 싶은	고향산천
보고싶은	부모형제
언제나나면	얼굴을보양
살아나보코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	저산천에
풀잎새는	해년마다
꼭꼭꼭	젊어지고
이내몸은	해년마다
소곡소곡	늪어가네
이여도싸나	이여싸나
바농같은 ²⁷	약한몸에
황소같은	병이들면
임오시라고	편지를헛니
약만쓰라고	답장왔네

27 바늘같이

이와같이	냉정한님을
생각하는	내가잘못
돌아서면	잊을줄을
내두	알건마는
어리석은	여자로서
알고속는	내로구나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

해녀노래 3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
간장간장	무딘간장
고비고비	다물혔구나
쳐라베겨라	이여도싸나
눈도밝은	서낭님아
앞발로랑	허우치명
뒷발로랑	거두치명
고동생복	좋은여로
득달하게	흥여주소
이여싸	이여도싸나
수덕좋은	용왕님아
영겁좋은	서낭님아
고동생복	있건마는
숨이나들게	흥여줍서
이여싸나	이여도싸나

대청바당	가운데들영
그를 잃영	돌진밤새네 ²⁸
선주사공	뱃머룩만 돌려주오
우리 삼형제가	들어사난
네도맞고	등도맞고
백만사가	다맞아가네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
세월네월	가지나마라
이내청춘	다넘어간다
스무나문	설나문엔
산설백도	무에러간다 ²⁹
마은남은	쉬남은엔
오던님도	아니온다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희롱말라
소년늙어	백발이여
이여도싸나	이여도싸나

²⁸ 가를 잃어서 달진 밤 새네

²⁹ 산에 있는 큰 바위도 무너뜨리러 간다

Ⅲ. 해녀노래의 노동기능

제주 지역에서 불리는 해녀 노 짓는 소리에는 공통적으로 불리는 구절인 ‘공식구’가 잘 나타난다. 노를 짓고 출발하는 장면, 노 짓는 행위의 노동기능성과 출가지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정서를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특히 물질은 현실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금전을 위한, 곧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경제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기도 하다. 출가 물질에서 느끼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남편의 냉정함, 기대와 배신감을 표현한다. 자신의 운명적 삶에 대한 동정과 원망의 대상으로서 어머니를 설정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자연과 대비시키면서 인생의 허무감을 보여주기도 한다. 교환창으로 불리는 사설은 각자 다른 사설을 부르더라도 서로 교감되고 있으며 선후창의 경우는 가사 내용이 선소리에 동조되고 있다.

1. 작업 출발

해녀들이 일상에서 취한 물질에 관한 제재는 우선 작업출발과 출가(出稼)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삶의 정서에 관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노 짓는 노동기능은 노래와 관련되므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재다. 대개 출가물질을 위해 모집된 해녀들은 음력 3월에 떠나서 8월까지 작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특히 외지에 가서 작업하는 출가물질은 경상남도의 부산, 동래, 울산 등지와 경상북도 구룡포, 감포, 양포, 계원, 대보, 함경도 부령, 청진, 강원도 등의 국내물질과 일본이나 중국 칭따오(靑島), 따아롄(大連), 블라디보스토크와 같은 국외물질이 있었다. 국외로 나갈 때는 발동선이나 연락선을 이용했지만, 한반도의 각 연안과 여러 섬으로 나갈 때는 돛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해녀노래를 불렀다. 곧, 노래는 노동작업에 이바지하는데, 작업 조율을 위한 기능으로서 ‘노동 촉진의 효과’, ‘정신적 분발의 효과’, ‘질서부여의 효과’가 있다.³⁰

이어사나	이어싸나
이어싸나	이어싸나
연화욕지	밤바다에
파도가들엉	궁글리곡 ³¹
자그만	여자의 마음
한구미 ³² 들어	궁글리네

우리베에	선주님아
벧머룩만	돌려주소
우리형제	삼형제가
들어사난	너도맞고 ³³
등도맞고	백만서가

³⁰ 김대행 『제주도 민요의 노래인식』, 『제주도 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³¹ 파도에 흔들리고

³² 한스라움

³³ 하노와 젓가리노를 젓는 사람들이 박자를 맞추어 노래하면서 배가 앞으로 잘나가는 모습을 표현

다맞아간다 헛 어기야차 헛

우리야베는 참나무로 지은베라
참매새끼 노는 듯이³⁴ 잘도나간다
우리야베는 솔나무로 지은베라
솔락솔락 잘도 나간다

요넛뎡이	뿔을먹고
둥긔둥긔	술졌는가
지름통을	먹었느냐
벼름통을	먹었느냐

노래 속에서는 물질작업을 떠나는 마음이 한층 가볍다. 힘차게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소나무로 지은 배에 힘을 불어넣고 참매가 날 듯이 빨리 나간다고 비유한다. 또 세 형제가 노를 잡고 서니 노 젓는 동작이 잘 맞아 모든 일이 순조로우리라는 위안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밀려오는 파도는 기름을 먹었는지 바람에 부풀렸는지 엄청난 기세로 배 앞을 가로막는다.

2. 노동의 목적

물질은 기본적으로 환금 작물을 채취하는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³⁵

³⁴ 참매의새끼가나는 듯이

³⁵ 유철인 「濟州 海女の 몸과 技術에 대한 文化的 접근」, 『민속학 국제학술회의(3회) 요지집』, 민속학회, 1999, 38쪽.

노래에 나타난 노동의 목적은 현실적으로 돈을 버는 것에 두고 있다. 노동 요에서는 노동의 목적이 직접 표현된다. 해녀노래 등의 어업노동요에서도 노동의 목적이 ‘큰 집 사곡 큰 밭 사는’ 금진 추구에 있다

힘든 노동으로 모은 돈은 종종 남편 술값으로 지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돈에 관한 사설은 삶의 극단적인 상황을 표현한 일부분이고 출가해녀들이 모은 돈은 상당량 집안 경제에 보탬이 되었다.

결혼하기 전 물질작업으로 결혼 혼수를 마련한다거나 출가물질을 다녀 와서 밭매기나 집을 마련하는 경우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³⁶ 해녀들은 자라면서도 사시사철 밭농사를 하고 물질을 하면서 돈을 모아 가게에 이바지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당연한 삶으로 인식했다. 다음 노래의 가창자 A와 B는 박자를 맞추되 각자의 사설을 전개해나간다.

A	B
때묻은	때묻은
돈아니민	돈아니민
부모형제	피땀을
다떨어두곡	흘리느냐
울산강산	어기여라
뿔이나좋아	어기여라
부모형제	어기여라
이별을훔곡	어기여라
요산천을	이팔청춘
오랏던고	소년들아

36 김영돈 『한국의해녀』, 민속원, 1999, 388~390쪽.

산천의	초목은
진라도	제준데
우리야 몸이	지체홀 디는 ³⁷
요객지 생활이	어떨소냐
고향이	따로있나
정이들면	고향이라
고향산천	버려두고
타향땅을	고향삼아 여기오란
말모른	돈아돈아
돈이좋지	않으면은
어느 누굴 믿고서	여기왔나
물로뽕뽕	돌아진섬에 ³⁸
훈푼두푼	모은금전
부랑자	만나면
흐를아침	회장거리도
못흐는금전	

3. 노동 기능적 상황

노동요에서는 노동 상황에 대한 표현이 중심을 이루는데 작업도구나 시간·공간에 대한 인식들이 병렬적으로 나타난다. 뱃물질을 갈 때는 한 척의 배에 선주, 기관장, 사공, 화장아 등을 포함하여 해녀 15~16명이 탄다.

³⁷ 머무르는 곳은

³⁸ 물로 돌아진 섬에

배 위에서 여러 날 함께 숙식하고 동거하면서 치르는 이른바 ‘난바르’ 물질의 경우는 노 짓는 작업의 시·공에 대한 인식이 중심이 된다. 또 물질 작업의 실제 상황 등도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간적인 표현은 노동을 독려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허릿대밧디	화장아야
물때점점	늦어나진다
쳐라쳐 쳐라	쳐저어

고요흐숨	질게쉬며 ³⁹
지폰물속	들어가니
고동생복은	쌍엿건마는
숨이바빠	못흐더라

39 고요하게 내쉬는 숨을 길게 쉬며

Ⅳ. 해녀노래의 정서

1. 직업의 한계와 염세적 정서

해녀노래에는 물질과 관련된 노동기능과 함께 자신의 개인적 정서가 잘 표현되고 있다. 특히 정서 표출을 담은 경우는 출가 당시의 심정이나 가족과 남편에 대한 그리움, 사랑의 노래, 여정과 향수 등이다. 이러한 정서는 비극적이며 염세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노래 내용에서는 노동의 한계를 인식하거나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 혹은 자신의 삶에 대한 비탄 등이 주된 표현이다.

물질 작업의 한계는 특수한 장비를 갖추지 않고 치르는 나잠 작업에서 나타난다. 기능이 뛰어난 해녀들은 20미터까지 잠수하여 2분 정도 작업하는 초인적인 능력을 갖추었으나, 해산물을 따려고 물속 깊이 들어갔다가 숨이 막혀 죽는 경우가 있어서 물질 작업은 마치 목숨을 걸어놓은 것과 같다. 그래서 물질을 ‘혼백상자’를 들고 혹은 ‘칠성판을 등에 지고’, ‘저승길을 왓닥 갓닥’ 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

물로야 뽕뽕	돌아진섬에
삼시끓영	요물질흥영 ⁴⁰
한푼두푼	모여논금전

부랑자술잔에 다들어간다

이여싸나	이여싸나
혼백상지	등에다지곡 ⁴¹
가심앞의	두렁박차곡
흔손에	빗창을쥘곡
흔손에	호미를쥘곡
흔질두질	수지폰물속 ⁴²
허위적 허위적	들어간다

버췄구나 버췄구나 옛날말로⁴³

순다리 ⁴⁴ 에	줍우췄저
보리떡에	숨이찾저

불쌍ᄃᆞᆫ고가련ᄃᆞᆫ	요예즈덜
시간ᄃᆞᆫ	요영업이여
아이고도	생각ᄃᆞᆫ민
설올러라	불쌍ᄃᆞᆫ다

요물속은 지품예품 알건마는⁴⁵

40 세끼를 굶으면서 이 물질을하여

41 혼백을넣은 함을등에지고

42 한길 두길깊은물 속으로

43 힘들었구나, 고어(古語)로

44 보통 '순다리'라고도함. 밥과 누룩을섞어서 발효시키면 달고 새금진맛을 낸다. 여름철 음료대용으로 썼다.

흔집살이
절색간장

임의 속물라
다독인다

우리님은 어딜가고 아니나 오르고
공동산천 가신님은 혼번가난
또다시 돌아올 줄 모르더라

2. 비극적 인생관

노래 속에서 물질을 하는 곳은 ‘저승길’ 이어서 두렵고 가기 싫은 곳으로 표현된다. 이곳을 가야 하는 운명, 이를 숙명이라고 여긴다면 그들의 의식은 진취적이고 강인하기보다는 체념적이고 순응적이라 할 수 있다.⁴⁶

이러한 비극적 삶의 근원을 자신의 운명 혹은 인생관에서 찾고 있다. 특히 비극적 운명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는 대상은 ‘어머니’ 다. 같은 여성으로서 자기를 낳아 준 어머니는 슬픔을 공유하는 동류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원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러한 인생관은 자연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자연의 질서와 삶의 단절을 통해서 비극성은 더욱 강하게 표출되는데 자연은 자신들의 인생관을 표현하는 가깝고 친근한 존재다.

설룬어멍
어느바당

날설아울적⁴⁷
매역국먹언

45 물속의깊이는 알지마는

46 한창훈 「제주민요와 여성」, 제3회 민속학국제학술회의, 민속학회, 1999, 49쪽.

47 서러운어머니가 나를 설어울적에

절급마다	날울렘신고 ⁴⁸
벼름불적	절일적마다
궁글리멍	못사는구나 ⁴⁹
저산천에	푸습새는 ⁵⁰
해년마다	오련마는
우리야 인생	흐번 가면은
돌아올줄	몰라지네
어기야차	쳐라베겨라
저산으로	내리는물은
일만낭쌌	다씩은물가 ⁵¹
요네우의로	내리는물은
일만간장	다씩은물가
쳐라베겨	쳐라쳐

3. 의기로운 삶

제주해녀들의 강인한 삶은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존재를 약화시켰다. 미역 해경⁵²시에 아낙이 작업해 온 해산물이나 해조류를 날라다 팔리는 ‘품중’ 역할을 하는 남편에 대한 인식과 “해녀의 남편은 집에서 애기나 본

48 파도 칠 적마다나를 울리는가

49 바람 불고 파도 칠 적에 흔들리면서 못 사는구나

50 저 산천의 초목의 잎새는

51 일만 나뭇잎 다씩은 물인가

52 물질 작업을 일정기간 동안금했다가 해금하는 것

다.”라는 속담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김영돈은 제주해녀 노래 사설을 분석하고 “유다를 삶과 오달진 기개가 담겼으며 제주 해녀다운 삶의 방법과 어떠한 고난에서도 까무러치지 않는 의지를 터득하고 탄탄한 의기로 표현한다.”라고 했다.

그 의기는 고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다. 극복의 방식은 노래 속에서 노동의 기백과 현실적인 인식으로 혹은 기원하는 여성적 존재로 나타난다. 노 젓는 기백 혹은 극복, 젓고서 나아가려는 의지는 해녀들이 지닌 삶의 에너지를 말한다. 예컨대 후렴구 ‘쳐라쳐라’, ‘이어싸 헛’, ‘이어싸나 이어도싸나’, ‘쳐라베껴’ 에서 느끼는 강한 힘의 원동력은 바로 그들 삶의 고통 속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물마루와 생의 ‘마루’는 여기찬 힘인 노동으로 그 극복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온 신체를 움직여서 노를 저어 나아가자고 노래하면서 비록 노 젓는 장비가 파손된다 해도 얼마든지 그 보수는 가능하다고 자위하기도 한다.

ㅂ를ㅂ를 중살르멍⁵³

열두신뻘 설왕겨려⁵⁴

지고야가자 진도나가자

진도나가자 쳐라뒤야

요내착이 부러나진들

대마도산천 올곧은나무

없을소냐 요벤드레

53 마루마다 힘을내어서

54 열두 몸의 뼈를 움직여서

꿰어야진들	부산항구
로프줄이	없을소나
요내홀목	부러나진들 ⁵⁵
부산항구	유도야병원
없을소나	
젊은기상	놓았다가
집을사명	밧을사라
뭇썰 ⁵⁶ 으랑	집을삼앙
놀고개랑	어멍을삼앙 ⁵⁷
요바당에	날살아시민
어느바당	걸릴웨시라 ⁵⁸

이러한 의지에 찬 삶은 그들이 자연과 같이해 온 노동에서 얻은 교훈과 삶의 지혜에서 얻은 것이다. “모자반 덩이는 집을 삼고, 놀 고개랑 어머니를 삼는다.”라는 표현은 늘 같이해 온 노동 공간과 그들이 넘어서야 할 매우 고통스런 대상을 가장 친근한 대상에 비유하여 더욱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고 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연과의 불일치가 인간사의 비극적인 특성을 나타낸다면 자연과 합일된 모습에서 강한 힘을 얻게 됨을 표출하기도 한다.

55 이 내 손목 부러진들

56 모자반 덩어리

57 파도의 고개는 어머니로 삼고

58 어느 바다에도 걸릴 바가 없다

4. 현실적인 인식

물질작업 시에 맞부딪치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고 ‘주어진 삶’, 곧 노동에 대해 충실하려고 하는 자각과 현실에 대한 인식도 노래 속에서 잘 드러난다. 많은 해산물이 바다에 있으나 다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라는 것을 ‘담보’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순간적 판단이 중요하게 인식된다. 이는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목숨과 바로 직결되면서 죽음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일상의 표현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예컨대 “가버린 님을 생각해서 무엇하리.”란 표현은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바로잡고 대응하며 자신의 본분인 해녀물질 역할, 돈에 대한 인식 등 현실적인 삶에 집착하도록 하는 내용들로 나타난다.

산뛰는건	웅매로다 ⁵⁹
여뛰는건	베로구나 ⁶⁰
요바당에	은광금이
번질번질	깎렸어도 ⁶¹
노끈낭끼	열매로다 ⁶²
놀다간건	간들잡놈
자다간건	님일러라

59 산을 넘는 것은 수말이고

60 섬을 넘고 가는 것은 베로구나

61 반짝반짝 깎렸어도

62 높은 나무의 열매로다

임조차	데려간님은
생각하는	내가잘못
알구야두구	속는것은
여자의 마음이	근실하다

이어도싸	이어도싸 이어도싸나
삼돛돌앙	배질헛기
선주사공	노념이여
붓대나심엉	글잘쓰긴
서울양반	노념이여
쳐라어기여차	어기여차
쳐라베겨라	헤이
혼목을젓엉	남을준덜
허리나지덕	배지덕말라

5. 소망과기원

해녀들은 요왕신(용왕신)과 선왕에 대한 신앙심이 강하다. 요왕신은 바다밭을 수호하는 신이며 선왕신은 선박의 수호신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신앙은 상당히 큰 영적인 힘을 갖도록 하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처이기도 하다. 이는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치르는 물질 작업과 조난 등 액을 제하고 해상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게 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사수와당’ 혹은 ‘울돌목’ 63을 지날 때에는 수시로 바닷물에 ‘지’를 드러서 바다가 가라앉기를 빈다. 또한 공동의 신앙의례로서 영등굿은 해녀들

의 기원의례로 손뿔을 만한테, 바다에 인접해 있는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이들 바닷가에는 해신에게 기원하는 남당, 개당, 돈짓당, 해신당 등이 있다.

노래 속에서는 기원적 사설이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항상 정성스럽고 간절한 모습으로 노래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눈도나 밝은	서낭님아
앞발로랑	허우치멍
뒷발로랑	거두치멍
고동생복	좋은여로
득달호게	하여줍서
쳐라쳐	이여도호라
물아레랑	용왕님아
물우에랑	서낭님아
지어라지어	훈목저라
섬의 가게	

해녀노래는 삶의 한풀이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의 의기로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해녀노래의 생산과 수용층의 미학적 경험은 달라지고 있는데, 해녀노래에 나타난 ‘고난’의 모티브가 생산층에 의한 것이라면, ‘극복’의 이미지는 다소 수용층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해녀물질 작업에 관한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젊은 해녀의 경우 해녀물질에 대해 ‘자유직종’이며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직종’⁶⁴이라는 인식을 가져 과거 해녀노래 생산층이 지녔던 것과는 다소

63 전라남도 진도와화원(花原)반도 사이의 좁은 해협으로 조류(潮流)의 빠르기가 특히 심하다.

64 유철인 앞의글, 39쪽.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수단이 기계화 됨에 따라 동력선을 사용하면서 이미 노 젓는 기능은 사라졌지만, ‘해녀 노 젓는 소리’가 전승되고 있고 육지부에서도 부르는 창자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전통의 원시적 어업 노동요가 아직도 전승되고 있는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형편인데, 이 노래를 제대로 전승·보전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V. 해녀노래 기능보유자의 물질 생애력

1. 강등자 보유자의 물질 생애력

- 1938년 - 구좌읍 행원리 태생.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해녀노래를 듣고 자람.
15세(1953) - 8월부터 물질 시작.
19세(1957) - 울산 당포에 천초(우뭇가사리)를 뜯으러 가서 첫 출가물질인 '초
옹'을 떠남.
20~21세(1958) - 부산 송정포와 구덕포에 가서 천초와 도박, 소라, 전복을 작업.
22세(1960) - 강원도 울진 마양에 가서 미역과 헛무레 작업을 함. 같은 동네 청
년과 결혼. 거제도의 여구미와 지시포에서 헛무레 할 때 목선을
타고 가면서 해녀노래를 익힘.
23세(1961) - 5월에 제주에서 여객선을 타고 흑산도로 감. 목선을 타고 섬 근처
에 가서 물질하면서 해녀노래를 부름.
24세(1962) - 충청도 안면도에 가서 헛무레 작업을 함.
25세(1963) - 김영자 어머니와 함께 울진, 마양, 신남에 물질작업을 가서 미역,
헛무레 작업을 함.
27세(1965) - 경북 대보에 물질 갈 때는 두 살짜리 딸을 데리고 감.
55세(1992) - 일본 나가사키(長岐)와 미에현(三重県)에 출가물질 감.
56세(1993) - 해녀노래 교육조교가 됨.
58세(1995) - 제주도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와 제35회 한리문화제 제주바다 축
제 민요경창대회에서 상을 받음.
59세(1996) - 제주칠머리당굿 행사와 함께 해녀노래를 공연. 이후 현재까지 한
리문화제 무형문화재 축제행사에 출연.
65세(2002) - 제주해변장 민속공연 중 해녀노래 공연.
66~67세(2003~2004) - 구좌초등학교, 세화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해녀노래
를 지도.
70~73세(2009~현재) - 해녀박물관에서 해녀노래 전수교육 담당.

■ 물질 습득기

강등자는 구좌읍 행원리 출신이며 교육자였던 고 강윤학 씨와 행원리 해녀인 어머니 고 고순미 씨의 9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형제는 많았으나 어렸을 적에 과상풍으로 모두 죽고 등자 혼자 남아 집에서는 외동딸이나 다름없었다.

어머니는 남편의 일본 유학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여느 행원리 해녀들처럼 어린 자식을 돌볼 여유 없이 바다에 나가 일했으며, 울산에 출가물질을 가서 거주하면서 물질 작업을 했다. 외할아버지는 뱃사공으로 해녀들을 인솔하여 경북 당포에 가서 전복을 따면서 겨울을 살았고, 등자를 가장 아끼는 고모 역시도 배를 타고 가서 출가물질을 종종 했다.

방학이 되어서 한국에 돌아온 아버지는 울산으로 가서 그곳에 물질가 있는 어머니를 만난 후 바로 일본으로 들어가 공부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등자는 아버지의 얼굴도 낯설고 부모의 정도 느낄 여유 없이 자랐다.

어렸을 적에 동네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 가서 종종 놀곤 했는데, 모래통에서 모래건지기, 돌맹이 건지기 등의 놀이를 즐겨했다. 이러한 놀이는 곧 바닷속에서 오래 잠수하기 등으로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물질 훈련이 된 것이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후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셨으나 급환으로 돌아가셨다. 그때 막 구좌중앙초등학교 학생이었던 등자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더 이상 학업은 해나갈 수



노를 저으며 작업 떠나는 장면

없었다. 어머니 혼자서 꾸러가는 살림이라 넉넉지 못했고, 공부는 돈 있는 집 아이들이나 하는 호사이며 자신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했다. 단지 육지로 출가물질 다녀온 언니들이 있어 옷과 학용품을 사고 와 자랑하며 쓰는 동년배들이 부럽기만 할 따름이었다.

여름날 뜨거운 피약벌 아래 밭에서 김을 매는 어머니는 김매는 소리 보다는 해녀노래를 더 즐겨 불렀다. 높아졌다가는 낮아지고 느렸다가 빨라지는 어머니의 해녀노래는 힘차게 들리다가도 또 구슬프기도 하고 애처롭기까지 했다. 어머니는 밭에 일을 하면서도 늘 바다에서 힘을 북돋우던 해녀노래가 입에서 저절로 나와 흥얼대곤 했다. 등자도 어느새 해녀노래를 자연스레 익혀 나갔다. 어머니의 선소리에 맞춰서 후렴과도 같은 ‘이어도사나’ 뒷소리를 매길 때면 어머니의 노랫소리는 신명을 타서 온 콩밭 콩포기가 바람에 흔들거리고, 밀려오는 파도를 넘어 테왁을 짚고 한 바다로 물질 나가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 바다 역시 ‘바당밭’ 이던가!

열다섯 살 되던 해(1953년) 8월이 되자 할아버지는 작은 박을 따서 여섯 갑으로 나눠 테왁을 만들고 역새인 ‘미’로 망사리를 만들어 주며 물질을 허락했다. 족쇄눈(작은 쌍눈)의 고무줄을 조이고 할머니 망사리 속에 끼워져 있는 빗창과 호미를 들고 소중기를 입고서 작은 어깨에 테왁망사리를 매고 보니 마치 저 거친 파도와 싸울 늙은 장수와도 같은 해녀로 태어난 것이다.

미역을 따고 전복, 고동(소라)을 딸 때는 마치 자신도 한 사람의 해녀로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마저 들었다.

이듬해에 마을 언니뻘인 김복녀 씨가 등자에게 육지 출가물질을 가져고 종용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가. 그렇게도 바라던 열아홉 살(1957년)에 경북 울산 당포에 천초 작업을 하러 첫 출가물질인 ‘초용’을 나가게

되었다.

출가물질 다녀온 선배 언니들이 물색옷감과 공책을 사고 오고, 누구는 돈을 얼마를 벌어서 부모를 살렸다는 소문과 몇 평짜리 밭떼기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다른 곳에 대한 동경과 함께 바다 속에 대한 환상과 경이로 잠을 설치곤 했다.

첫 물질에서는 언니들이 하는 것처럼 외지에 가서 물질 작업하는 것과 남들과 같이 다른 바다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면 했다. 마침 친척 언니가 같이 간다고 해 그나마 안심이 되었고 큰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얼마간의 돈을 벌어서 마을 학생들에게 공책이라도 사주면서 한번 으시대고 싶었다.

결국 첫 작업에서는 천초 따는 것만을 배우고 두 번째 작업에서는 약간의 돈을 벌어들여 옷가지와 공책을 사고 돌아왔다.

■ 출가물질기

출가물질은 해마다 이어졌다. 다른 지역에 가보고 싶은 낭만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돈을 벌어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스무 살(1958년)에서 스물한 살(1959년)까지는 부산 ‘송정포’와 ‘구덕포’에 가서 천초와 도박과 헛무레 작업을 했다. 작업한 물건은 부산 해운대에서 팔아 돈을 모았다.

스물두 살(1960년)에는 강원도 울진 마양에 가서 미역과 헛무레를 했다. 미역을 따고 전복을 땀는데 미역밭을 산 주인인 곽주(藿主)가 6부를, 해녀가 4부를 가졌다. 미역 열 장을 ‘오리’라고 했는데 미역 스무 장이 한 단이 된다.

그 해에 같은 마을 고씨 집안에서 중매가 들어와 결혼한 사람이 지금의



배의노를 저으며 작업떠나는 장면

남편이다. 남편은 농사도 짓고 마을의 ‘신설망’ 계조직에서 멸후림에 참여하곤 했다.

멸치후림은 보통 4~5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했으며 그물을 이어서 멸(멸치)후림 장막을 만들었다. 당선이 먼저 바다로 나가서 멸발(멸치떼의 위치)을 보고 망선은 그물로 후림을 놓는다. 그리고 닻배가 모여서 멸치가 들어 있는 그물을 끌고 오는 것이다. 잡은 멸치는 우선

고리에 담고 각각의 대바구니에 나누어 담은 후 팔기도 하고 젓갈을 담았는데 대부분은 거름 대용으로 썼다. 7시락(보리까끄라기)이나 불치(재)에 섞어 묻어두었다가 부패시켜 보리농사 거름 대용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 해에 다시 거제도의 여구미와 지시포에 헛무래를 갔다. 주로 홍합을 땀는데 채취한 홍합은 삶아서 말린 후 다섯 개의 가락을 한 단으로 ‘은과잼이’를 만들어 팔았다. 이곳에서는 주로 목선을 타서 물질했기 때문에 ‘해녀노래’를 부르면서 작업했다. 등자도 배의 옆전에서 젓거리 노를 저으면서 해녀노래 뒷소리를 열심히 불렀다. 해녀노래를 부를 때면 늘 어머니가 부르던 소리가 귀에 맴돈다. 서럽기도 하지만 힘찬 목소리로 부르면 어느새 일이 신명으로 바뀐다. 당시 거기에는 대정 쪽에서 온 해녀가 있었는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거의 비슷했으며 제주 동촌 해녀들이 부르는 노래보다 약간은 느렸다.

스물세 살(1961년)되던 해 5월에 여객선을 타고 흑산도로 갔다. 이곳에서도 목선을 타고 섬 근처에 가서 물질했기 때문에 ‘해녀노래’를 부를 기회가 많았다. 한경면 신창, 용수, 고산 지역의 해녀들이 썩 잘했다. 그녀도

열심히 노래를 거들다 보니 남보다 앞서 선소리 구연도 잘할 수 있었다. 노래는 보통 ‘젓거리’ 노래 젓는 해녀가 30분 정도 하면, 다시 다른 사람과 바뀌어서 노래 젓고 노래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해녀들이 거의 익혀 나갈 수 있게 된다.

모든 삶이 그렇지만 해녀들의 출가 물질 역시 ‘어둑칠월 동동팔월’이다. 소중기를 입고 맨 몸이나 다름 없이 물질 작업을 했으나 몇몇의 해녀들이 적삼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다. ‘까부리’라고 하는 모자도 쓰게 되고 쌍안경인 족쇄눈보다는 쇠로 된 왕눈을 쓰게 되어 해녀들의 옷 모양이 약간씩 구색을 갖추게 된 것이다.

스물네 살(1962년)에 해녀노래 보유자였던 고 안도인의 인솔로 충청도 안면도로 갔다. 어느 날 소라가 많이 있는 장소를 발견하고 주섬주섬 망사리 가득 넣자 테왁이 물속으로 ‘슌벅슌벅’ 들어가 그만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물 아래에는 은과 금과 같은 해산물들이 꼭 깔려 있어 욕심이 나서 돌아갈 수 없어 계속 잡았다. 그런데 망사리가 무거워지면서 테왁이 물속에 잠겨버려 물 아래를 아무리 뒤흔어도 잡은 물건은 되찾을 수가 없었다. 충청도 지역은 제주 바다와는 달리 물밑이 상당히 어두웠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곳은 7-8월이 되어야 겨우 물밑이 밝아 온다고 한다. 결국 그날 잡은 황금과도 같은 해산물들은 바다에서 영영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물다섯 살(1963년)에는 같은 마을에 사는 해녀노래 보유자인 김영자와 함께 강원도 울진, 마양, 신남에서 미역작업과 소라와 전복을 따는 헛무레를 했다. 강원도는 워낙 날씨가 추워서 물이 얼고 손도 얼어붙어 마치 끊어질 것만 같았다. 땀나뭇가 없어 함께 갔던 동료 하나가 죽을 뻔했는데 물을 지퍼 몸을 데워서 겨우 살아난 적도 있다.

스물여섯 살(1964년)에 큰딸을 얻었다. 현재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다.

자신은 고생스런 해녀일을 딸에게 시키겠다는 생각은 가져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아기가 태어나자 맡길 사람도 없고 출가물질 가는 것이 걱정되어 경북 대보로 물질 갈 때는 두 살짜리 딸을 데리고 간 적도 있었다. 아기구덕을 태와과 함께 등에 지고 바다로 가서 아기를 낚힐 수 있을 만큼 자갈밭을 판 후, 갈 때 데리고 간 열두 살 아기엽개(아기 돌봄이)에게 부탁해두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아기엽개는 맡은 아기 셋을 돌봐야만 했다.

“아기 어떻게 빨리 나오서.”

그러나 물속으로 들어간 해녀들이 이 소리를 들을 리 만무했다. 하루는 아기가 너무 울어대서 아기엽개도 같이 울고 있자 해양경비대 경찰관이 뛰어와 아기엽개와 아기를 데리고 갔다. 물질이 끝났을 때 데리고 온 후 “이 아이 이름은 ‘해경’으로 하라.”고 농을 섞어서 말하기도 했다. 이후 아들이 태어나서 그동안의 육지 출가물질은 그만두고 행원리 바닷가를 떠나지 않았다.

경북 대보에서는 물에서 직접 채취한 우미(천초)를 바로 저울에 달고 어업조합에다 팔았다. 해녀와 조합은 3:7의 비율로 나눴는데, 이 경북 물질은 해무청의 주선에 의한 것이므로 첫 우미 작업한 샷 35만 원을 제주도 해무청에서 받을 수 있었다.

출가물질로 번 돈을 자본으로 말 15필과 소 5필을 샀다. 그리고 밭 700평을 사서 이듬해에는 군에 갔던 남편이 돌아오자 안정된 살림을 꾸릴 수 있었다.

선 다섯 살(1993년)이 되던 어느 날 집안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큰일이 생겼다. 남편이 남의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과 밭을 법원에서 경매 처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물질로 꾸려왔던 가게였는데 다시 물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한없이 서글프기만 했다.

동네에는 ‘일본할망’이라고 불리는 한 분이 제주도 해녀들을 여행비자

로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물질작업을 시키곤 했다. 일본으로 출가물질을 가면 제주도에서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번다는 얘기였다.

해녀들은 일본 나가사키(長岐)와 미에현(三重県) 두 지역으로 나갔다. 상인은 작업할 바다를 산 후 가까운 바다에서는 일본 해녀들을 작업시키고 물질작업이 유능한 제주해녀들은 깊은 바다에서 작업하도록 했다.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보말을 잡고 깊은 곳에서는 성게와 전복을 잡았다.

그해 봄에는 나가사키에 가서 15일간 작업을 했다. 그리고 다시 7월에 미에현으로 갔다. 보름에 100만엔 정도를 벌었기에 어느 정도 가계빚은 탕감할 수 있었다.

■ 상군해녀기

아들이 대학교육을 마치고 대학원 교육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해녀 어머니의 큰 힘 덕택이었다. 물질해서 번 돈으로 재산을 일구고 자식교육까지 뒷바라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등자는 자신이 물질작업을 무사히 할 수 있었던 게 늘 요왕신의 도움이 라고 생각하곤 했다. 칠성판을 지고 죽음의 세계를 오락가락하면서 작업한다고 믿기 때문에 해녀들이 신앙하는 요왕에 대한 종교적 신념은 절대적이었다.

신년이 되면 정월 초이튿날 행원 남당에서 신에게 과세를 드리는 ‘신과 세제’를 드리고 난 후 정월 대보름, 10월 보름에는 계란, 돌레떡, 쌀 등을 넣고 하얀 백지에 싸서 지를 만든다. 지는 ‘요왕지’ 하나, 다섯 식구를 위한 ‘뭍지’ 다섯 개, 그리고 바다에서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 ‘조상지’ 셋을 드린다. 이 조상지는 2차 대전 때 남양군도에 갔다가 죽은 숙부와 물질하다가 물숨을 먹어서 죽은 친정 숙모님, 무역선을 타다가 죽은 조카의 영혼을

위한 것이다.

행원리 어촌계 해녀회는 원래 6개 조합으로 나뉘어 있었다. 현재는 3개 조합으로 통합해서 바다를 나눈다. 2개 조합이 한 바다어장이 된 것이다. 바다어장은 한동과의 경계인 ‘더벙이물’, 그리고 월정과의 경계인 ‘지풍개’, ‘개머리’ 까지 아주 너른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바다어장이 넓은 것은 과거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 격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바다에 떠내려온 시신 처리를 잘 해서 그 대가로 어장을 부여받은 덕분이다. 어촌계는 해녀회와 배 선주들로 구성되고 어촌계장, 해녀회장이 각 1명씩 있으며 6개 조합에 따른 총대 의원이 구성되었다. 해녀회는 총회에 참석하고 해산물 판매를 결산하며 ‘개닭이’와 같은 바다어장 관리나 청소를 공동으로 하며 상부상조한다.

등자는 현재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움직일 때 가장 살아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한다. 지금도 후배 해녀들과 같이 물질작업을 하는데 하루 5~6만 원 정도의 벌이밖에 되지 않지만 물질작업은 거의 빠지는 일이 없다.

■ 해녀노래 교육조교가 되고

해녀노래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다. 물질노동과 함께하던 토속 노동요가 남아 있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다. 일본과 같은 곳에서도 마쓰리나 축제를 위해 신민요가 새로 창작되어 불리지만, 이처럼 직접 노동과 함께 불리는 경우는 드물다. 1970년대 발동선이 사용되기 전까지는 이 노래가 제주도 뿐만 아니라 육지부 그리고 일본 쓰시마까지도 출가물질 해녀들에 의해서 불렸다.

강등자가 해녀노래 조교가 된 것은 고(故) 안도인이 기능보유자가 되면

서부터이다. 처음에는 동김녕리 고(故) 정순덕이 보유자였고 안도인이 조교였다가 정순덕이 타계한 후 이어서 안도인이 보유자가 되었다.

보유자에게서 배운 해녀노래는 직접 테왁을 짚고서 해엄쳐 나가거나 실 때 주로 불렀다. 신 여섯 살(1993년)에 조교가 될 때는 이사무소에서 조합별 해녀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으로 강등자와 김영자를 추천했다. 등자는 “해녀가 해녀노래를 왜 못해.”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추스렸다. 어렸을 적부터 “강씨 집안의 딸들은 노래를 잘해.”라고 들을 정도로 노래에 관심 많았던 차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고와서 해녀노래 외에도 ‘검질(검)매는 소리’, ‘타작소리’, ‘ㄱ 레ㄴ는소리’, ‘물 뜨는소리’, ‘흥애기소리’ 등의 토속민요들도 잘 불렀다.

선아홉 살(1996년)에 제주도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제35회



(왼쪽부터) 강등자, 김영자, 고 안도인과 공연

한라문화제 제주바다 축제 민요경창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그리고 1997년 한라문화제 때에는 공설운동장에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공개행사와 함께 해녀노래를 했고, 이후 탐라문화제 행사에는 해마다 공개발표 공연도 했다. 또 65세(2002년)에 제주해변공연장 민속공연 중 해녀노래를 불렀다.

예순여섯 살(2003년)과 예순일곱 살(2004년)에는 구좌초등학교와 세화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해녀노래를 지도했다.

요즘은 다리가 불편해서 물 질하는 데 애를 먹는 형편이지만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다 물속이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하기만 해, 마치 자신은 태어나기 전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천생의 해녀였다고 생각될 때도 있다고 한다.



해녀노래 공연을 하는 강등자·김영자보유자

2. 김영자 보유자의 물질 생애력

1938년 - 구좌읍 행원리 태생.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해녀노래를 듣고 자람.
12세(1960)- 어머니가 태와과 망사리를 만들어주어 물질을 시작.
18세(1956)- 울산으로 첫 출가물질을떠남.
20세(1958)- 해녀노래 보유자였던 안도인의 인솔로 강원도로 출가물질.
21세(1959)- 같은 동네 청년과 결혼하고 강원도, 울산, 부산으로 출가물질 가서 해녀노래 부름.
27세(1965)- 장녀를 낳은 후 시아버지의반대로 물질 중단함.
40세(1978)- 물질을 다시 시작한 후 보유자였던 안도인과 같이 종종 해녀노래를 부름.
56세(1993)- 해녀노래 교육조교가 됨.
58세(1995)- 제주도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와 제35회 한리문화제 제주바다축제 민요경창대회에서 상 받음.
59세(1996)- 한리문화제 때에는 공설운동장에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행사에서 해녀노래를 부름. 이후 현재까지 탐리문화제 무형문화제 축제 행사출연.
65세(2002)- 제주해변공연장 민속공연 중 해녀노래 공연.
66~67세(2003~2004) - 구좌초등학교, 세화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해녀노래를 지도.
70세~73세(2009~현재) - 해녀박물관에서 해녀노래 교육지도.

■ 물질 습득기

해녀노래 기능보유자인 김영자는 구좌읍 행원리 출신이며 농사와 어업에 종사하던 아버지 고 김인권, 어머니 고 한절정의 8남매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상군 해녀로 동네에서는 물질과 노래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아버지는 펠후림 장막에 들어 신집, 구집을 운용하면서 소임 역할을 맡아 할 정도로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여서 마을일을 잘 돌봤다고 한다.

아버지와 형제들의 얼굴은 기억이 없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네 살 적에

급환으로 돌아가시고 형제들 역시 서너 살 때부터 과상풍에 걸리거나 혹은 급사로 죽어서 오빠, 언니 두 분 그리고 자신과 어머니만이 남아 단출한 살림을 꾸렸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부터 형제들이 일찍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된 데는 그 원인이 있었다고 믿고 있다. 하루는 부친이 구좌읍 김녕리 오일장으로 가던 중에 길가에서 닭 한 마리를 주워다가 장에 가서 팔았는데, 그날 이후부터 아이들이 시름시름 아팠다고 한다. 어머니가 문점을 하자, 심방의 얘기로는 액막이 닭에 있던 ‘긋은 할망’을 청해왔다는 것이다. ‘긋은 할망’은 무속에서 아기를 아프게 하는 ‘구삼승할망’을 일컫는다. 다시 ‘곤할망’인 ‘삼승할망’을 모셔다 내쫓아야만 자식들이 무병장수한다는 것이다. 결국 어머니는 불도맞이 긋을 하고 삼승할망을 청해서 영자랑 오빠 남매를 살렸다.

열두 살(1960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콕(박)으로 테왁을 만들어주고 망사리도 만들어 주었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모래통에 들어가서 모래 주워오기, 바닷속에서 돌 주워 오기 그리고 해초 뜯어서 서로 비교하기 등을 하면서 놀았는데 이러한 유희들이 잠수 물질하는 기초가 되었다.

어머니와 동네 해녀들은 전복을 한 바구니씩 잡고 나와 물에 담가 두었다가 팔곤 했다. 영자도 ‘언제면 깊은 바다에 가서 저렇게 많은 전복을 딸까.’ 하고 전복 잡는 꿈을 꾸기도 했다.

자라면서 배우는 물질은 아주 재미있었다. 어머니가 물에 갈 때는 곧장 함께 따라 나갔다. 영자가 물에서 미역을 줍고 나오면 같이 작업한 해녀들은 이제 갓 물질을 시작한 초보 해녀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의미에서 미역 한 바구니씩을 주었다. 이것을 등짐으로 지고 와 말리면 8~10장 정도 된다. 그리고 소라도 집어주면서 인정을 베풀었는데 이를 제주에서는 보통 ‘게석’이라고 일컫는다. 인정과 여유가 넘치는 해녀사회의 한 모습이다. 이러한 ‘게석’ 풍습이야말로 해녀 선후배들에는 규율을 지키고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어머니 혼자서 오빠를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키는 일은 어려웠다. 어렸을 때 야학방에서 공부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과정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 경작할 밭이 없어 남의 밭을 빌어와 조와 보리 농사를 주로 했는데 밭아 둔 좁씨가 비가 오면 어느새 쓸려 내려가 한해 농사를 그르친 적도 있었다.

구좌읍 행원리는 물의 밭에 비해 바다의 밭은 어느 곳에 비해서도 자원이 풍부했다. 그것은 풍부한 해산물을 키우는 여러 여(바닷속의 크고 작은 바위)들이 있기 때문이다. 더벵이물, 흰돌코지, 조작여, 석은여, 큰여, 큰도고리, 생굴들에는 미역, 전복, 해삼, 소라가 많이 나고, 툇과 전복이 많이 나는 오저여, 노락코지, 물게낭게도 있다. 서쪽으로는 너븐여, 웃너븐여, 알너븐여, 만세여, 조작여, 개굴여, 배놓는여, 고래머리, 박꺼문여, 셋꺼문여, 징거문여, 동글락여가 있다. 이외에도 난도린여와 모세여, 멍게동산, 벌러진여, 올레할망여, 밧해주여, 안해주여가 있다.

주로 상군 해녀들이 작업하는 물이 깊은 곳을 ‘통’이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가막여통 숨빌딸아 이태밀통 숨빌딸아, 폐폐모살 숨빌딸아”라고 노래하면서 영자가 한 해녀로 성장해주기를 기대했다.

이처럼 ‘통’에는 웬만한 기능을 가진 사람은 물질이 어렵고 해산물이 깔려 있더라도 능력 있는 해녀들이 작업하는 곳이어서 자신의 딸이 훌륭한 상군이 되기를 기원하게 되는 것이다.

영자는 물밭이 세지 않는 ‘지풍개’ 쪽의 ‘계대맹이’, ‘노락코지’, ‘고래머리’에 가서 숨비며 차츰 물질 기량을 익혀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다밭을 익히기 위해서 한라산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북망산, 다랑쉬오름 혹은 큰 오름 외에도 ‘오저여’나 ‘넓은여’를 기준으로 삼아보기도 했다. 요즘은 행원리에 풍차가 있어서 육지의 지표점을 세우는 것은 어

렵지 않으나 처음 물질하는 애기상군 톨파리들에게 기준점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다.

차츰 물때도 익혀 나갔다. 음력 아흐레가 한물, 보름이 일곱물, 그믐이 일곱물, 스무사흘이 한 조금이 된다. 일곱물을 중심으로 전후 7~8일간 물질작업을 하는데 당시는 한물에서 열두물 내내 작업을 해서 쉬는 날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밭에 가 김을 매다가도 물이 내려가면 오후에는 물질 작업을 간다거나 또한 물질 작업을 마치고 밭농사 김매기를 하기도 한다. 농사 때마다 부르는 농업노동요가 정해져 있지만 그중에서 바다에서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해녀노래는 어머니 입에서 그치는 날이 없었다. 아니, 전대 할머니를 통해서 혹은 이웃의 언니로 구전되어 바다에서 작업하는 해녀는 모두가 다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노래 사설은 그침이 없는데, 자신의 신세를 해녀노래의 선율에 바로 실어서 노래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정리이고 신세한탄이었다.

해녀들이 알아야 할 바다에 대한 산지식은 계절 혹은 시기에 따라서, 해산물의 상태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천초 해금은 5월 1일에서 6일까지, 일반초 작업을 끝낸 후 며칠 이반초 작업을 하고 곧 다시 입어를 금한다. 왜냐하면 며칠 후 소라 씨가 천초에 붙기 때문에 다시 천초 작업을 하는 것은 소라 생산량을 줄어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소라 작업은 양력 10월 1일부터 천초 채취하기 전인 3~4월로, 이때가 지나면 해초의 풀이 온통 바다를 뒤덮기 때문에 더 이상 작업하기 힘들다. 전복 작업은 양력 11월 1일부터 천초 작업 전까지이고, 산란기인 1월에는 작업을 금한다.

■ 출가물질기

열여덟 살(1956년) 때 육지 출가물질을 갔다. 꿈에도 그리던 여행과 같

은 일이었다. 어머니가 늘 울산에서 작업을 했으나 그때까지 한번도 같이 가보지 못했다. 작업뿐만 아니라, 8월에 숙모가 아기를 낳을 것이어서 아기업개(아기 돌봄이) 역할도 같이 하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한 달에 거의 21일간 물질을 했다. 다른 지역이 한 달에 보름 정도 하는 것에 비하면 일주일 정도 더 하는 셈이다. 그 해에는 숙모가 해산하고 그 시중을 들어 주어야 했기 때문에 9월이 지나서야 제주도로 들어올 수 있었다.

스무 살 되던 해(1958년)에 해녀노래 보유자였던 안도인의 인솔로 강원도로 출가물질을 갔다. 거기서는 주로 2~3월에 미역, 전복, 문어를 따는 헛무레를 했는데, 땅 위에는 아직도 눈이 묻어 있고 바닷물 속은 따뜻하나 물 밖으로 나오면 손이 얼 정도로 차갑기가 이를 데 없었다. 마치 손발이 쪼개질 것만 같은 강추위, 낮설은 지형들, 이런 낯선 땅에서 느끼는 정서는 슬프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강원도에서의 물질은 비참한 생활 그대로다. 대여섯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들깨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곤 했는데 가슴병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지방 해녀들이 김치를 만들었다 주면 해녀들은 헛무레로 잡은 전복을 반찬으로 바뀌서 먹기도 했다. 밥 짓는 일은 서로 돌아가며 당번을 정하고 남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놀거나 혹은 소중기를 아름답게 꾸미느라고 여러 문양의 수를 놓기도 했다.

강원도 속초, 죽변 등지에서 소라나 전복 따는 헛무레 작업이 어느 정도 치러지고 나면 울산으로 다시 우미를 뜯으러 갔다. 또 해삼, 미역 등을 캐서 부산에 가서 팔기도 하고, 때로는 발동기를 타고 부산 잠내, 범일동에 가서 보름씩 배 위에서 숙식하면서 작업을 했다. 이른바 ‘난바르’ 물질이란 것이다. 완도, 소완도에서는 전복이 많은 가랑창이를 만나면 주로 한 망사리씩 잡을 수 있었다.

부산 ‘갯내’ 물질에서는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물밑이 너무 어두워

미처 덩장그물이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덩장에 걸려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퍼덕일 때 함께 물질하던 동료는 낮으로 그물을 잘라 주어서 살아날 수 있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이었다.

울산에서는 이모할머니 며느리였던 ‘여옥’ 이와 함께 물질을 했다. 그녀는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누구보다 잘했다. 영자도 어머니에게서 배운 노래 실력으로 같이 덩달아 주고받으면서 해녀노래 사설 레퍼토리를 늘려갔다. 또 소안도에서는 해녀노래 보유자였던 고 안도인과 ‘난바르’를 했는데, 안도인은 워낙 장난이 심하고 놀기 좋아하여 테왁을 치면서 신세한탄이 담긴 노래를 잘했다.

스물한 살 되던 해(1959년)에 결혼을 했다. 남편은 멸치의 ‘신집’과 ‘구집’을 운용하면서 신설망의 뿔후림을 하고 있었다. 시집에서는 결혼 뒤에 물질을 지속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그래서 시부모 앞에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기로 했다.

“삼 년만 물질하게 내버려두십시오. 육지물질로 돈을 벌어 뜬 땅 밟때 기라도 사서 재산을 일궈야 하겠습니까.”

마침 남편은 해군으로 경상남도 진해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주로 부산에서 물질을 했으므로 남편과는 부산에서 흔히 요즘 말하는 주말부부로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삶이 남편의 군대 복무시절 3년간 이어졌다.

강원도, 경상도(울산·부산), 제주도를 오가면서 물질작업을 했다. 특히 울산의 물질에서는 노를 젓고 작업을 했으므로 노 젓는 기능을 익히고 해녀노래를 완벽하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이때 뜬 천초 값으로 이모할머니로부터 작은 돌랭이(밭) 하나를 얻었다. 이 밭은 친정에서 농사를 짓도록 식구들에게 주고 왔다.

또 출가물질에서 돌아올 때 친정어머니 ‘장옷’과 시아버지 ‘큰옷’을 장만하고, 번 돈 30만 원을 시아버지에게 드렸다. 시아버지는 그 돈을 보람

있게 써야 된다고 하면서 망아지 한 마리를 사서 키웠다.

몇 해 없어 곧 말 일곱 마리가 되었다. 말 두 마리를 팔아서 ‘동문밭’ 을 사고 또 두 마리를 팔아 ‘질왓’ 을 샀다.

남편이 군에서 제대를 한 이후부터는 소와 말을 기르고 목축을 하기 위해 목장 10만 평을 샀기 때문에 육지부로 물질 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4,500평 정도 밭에 마늘, 당근, 콩과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

3년간 번 돈을 기반으로 약간의 재산을 일구었다. 이 결과는 돈을 부릴 줄 아는 시아버지의 도움도 있었지만 출가물질에서 번 돈이 밑받침이 된 것이다. 얼마 없어 첫 아들을 얻었는데 과상품으로 7일 만에 저 세상으로 떠나버려 자식을 가슴에 묻었다.

■ 물질 중단기

스물 일곱 살(1965년)에 장녀 경림이를 얻은 후 물질작업을 잤다. 이제 는 남보다 더 깊은 곳에 가서 오랜 시간 작업할 수 있었고, 같은 시간 안에 남보다 많은 양을 채취할 수도 있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영자는 자신의 출가물질이 가정경제에 톡톡히 한몫을 했다고 늘 자부하고 있었다. “밭 떼기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부지런히 물질하지 않았쥬게.” 곧 장남이 태어나 아기도 키워야 했으므로 출가물질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다.

시누이는 자신보다 나이가 밑이면서도 함께 물질을 다녔고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의논할 정도로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물질 작업하던 시누이가 물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얼굴이 보이지 않자 작업을 그만두고 물속을 헤집었으나 영영 나타나지 않았다. ‘물숨’ 을 먹어서 죽은 것이다. 동료 해녀들이 날이 저물도록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모두 밖으로 나왔다. 며칠 후 구좌읍 한동리 해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동리 평대알 쪽에 시신이 물속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겁을 먹은 해녀가 물으로 올라와서 연락하자 바로 해녀들과 어부들을 동원해 그 바닷속을 이 잡듯이 뒤집어 다니며 찾았으나 어느새 시신은 간 곳이 없었다.

그런데 이튿날 시신이 ‘더뎡이물 흰돌코지’에 떠오른 것이다. 자신의 딸을 잃은 시아버지는 혼절하고 말았다. 그런 후에 영자의 물옷과 바구니에 담긴 빗창, 망사리, 테와 등의 도구들을 내팽개치고 던지기 시작했다. 딸의 죽음을 보고서 당신이 아끼는 며느리가 다시 물에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결국 동네에 살던 큰심방인 이중춘 씨를 모셔다가 요왕신에게 기원하는 요왕맛이를 한 후 ‘물굿’을 했다. 이 굿은 사람이 죽어 더러워진 바다를 깨끗이 하고, 바다에서 낚을 건져올려 고이 저승으로 돌려보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이때부터 시아버지는 영자를 불러서 “며느리로 삼지 않고 딸로 삼아서 살겠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바다에 간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강단을 부렸다. 하는 수 없이 물질을 단념하고 전업 농사꾼이 되어야 했다. ‘당모세’에서 참외와 토마토를 재배하고 마을에서는 쌀과 담배를 파는 슈퍼(가게)를 열었다. 집안도 안정되고 자식들도 늘어나면서 육 남매가 되었다. 남들은 열심히 바다에서 번 돈으로 제주시 쪽에 가서 집을 사고 자식을 공부시키고 서울에 있는 대학의 학비를 마련한다고 하면서 야단들이었다.

영자는 잠수 물질로 한 톨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농사와 겸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욕심이 나는 것이었다. 물론 이는 일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돈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식공부를 위해서 제주시 신산공원 앞 슬레이트 집을 350만 원을 주고 샀다가 이후 2층으로 새로 지었다. 땅을 사던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고 안

도감마저 들었다.

■ 물질 현장에서 해녀노래를

스물 일곱 살에 물질을 그만둔 후 비로소 마흔 살(1978년)에 도구를 챙겨 물질을 시작할 수 있었다. 고무옷을 지붕 위에 숨기며 만류하던 시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마음 놓고 바다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다는 이전에 비해서 해산물이 훨씬 줄었다. 해녀들은 캐온 해산물을 농산물과 함께 매장에서 팔았는데 특히 미역은 말려서 토산품으로 관광객들에게 팔았다.

영자는 해녀회 2조합 총대의원을 맡았다. 총대의원은 2조합을 대표하여 참석한다. 회원들과 같이 바다청소인 ‘개담이’를 하고 어촌계의 투석사업을 돕기도 했는데 물속으로 들어가서 모살통에 투석하는 돌의 위치를 지정했다. 곧, 황폐화된 바다에 돌을 넣어서 해산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원관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정월에 제를 지내는 ‘남당’ 해신제의 제비쌀을 모으는 일도 맡아 했다. 보통 권제로 좁쌀 한 말이나 보리쌀 한 말을 받았다. 이 제물은 저승의 문서를 관장하는 ‘남당하르방’에게 바치는 것이다. 거친 파도를 넘어서 명정포와 칠성판을 등에 지고 가는 것과 같은 목숨을 담보로 한 물질작업 안전을 위해 요왕에 기도하고 당에 정성을 다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구좌읍 행원리는 배를 타고 작업을 하지 않아서 보통은 테왁을 짚고 해엄쳐 나가면서 해녀노래를 불렀다.

선 여섯 살 되던 해(1993년)에 해녀노래 교육조교가 된 이후부터는 방송사나 해녀노래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종종 찾아왔기 때문에 보유자였던 고 안도인과 노래 부를 기회가 많아졌다. 해녀노래 외에 잘 부르는 토속

노동요는 ‘검질매는 소리’, ‘뱃불리는 소리’, ‘홍아기’, ‘아기홍그는 소리’, 놀 때 부르는 노래로 ‘오돌또기’, ‘너녕나녕’ 외에 기타 타령이 있다. 어머니가 잘 불렀던 것으로 4·3사건 당시의 ‘성담 쌓는 노래’란 게 있는데, 창가 형식의 이 노래는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쉰 아홉 살 되던 해(1996년) 제주도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제35회 한라문화제 제주바다축제 민요경창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그 때문에 60세 되던 해(1997년) 한라문화제 때에는 공설운동장에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시연에서 해녀노래를 했고 그 이후 계속해서 탐라문화제 행사 때에는 해마다 공연을 했다.

예순 다섯 살(2002년)부터 지금까지 구좌초등학교와 세화중학교에서 해녀노래를 지도하고 근간에는 해녀박물관에서 해녀노래를 교육하고 있다.



2008년 해녀축제 때 해녀노래 공연



2009년 해녀박물관에서 해녀노래 공연을 벌이는 장면

김영자는 해녀로서의 삶이 아주堂堂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자부심을 갖는다. 다른 해녀들보다 채취하는 해산물 양도 적고 물질작업이 힘들다고 여길 때도 있었지만, 바다와 같이한 삶으로 얻은 해녀노래 보유자 직함은 너무나 큰 행운이라고 여기며,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지금처럼 잘 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바다 용왕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Ⅵ. 해녀노래의 전승방안과 보호조치

제주여성의 강인한 활동상과 그 정서 표출로 상징화되는 ‘해녀노래’는 지난 1971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1989년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이래로, 그동안 이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 이의 구체적 사례로 전승보전을 위한 음반제작, 전수교육 등이 정책적인 움직임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나오곤 했다. 그러나 해녀노래에 대한 가치평가와 전승보전 및 활용방안에 대한 더욱 지속적이고 활발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해녀의 문화 중에서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더불어 제주 해녀들이 불렀던 해녀노래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인식과도 상통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제1호 무형문화재 지정 전승보존

가. 보유자 지정 및 활동 실태

1971년에 해녀노래는 성읍민요와 함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주민요’로 지정 전승되다가 1989년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보존하게 되었다.

1993년 구좌읍 행원리 고(故) 안도인이 보유자였으며 이어 안도인의 타

계로 2005년 김영자와 강등자가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2007년부터 시작된 해녀박물관 어업노동요 전수교육은 ‘해녀노래’를 전승하는 데 전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제주 전통문화의 향유 및 어업노동요 전승기회를 제공하고 선조 어업인의 애환과 삶의 정서를 이해시키기 위한 해녀박물관에서의 교육은 2007년 2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14~16시에 이루어 졌는데 전체 43주, 86시간 실시하였다. 50명의 신청 수강자 중 전체 25주 50시간 이상 이수자 12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이의 교육을 담당한 강사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3명으로 제1호 해녀노래 보유자 김영자, 강등자 그리고 제10호 멸치후리는 노래 보유자 김경성(얼마전 작고함)이다.

2008년도에는 1월 5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14~16시에 해녀노래, 멸치후리는 노래, 성산을 삼달2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어업노동요인 ‘갈치 낚는 소리’와 ‘태우 노 젓는 소리’ 교육을 했다. 교육시간은 전체 47주 94시간이었고, 수강자 37명 중에서 전체 30주 이상 이수자 18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2009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및 공연을 진행하였다.

2009년도에는 3월 6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14~16시에 어업노동요 교육을 실시했다. 총 23회 교육을 거쳐 강경자 외 18명



해녀노래 전수교육 장면



하도어촌계 교육후 기념촬영

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또한 3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제주도 내 어촌계 해녀들에게 해녀노래 전수 교육을 실시하여 성산읍 성산리, 안덕면 대평리를 비롯하여 500명의 교육생 중 150명이 이수하였고, 한림읍 귀덕리 한수풀 해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해녀문화 전승보존을 위한 교육장으로 삼았다.

이 외에도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에서 주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무료강습회를 실시하였다.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의 지원금으로 해녀노래 보유자들은 2008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성산 어촌계, 2008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하도리어촌계 해녀들을 대상으로 해녀노래 전수교육을 했다.

나. 해녀노래의 국내외 공연 및 가치 선양

○ 2008년 1월 30일 <남일본 신문> 게재

- <문화 유산으로 지목되는 해녀문화>(나가시마 순슈케, 가고시마 대학 교수)

“새로 만들어진 해녀박물관에서 ‘해녀노래’ 교육이 시작되었다.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70대 두 사람이다. 수강자는 현재

인들에 의해 물안경이 전해져서 해녀노동의 신기원을 이뤘다.

제주도 해녀들은 조선반도, 극동 중국의 연안, 일본의 태평양 연안에 출가하는 자들로 대활약을 하였다.

해녀들은 경제력이 있고 가정과 지역 내에서의 지위도 높다. 이전 부인회 한일 교류회가 동경도 하찌만쵸에 있을 때 회장이 제주도 여성이었다. 여성 혼자서 자식 13명을 물질작업으로 대학교육까지 시켰다. 국경을 넘어 여성들의 새로운 교류가 기대된다. 협력, 연대는 한국과 일본을 더욱 가깝게 할 것이다.”

○ 해녀노래 보유자 일본 초청공연

해녀무형유산 한·일 공동 등재 기반조성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해녀교류, 해녀박물관과 도바시(鳥羽市) 바다박물관(海の博物館) 협조 논의 및



해녀에 관한 정책 및 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다. 일본 섬여행사 및 일본(日本) 도서학회(島嶼學會) 공식초청이 있었다.

일본 미에현의 해녀문화와 한·일 교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활동상과 해녀노래 공연의 실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9월 18일

- 나가노(中部) 국제공항, 도바시(鳥羽市) 도착, 일본에서 환영 나온 학자 및 참여자들과 간담회 중 ‘해녀노래’ 공연, 해녀와 관련된 전통적인 노 젓는 소리가 남아있는 것에 대해 일본 측 감탄.

▶ 9월 19일

- 시마시(志摩市)에 시집온 제주해녀 김미진과 그녀의 후견인 해녀의 집 아마고야 체험(海女小屋體驗), 아마 촬영대회 등을 기획하는 아마 회장 마쓰오상 상견, 동행.
- 8시에 오오사츠(相差)로 출발하여 아마자료관(海女資料館) 방문, 해녀들의 신앙처인 니시카미신사(石神社)를 방문.
- 구자키(國崎)의 미카츠키 진자(御潛神社), 일본아마의 무형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지는 이세진자에 바치는 전복인 노시아와 비를 제작하는 장소, 그리고 「海士・潛女神社」를 방문.
- 바다박물관(海の博物館)을 방문하여 이시하라(石原義剛) 관장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1970년대 제주해녀의 특별전시 코너 및 전시장, 수장고 관람.
- NHK 방송에서는 박물관 교류 및 해녀노래 보유자들의 공연을 취재 후 뉴스에서 소개함.

▶ 9월 19일 오후

- 도우시지마(答志島) 교류회에서는 도바시 수협에서 초청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한 도바시 수협 관계자 및 도시지마 세 부락 소속 시청 관계자, 일본아마 80명 참가, 어로 규칙, 자원관리, 건강관리 등에 대한 간담회와 해녀노래 공연에서 일본 아마들 감동과 흥분.

▶ 9월 20일 오전

- 카미시마(神島)로 향함, 현역 초나 이카이 회장(町内會長)을 비롯하여



일본도서학회 회장이 갈옷에 대해 질의

아마상 30명이 환영, 이곳은 해녀를 테마로 한 소설 「조요」(潮騒, 소설 주인공 이름)의 배경이 되는 곳이고 영화 촬영을 했던 곳으로 유명함.

- 스가지마(菅島)에는 도바시 시장이 참석, 교류회를 갖고 의의 깊은 의견을 교환, 시장은 지역민이 원한다면 교류를 검토 요구할 정도로 교류열기 확산.

- 시룽고 마쓰리가 행해지는 시룽고 해변과 시라하게 신사 등을 스가지마 해녀의 안내로 관람.

- 日本島嶼學會(일본도서학회) 交流會(교류회)에서 해녀노래 공연 그리고 제주도 전통문화 및 해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함.

▶ 9월 21일

-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제주해녀의 세계무형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일본 바다박물관장(海の博物館長)도 ‘한·일 해녀교류사(韓・日 海女交流史)’를 주제로 발표를 해서 해녀와 일본 아마의 한·일 공동 유네스코 무형유산 지정에 대한 분위기에 참석자들 호응.

다. 해녀축제 때에 해녀노래 공연으로 대내외적 홍보



한국주재 대사일행 120명 해녀공연 관람

○ 2007년 6월 9일 해녀민속예술공연 개최, 해녀노래, 해녀춤 공연.

○ 2007년 10월과 2008년 10월 탐라문화제 해녀민속축제 때 해녀노래, 해녀놀이 공연.

○ 2009년 9월~12월(매주 1회) 일반 관람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객과 함께 하는 해녀노래 공연’을 개최하

여 제주해녀문화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관광 상품화를 기했다. 해녀노래 보유자 및 전수자 10인이 참여하고, 해녀노래, 해녀춤 등 공연 후 해녀들과 관람객이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라. 자료 수집 및 영상 음반 제작

○ 제주 MBC 해녀노래 수집(1991)

○ 임석재 제주민요(1997)

○ 제주 KCTV 해녀노래 수집(2001~2005)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영상화 사업(2004)

- 제주도민요 중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곡에 대해서 영상과 곁들인 DVD 음반제작이다. 이 음반에 해녀노래가 들어 있다. 보유자 안도인의 선창과 당시 전수조교 김영자, 강등자의 후창으로 녹음되고 제작되었다. 영상작업은 제주해녀의 삶이 영상을 통해 잘 표출되고 있으며 해녀노래를 듣고 실제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립 문화재 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제주민요(2008)

○ 해녀박물관 CD제작(2008)

해녀문화의 보존 전승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박물관 기념상품으로 개발 판매하여 해녀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녀박물관에서 『제주해녀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CD를 제작했다.

음반 수록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해녀노래’ 그리고 해녀항일운동(1931~1932) 당시 故 강관순이 옥중에서 가사를 쓰고 일본 ‘동경행진곡’에 곡을 붙인 해녀항일가, 제주해



녀들이 육지부 출가물질 중에 향수를 달래면서 불렀던 故 이영근 작사 ‘출가 해녀의 노래’, 해녀놀이나 해녀 무용을 위한 춤곡으로 불렀던 ‘해녀놀이요’ 등이다.

2. 앞으로의 과제

○ 해녀관련 세계무형유산 한 종목으로서의 가치 중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2003년 유네스코 32차 정기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일명 ICH 협약)의 한 종목으로서 가치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의 ICH 협약 제2조의 ‘무형문화유산’ 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관습, 재현, 표현,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도구, 사물, 공예 및 문화공간 모두를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다.

곧, 해녀 무형문화유산으로의 기술, 도구, 표현, 공간, 관습 등에서 구체적인 종목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생업과 문화유산의 총체적인 지정을 들고 있다. 해녀의 생업과 문화와 관련된 보존·전승이 필요한 여러 종목 중에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과 ‘해녀노래’ 는 가장 중요한 종목이 된다.

현재 국내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무형문화재법에 따라서 해녀와 관련되어 지정되고 보존·전승되는 무형문화재는 해녀노래(제주특별자치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와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 제10호로 지정된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해녀박물관 소장)가 있다.

우선 해녀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단계로 제주도 지정 해녀노래를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로 승격시키는 것도 필요한데, 이는 지속적으로 해녀문화를 전승·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해녀관련 문화재로서 해신당과 불턱을 민속자료로 지정할 필요

가 있으며 공동체를 이끌던 관습이나 규약 그리고 구좌읍 동김녕리 잠수국과 같은 무속의례와 옷, 도구 제작 기술 등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 ‘해녀마을’ 지정, 해녀작업과 문화 전승·보존 가능하도록

해녀물질과 관련하여 해녀들의 수가 많고 어장관리가 잘 되어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 안덕면 대평리, 성산읍 온평리, 구좌읍 하도리, 우도면 가파리 등을 ‘해녀마을’ 혹은 ‘해녀문화마을’로 지정하여 해녀들의 물질 작업 기술이나 해녀노래가 교육되고 전승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로 구좌읍 하도리가 2008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서 마을어장 정비 및 해녀문화와 관련된 유적을 정리한 바 있다.

○ 지속적인 전승교육 및 해녀춤과 노래 공연실시

해녀박물관에서는 2009년도에 토요일에 맞춰 지속적으로 어업노동요 전수교육을 추진했으며, 제주도내 10개 어촌계를 지정하여 ‘찾아가는 해녀노래 전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해녀박물관에서는 해녀노래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는 공연을 실시하였다. 축제뿐만 아니라 박물관 행사 혹은 외국인이나 대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다.

○ 해녀와 ‘해녀놀이’ 전승·보존

해녀노래 외에도 해녀놀이 그리고 놀이요 등도 해녀노래와 함께 지속적으로 전승·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해녀놀이가 생겨나게 된 배경을 보면 1971년도에 전주에서 열린 제12회 전국민속경연대회 때 공연에서 선보이

게 되었고, 음악을 편곡하여 유희화한 후 자주 해녀춤에 쓰이게 되면서 다시 새로운 해녀노래가 유행하게 되었다. 원래 노동요인 해녀노래 사설을 이용하여 춤곡으로 편곡, 유희요로 전환한 새로운 형식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해녀놀이요’는 노동요인 해녀노래에 비해서 곡조가 아름답고 흥겨운 편이다.

이외에도 지역마다 약간씩 달리 불리는 변이형의 해녀노래들과 강관순이 작사한 ‘해녀항일가’, ‘멸치후리는 노래’, ‘테우노 젓는 소리’, ‘갈치낚는 소리’ 등의 어업노동요도 지속적으로 전승되어야 할 것이다.

○ 보존의 차원을 넘어서 콘텐츠화로 현대화 · 보편화 · 세계화

근면성, 개척정신, 강인함을 상징하는 제주해녀의 삶과 해녀노래의 여러 모티프를 찾아서 감동적인 해녀의 삶을 재구성하여 시나리오를 제작하거나 해녀 캐릭터 구성에 이용하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화를 시도해야 한다.

해녀생애력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창작오페라 등의 작품으로 정기공연을 하거나, 다큐제작나 영화와 같은 관련 작품들을 창작하는 노력들도 있어야 한다.

2부

해녀들의 정신,
그녀들의 정서*

1. 노 젓는 작업과 상황

해녀노래의 사설에서 자주 표현되어 등장하는 게 노동 작업 상황이다. 노를 젓고 물길 따라 배가 나가는 상황, 사공과 배 위에서 불 때고 밥 짓는 ‘화장아’에게 시간이 더디어 감을 재촉하는 내용, 앞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밀치고 제치며 작업하는 모습 등이 노래된다.

거대하게 밀려오는 파도를 ‘놋덩이’라고 표현했다. 이 놋덩이는 바람과 구름처럼 부풀린 모습으로, 바다 고개는 ‘절고개’인데, 노를 젓고 배가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표현했다.

이여싸나	이여싸나
잘잘가는	소낭기베야
잘잘가는	잡낭기베야
일만줍녀	거두와시경
만낭태수	냉기레간다

잘잘 가는 소나무 배야/ 잘잘 가는
잡나무 배야/ 일만 해녀 거두어 실어/ 만
량태수(萬兩太守) 남기러 간다

이여싸나	이여싸나
서월네레	짐든베놓건
맹지와당	실보롬 불라



출어 그물 작업을 돕는 해녀들

* 김영돈, 『제주의해녀』, 제주도, 1996, 자료 참고

갈치바당	갈복롬불라
이여싸나	이여도싸나

서울로 짐 실은 배 놓거든/ 명주(明紬)바다 실바람 불어라/ 갈치바다
갈바람 불어라

이여싸나	이여싸나
쌀물에랑	동의와당
들물에랑	서의와당
한강바당	베띠와농곡
간장타는	내로구나
이여싸나	이여싸나

쌀물에는 동해(東海)바다/ 들물에는 서해(西海)바다/ 한강(漢江)바다
배 띄워놓고/ 간장 타는 내로구나/

요눛둥이	저눛둥이	
뿔을먹고	몽칼몽칼	올라나오나
지름통을	먹었는가	
숨통을	먹었는가	
보름통을	먹었는가	

이 놀덩이 저 놀덩이/ 무엇을 먹고 몽클몽클 올라나오나/ 기름통을 먹
었는가/ 인삼을 먹었는가/ 바람통을 먹었는가

이물에랑	이사공아
고물에랑	고사공아
허릿대밧디	화장아야
물때점점	늦어나진다
이여도차라 히	이여도싸나 하
이여도싸나 하	이여도싸나 히



해녀들이 노를 저으면서 바다로 나가는 역동적인 모습

이물에는 이씨 사공아/ 고물에는 고
씨 사공아/ 허릿대 밑에 화장아(火匠兒)
야/ 물때 점점 늦어가는구나/ 이여도차
라 히 이여도싸나 하/ 이여도싸나 하 이여도싸나 히

이여싸나	이여싸나
요네젓엉	흔저가게
우리배는	잼도재곡
놈의배는	뜸도뜨다
수덕 좋고	재수 좋은
우리배야	흔저가게
맹지바당	실브 룬불라

이 노를 저어서 어서 가자/ 우리 배는 빠르기도 하고/ 남의 배는 너무
느리다/ 수덕(手德) 좋고 재수 좋은/ 우리 배야 어서 가자/ 명주바다 실바
람 불어라

이여싸나	이여싸나
------	------

배야배야
 이내몸을
 어디로나
 저바당을
 저절고개
 혼질두질
 생복고동
 이바당을

이내배야
 실어놓고
 간단말고
 한질삼고
 지붕삼아
 지픈물속
 좇일려고
 시달리네



안덕면 사계리 해녀들이 배를 타고기원하는 모습(위)과 물질작업 하는 해녀들(아래)

배야 배야 이내 배야/ 이내 몸을 실
 어 놓고/ 어디로나 간단 말이고/ 저 바다
 를 한길 삼고/ 저 물결고개 지붕을 삼아/
 한길 두길 깊은 물속/ 전복 소라 찾으려
 고/ 이 바다를 시달리네

이여씨나	이여씨나
바당의도	머들이싯저
산전의도	머들이싯저
배도종곡	네도종앙
요베를탕	어딜가리
진주바당	혼골로간다

바다에도 마루가 있다/ 산전(山田)
 에도 마루가 있다/ 배도종고 노도 좋아/
 이 배를 타고 어딜 가리/ 진주바다 한골

로 간다

이여싸나	이여싸나
지붕에도	머들이싯나
이팔청춘	머를웃일팔가
젓고나가게	배겨나가게
요머를을	젓고나가게

지붕에도 마루가 있다/ 이팔청춘 마루 없을 말인가/ 젓고 나가자 견더
나 가자/ 이 마루를 젓고 나가자

이여싸나	이여싸나
늪은중이	소곰먹듯
늪은영감	장개가듯
이네젓영	굿되가게

늪은 쥐가 소곰 먹듯/ 늪은 영감 장
가가듯/ 이 노 저어 물가로 가자

이어도허라	이어도허라
절이러라	삼성제절아
절이러라	수성제절아
울어오면	머소와라라
이어이어	이어도허라



작업 나가기 위해 기다리는 해녀들

절(큰 파도)러라 삼형제(三兄弟) 절일러라/ 사형제(四兄弟) 물결아/ 울
어오면 무서웠러라

이여씨나	이여씨나
서월바당	화륜선뗏저
적주바당	미역배뗏저
평양바당	조기선뗏저
이여씨나	이여도사나

서울바다 화륜선(火輪船) 뗏네/ 제주바다 미역배 뗏네/ 평양바다 조기
선 뗏네



국자사들을 이용한 테우의 자리잡이 작업
장면

이여씨나	이여도사나
진바당에	진놀레불렁
조큰바당에	조큰놀레불렁
요네젓엉	어덜가코
이여씨나	이여도사나

긴 바다에 긴 노래 불러/ 짧은 바다
에 짧은 노래 불러/ 이 노(櫓)를 저어서
어덜 갈꼬

이여씨나	이여씨나
지붕에도	묵를이싯나
이팔청춘	묵를웃일말가

젓고나가게	배겨나가게
요믈를을	젓고나가게
아니나젓엉	몬가더라
젓일대로	젓어나가게

지붕에도 마루가 있다/ 이팔청춘 마루 없을 말인가/ 젓고 나가자 견더
 나가자/ 이 마루를 젓고 나가자/ 아니나 저어 못 가더라/ 저을 대로 저어 나
 가자

요눗뎡이	뿔을먹고
둥긔둥긔	술썰싱고
벼름통을	먹어싱가
구름통을	먹었던가
둥긔둥긔	잘올라온다

이 파도 뿔을 먹고/ 둥긔둥긔 살썰는가/ 바람통을 먹었는가/ 구름통을
 먹었는가/ 둥긔둥긔 잘 올라온다

이여싸나	이여싸나
산뛰는건	웅매로다
여뛰는건	베로구나
요바당에	은광금이
변질변질	끌려서도
노끈낭끼	올매로다

산에 뛰는 건 웅마(雄馬)로다/ 여를 넘는 건 배로구나/ 이 바다에 은과
금이/ 반짝반짝 깔렸어도/ 높은 나무의 열매로다

이여씨나	이여씨나
우리배는	잘도간다
참매새끼	잡도재다
요베타근에	어딜가코
진도바당	골로가키여
바당에도	묵을이싯나
지붕에도	상묵을싯나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참매 새끼 빠르기도 빠르다/ 이 배를 타서는 어
딜 갈까/ 진도바다 골로 가련다/ 바다에도 마루가 있다/ 지붕에도 용마루
가 있다



고기잡이 간 남편이 돌아온 포구에서

이물에는	이사공아
이여씨나	이여씨나
고물에는	고사공아
이여씨나	이여씨나
허릿간에	화장아야
물때점점	늦어나진다
이여쳐라	쳐라쳐라
쳐라배겨	배올라간다

배 앞에는 이사공이고/ 배 뒷전에는

고사공아/ 허릿간에는 화장아야/ 물때 점점 늦어나진다/ 처라배겨 배 올라
간다

우리부모	날날때에
주야장천	요네초록
허리빠지꼭	노닐라고
헝겂말가	처라배겨
아니지고	못가더라
요목저목	울돌목이
정녕헝네	

우리 부모 나를 낳을 때에/ 밤낮으로 이 노처럼/ 허리 아프게 일하라고
/ 하란 말인가 처라배겨/ 아니 지고 못 가더라/ 이 목 저 목 울돌목이 분명
하네

2. 물질작업

비록 바다에 은과 금처럼 중요한 해산물이 많이 깔려 있다 하더라도 물질작업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해녀들은 혼백상자(魂帛箱子)⁶⁵를 등에 지고 작업한다고 여기며 칠성판(七星板)⁶⁶과 명정포(銘旌布)⁶⁷를 머리에 이어서 다닌다고 한다. 이러한 소재들은 죽음을 상징한다. 곧,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물질작업 하는 상황을 말한다.

바다 물질은 저승길을 지나다니는 것처럼 힘든 노동으로서, 작업과 함께 늘 따라 다니는 게 바로 죽음에 대한 비장한 인식이다.

이여싸나	이여도싸나
혼백상지	등에다지곡
가슴앞이	두렁박차곡
한손에	빗창을쥔곡
한손에	호미를쥔곡
한길두길	수지폰물속
허위적허위적	들어간다
이여싸나	이여도싸나

혼백상자(魂帛箱子) 등에다 지고/ 가슴 앞에 ‘두렁박(테왁)’ 대고/ 한 손에 ‘빗창’을 쥐고/ 한 손에는 ‘호미’를 쥐어/ 한길 두길 깊은 물속/ 허위적 허위적 들어간다

65 신주(神主)를 모시는 상자

66 관(棺)속바닥에 까는 얇은 널조각, 복두칠성을 본떠서 일곱구멍을 뚫음

67 명정(銘旌)은 다홍비탕에 흰 글씨로 죽은 사람의 품계, 관직, 성씨를 기록한 기

너른바당	앞을재연
흔질두질	들어가난
저승질이	왓닥갓닥
이여싸나	이여싸나

너른 바다 앞을 재어/ 한길 두길 들
어가니/ 저승길이 오락가락



잠수대회에 참가한 해녀퍼레이드 모습

탕대기는	칠성판아
잉영사는	맹정포야
못홀일이	요일이여
모진광풍	불질말라
이여싸나	이여싸나

타고 다니는 칠성판아/ 이어 사는 맹정포야/ 못할 일이 요일이네/ 모진
광풍(狂風) 불지 마라

앞발로는	허우치명
뒷발로랑	거두치명
물아래랑	요왕님아
물우에랑	서낭님아
지어라지어	흔목저라
섬의가게	

앞발로는 해치며/ 뒷발로랑 거두치며/ 물 아래의 용왕(龍王)님아/ 물

위에는 서낭님아/ 저어라 저어 한목 저어라/ 섬에 가자

이여싸나	이여싸나
우리부모	날날적의
무신날에	날나싱고
흔 착손에	테왁들고
흔 착손에	빗창들런
흔 치두치	느려가난
요왕초지	나초지여
느려갈땐	눈물이곡
올라올땐	한숨이여

우리 부모 날 낳을 적에/ 무슨 날에 날 낳았는고/ 한 손에는 테왁 들고/
한 손에는 빗창 들어/ 한치 두치 내려가니/ 용왕(龍王) 차지 내 차지네/ 내
려갈 땐 눈물ियो/ 올라올 땐 한숨이네

이여싸나	이여싸나
너른바당	앞을재연
흔 질두질	들어가난
홍합대합	비쭈비쭈
미역귀가	너홀너홀
미역에만	정신들연
미역만	ㅎ단보난
숨막히는중	몰람고나

너른 바다 앞을 재어/ 한길 두길 들어가니/ 홍합 대합 비
 쪽비쪽/ 미역귀가 너울너울/ 미역에만 정신 들어/ 미역만
 하다 보니/ 숨 막히는 줄 모르는구나

이여싸나	이여싸나
어느제민	열다솜나건
비양도섬의	깃넙은메역
가시테로나	웬기레가코

언제면 열다섯 나거든/ 비양도(飛揚島)섬의 깃 넙은 미
 역/ 가시나무 떼로나 옴기러 갈꼬

이여싸나	이여싸나
산뛰는건	웅매로다
여뛰는건	배로구나
요바다에	은광금이
번질번질	끌려서도
노끈낭긋	열매로다

산 뛰는 건 웅마(雄馬)로다/ 여 뛰는 건 배로구나/ 이 바다에 은과 금이/
 번질번질 깔렸어도/ 높은 나무의 열매로다

차귀섬도	멀긴하 다
차귀섬도	들어간다
한강보단	더멀구나



작업 중인 아리따운 해녀



작업 나가는법환리의 해녀들

서울보단	더멀구나
아니지영	못가더라
흔저지영	갈딴가곡
우는아기	젓을준덜
나까머리	신랑눔은
저녁밥을	하고준덜
아니지영	못가더라

차귀도도 멀기는 하다/ 차귀도로 들어
간다/ 한강보다 더 멀구나/ 서울보다 더 멀
구나/ 아니 지영 못 가더라/ 흔저 지영 갈
데 가곡/ 우는 아기 젓을 준들/ 나까머리
신랑눔은/ 저녁밥을 하고 준들/ 아니 젓고
못 가더라

우리배는	잘도간다
참매새끼 ⁶⁸	늑는듯이
잘도간다	이여싸나
쳐라쳐라	요물아래
은과금은	쥘렸건만(갈렸건만)
노푼낭의 ⁶⁹	열매더라
열매더라	이여싸나히

68 참매 새끼

69 높은 나무의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참매 새끼 나는 듯이/ 잘도 간다 이어싸나/ 처라
 처라 이 물 아래/ 은과 금이 깔렸건만/ 높은 나무의 열매더라/ 이어싸나 히

흔백상지	등에다지곡
가슴아피	두렁박차곡
흔손에	비창을쥐곡
흔손에	호미를쥐곡
흔길두길	수지폰물에
허위적허위적	들어나간다

흔백상자 등에다 지고/ 가슴 앞에 테왁을 짚고/ 한 손에 빗창을 쥐고/
 한 손에 호미를 쥐어/ 한길 두길 깊은 물로/ 허우적허우적 들어간다

흔착손에	테왁을 심고
흔착손에	빗창을 심엿
흔길두길	들어간 보난
저승도가	분명하다

한쪽 손에 테왁을 심고/ 한쪽 손에 빗창을 심고/ 한길 두길 들어가 보니
 / 저승도가 분명하다

탕맹기는	칠성판아
잉영사는	명정포야
못할일이	요일이야
모진광풍	불지말라

유리잔 ⁷⁰ 을	눈에끼꼭
꼭태왁을	가슴에안고
무쇠빗창	손에차꼭
지폰물속 ⁷¹	들어보난
수심전복	하서라마는
내숨쥔 란	못하여라

타고 다니는 칠성판아/ 이고 사는 명정포야/ 못할 일이 이 일이어/ 모
진 광풍 불지 말고/ 유리잔을 눈에 끼고/ 태왁을 가슴에 안고/ 무쇠 빗창
손에 잡고/ 깊은 물속 들어가 보니/ 수심 전복 많더라마는/ 내 숨이 짧아
못 하더라



해녀와바다가 하나가된모습

어기여차라	차라차라
이여싸나	우리배는
물아래	허웅ㄱ 찌
가는구나	어저사고라
쳐라쳐라	이여싸나

이여싸나/ 우리 배는/ 물 아래 허웅
아기처럼/ 가는구나

70 물안경을
71 깊은 물속

쳐라배겨	물알로간다
놀단배가	아니로구나
이여싸	이여싸나
자단배가	아니로구나
헛이여	실금실짝
실금실짝	올라간다

물 아래로 간다/ 놀던 배가 아니로구나/ 자던 배가 아니로구나/ 슬금슬
쩍 올라간다

앞바람은	ㄱ작ㄱ치
불어나온다	뒷발로랑
어기여라	뒷바람은
거두잡앙	어화녕창
가고나보자	부모돌랑
돛들어라	물질허라
물질허라	어기여쳐라

앞바람은 ㄱ작 같이 불어나온다/ 뒷발로는 뒷바람은 거두잡아/ 가고나
보자 부모 따라돛달아라/ 물질하라

3. 출가

출가(出稼)물질은 해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제주가 아닌 한반도나 일본 등의 어장에 가서 작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주해녀들의 출가는 1900년대 초부터 이루어졌는데 직접적인 동기는 일본 잠수기업자들이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전복 등 많은 해산물을 잡아 물건이 줄어들고 채취한 해산물 판매로 자신들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물질에 대한 노동 경제적 가치인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한반도나 일본 등과의 외부 세계망 형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제주해녀의 출가는 1895년 경상남도로 첫 출가가 이루어진 후 강원도, 전라도, 경상북도, 함경도 등에 지속적으로 나갔다. 일본의 경우는 1903년 미야케지마(三宅島)를 시작으로 대마도, 고치, 가고시마, 동경, 나가사키, 시즈오카, 지바, 에히메 등지로 나가서 돈벌이를 했다. 1930년경에는 4000여 명의 해녀들이 3월경에 집을 떠나 추석이 가까와 오면 돈을 벌고 제주로 들어온다. 출가물질에서 번 돈은 가정경제의 버팀목이었을 뿐 아니라 제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여씨나	이여씨나
요벗덜아	훈디가게
저곳되랑	내몬저강
메역이랑	내몬저호저
울산강	돈벌어당
가지늬인	큰집사곡
멍에느린	큰밧사곡
재미나게	살아보게

요 벗들아 함께 가자/ 저 가에는 나 먼저 가서/ 미역일랑 나 먼저 하려
네/ 울산(蔚山) 가서 돈 벌어다가/ 처마 늘인 큰 집 사고/ 발머리가 길어 면
적이 넓은 밭 사고/ 재미나게 살아 보자

이여씨나	이여씨나
한로산을	등에지곡
대천바당을	집을삼앙
부모동성	이벨흔적원
손수건인털	아니젓이라

한라산을 등에 지고/ 대천바다를 집을 삼아/ 부모 동생 이별할 적엔/ 손
수건인들 아니 젓으랴

이여씨	이여씨나
우리나	고향은
제주야	성산폰데
잠깐	몸지체
오사까	동성국
십이번지에	사는구나
이여씨	이여씨나

우리나 고향은/ 제주야 성산포(城山浦)인데/ 잠깐 몸 두는 곳은/ 오사
까 동성구(東成區)/ 십이번지에 사는구나

설룬어멍	저얼쿨은
------	------

눈에송송	베이어라
설룬애기	우는소리
귀에쟁쟁	들렘서라
이여싸나	이여싸나

설운 어머니 저 얼굴은/ 눈에 생생히 보이더라/ 설운 아기 우는 소리/
귀에 쟁쟁 들리더라

이여싸나	이여싸나
성산포야	잘이시라
맹년이철	춘삼월나민
살아시민	상봉이여
죽어지민	영이뻘이여

성산포야 잘 있어라/ 맹년 이철 춘삼월 나민/ 살았으면 상봉이네/ 죽어
지면 영 이별이네

이여싸나	이여싸나
돈아돈아	말모른돈아
돈의전체곳	아니면
노곡두만강	어디라니
부랑청진	어디라니
부랑청진	오란보난
이나그네	놀래들어옵지기
제주인간	놀래들어옵지기

돈아 돈아 말 모른 돈아/ 돈의 까닭 아니면/ 노국 두만강(露國 豆滿江)
어디더냐/ 부령 청진(富寧 淸津) 어디더냐/부령 청진 와서 보니/ 이 나그
네 어서 들어오시죠/ 제주 인간 어서 들어오시지요

4. 인간사

해녀노래는 인간 상호 간의 미묘한 심정을 심리적으로 묘사하면서 노래의 주된 내용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람살이와도 관련된다. 사실에서는 인생의 허무가 자연의 섭리에 비유하여 표현되곤 했는데, ‘명사십리 해당화’ 라든가, ‘저 산과들의 나무 잎은 새로 피어나지만 우리 인생은 다시 올 수 없다’ 는 공식적인 어구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돌명청은	답이나답나
췌명청은	잡아나먹나
낭명청은	불이나습나
블락명청은	구워나먹나
사름명청은	무싱것에쓰코

돌은 담장이나 쌓고/ 소는 잡아나 먹는다/ 나무는 불이나 땀다/ 블락물
고기는 구워서나 먹나/ 바보는 무엇에 쓸 것인가

저산천의	푸쑤새는
해년마다	오건마는
갓다왔다	헝건마는
우리인생	헌번가면
언제다시	돌아오나

저 산천의 푸른 잎은/ 해마다 새로 피어나고/ 가고 오고 하건마는/ 우리
인생 한번 가면/ 언제나 다시 돌아나 오리

멍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뤄마라
 멍년삼월 돌아오면
 너는다시 오련마는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지 못하리라

멍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서
 러워 마라/ 멍년 삼월 돌아오면/ 너는 다
 시 오건마는/ 우리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리라



갈옷을 만들기 위해 감을 다듬는 아낙들

날7든 저잡눔이
 요내속을 주라호면
 요내속을 속을주나
 왜좁쌀 송편에
 본속만 폭찌었네
 본송만송 이여싸나
 어기여쳐라 배올라간다
 배올라간다 이여싸나

나에게 저 사람이/ 이내 속을 주려고 하면/ 이내 속을 어이 주나/ 작은
 좁쌀 송편에/ 본데 속만 폭 찼었네

자구내 갈매봉

임이든송	만송
어린가장	품속에
잠이든송	만송
이어쳐라	쳐라베겨
정든가장	물을주나
개도야지	채를주나
어린아기	젓을주나
어서잠깐	가고보자

자구내 갈미봉에/ 임이 든송 만송/ 어린 가장 품속에/ 잠이 든송 만송/
이어쳐라 쳐라 베겨/ 정든 가장 물을 주나/ 개 돼지에게 먹이를 주나/ 어린
아기 젓을 주나/ 어서 잠깐 가고 보자

눔의첩광	솔나무벗름
소린나도	사를매웃다
지세어멍광	오름에돌은
둥글당도	사를매난다
유향좌수	첩으로마랑
산마목자	가실로가라

눔의 첩과 솔나무에 이는 바람은/ 소리는 나도 살을 바가 없다/ 조강지
처(糟糠之妻)와 오름 위의 돌은/ 둥글어 다니다가도 살 바가 난다/ 유향좌
수(儒鄉座首) 첩으로 말랑/ 산마목자(山馬牧者)의 정실(正室)로 가라

5. 시집살이

시집살이요는 여자가 시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며 겪는 온갖 정서를 표현한 노래들을 말한다. 시집 식구들과의 갈등과 시집살이의 어려움, 친정에 대한 그리움, 남편에 대한 미움과 사랑, 증오가 주를 이룬다. 시집간 여자들의 시집관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이다.

때로는 시집식구에 대한 인물들의 성격을 해산물에 비유하기도 한다. 시집간 여성들이 삶을 의지하고 지탱하는 데 일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자는 물론 남편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민요에 나타난 남편에 대한 내용은 희망적이거나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남편’이라는 화제는 이별하거나 사별한 관계로 종종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첩, 혹은 다른 여성과 빚어지는 부적절한 관계가 노래 속에서 표출되기도 한다.

실푼 씨집	삼년을사난
다운머리	고비로민다
고비고비	어느말곡지
간장아니	석은말시랴

싫증난 시집 삼 년을 사니/ 따운 머리가 덩어리로 빠진다/ 고비고비 어느 말파디/ 간장 아니 썩은 말이 있으랴

석달만에	시냇에가서
찾방문을	열어다보니
시아방은	구쟁기덕시여
나를보난	새들깅한다



나이 든해녀의여가

시아명은	암뿔의 녀시여
나를보난	으지직 혼다
시누이는	콩상의 녀시여
나를보난	호르륵 혼다
남편내는	문계의 녀시여
나를보난	영구여든다

석 달 만에 시집에 가서/ 뿔마루의 문을 열어
서 보니/ 시아버지는 소라의 녀이여/ 나를 보니
홀짝 움츠려든다/ 시어머니는 암전복의 녀이여/
나를 보고 깜짝 놀란다/ 시누이는 작은 새의 녀
이여/ 나를 보난 호르륵 한다/ 남편은 문어의 녀
이여/ 나를 보니 영구어든다

시아바지	오시는길엔
황부석의	다리를놓고
시아머니	아프신눈엔
옛귀물이	단약일러라

시아바지 오시는 길에/ 황부석의 옥돌로 다리를 놓아 드리고/ 시어머니
아프신 눈에/ 옛귀물이 단 하나의 약일러라

얼굴곱고	속구진각시
너른들에	반잘귀러라
반작반작	좋아라마는

속도구진

각시일러라

얼굴이 아름답고 마음씨가 나쁜 각시/ 넓은 들에 반잘귀러라/ 반짝반짝
좋아라마는/ 마음씨 나쁜 각시일러라

가자호난	가기는싫어도
아니가진	못할일러라
대추남에	연결린듯이
어린아기	사정일러라

가자 하니가기는 싫어도/ 아니 가지는
못할 일일러라/ 대추나무에 연 걸린
듯이/ 어린 아기 때문일러라



물통을 등에지고

민첩하고	연첩호눔
대천바당	가운디들엉
맹진돌밤	날새영가라
요물속은	지품여품 알건마는
흔집살이	임의속몰라
절색간장	다씩인다

민첩하게 첩을 한 사람아/ 대천바다의 가운데 들어서/ 밝은 달밤 날 새
고 가라/ 이 물 속은 깊음 알음 알건마는/ 한집살이 임의 속몰라/ 절색간장
을 다 태운다

이여싸나	이여싸나
썰물은나민	동의와당
들물은나민	서의와당
놀기좋은	목포유달산
보기좋은	강원도금강산
살기좋은	공부자넌넨네
몸튼튼한	밧가는넌넨네

썰물은 나면 동해바다/ 밀물은 나면 서해바다/ 놀기 좋은 목포 유달산
/보기 좋은 강원도 금강산/ 살기 좋은 공부자 남편/ 몸 튼튼하긴 밧 가는
남편



물 길는 여성의등짐 밑에반친
'고애기'

씨집이엔	오라랜 혼난
씨누이야	씨가령말라
나도가민	어명이라라
잔에비운	참지름이라라

씨집이라고 오니/ 씨누이야 거드름 말라/ 나
도 가면 어머니더라/ 잔에 부은 참기름 갈더라

이여도하라	이여도하라
말물랑삼년	귀막양삼년
눈어두왕삼년	연삼년사난
가랜오랜	말이웃어라

말 몰라서 삼 년 귀먹어서 삼 년/ 눈 어두워 삼 년 이어 삼 년 사니/ 가라
오라는 말도 없구나

훈모실에	세첩훈놈아
세솔밑에	불습아보라
내만나멍	불아니난다

한 마을에 세 첩 한 사람아/ 세 솔 밑에 불때어보라/ 연기만 나면서 불
은 아니 탄다

6. 신세 한탄

죽자하니	청춘일러라
살자하니	고생일러라
님가실제	흐터진머리
누굴보양	분성적허리
미녕사라	베사라흔들
이몸사랭	어디가허리

죽으려고 하니 청춘일러라/ 살려고 하니 고생일러라/ 님이 떠날 제 흐
트러진 머리/ 누구를 보아서 분(粉)칠을 하리/ 무명사라 베를 사라고 한들/
이 몸 사라고 어디가 하리



중산간마을에서 자리 팔기

마기나해	홀과소들영
기둥안안	감장을돈다
설완죽은	무덤이시면
돌은무사	돌아나오리

장마가 긴 해에 생과부가 되어/ 기둥을 안고
서 돌고 있구나/ 서러워서 죽은 무덤이 있다면/
돌은 왜 다시 돌아나 올까

시앗이렌	튼으레가난
가른밭해	메마꽃이
허원듯이	나안자서라

내눈에도	저만흔것이
님의눈에는	더할말시랴

시앗이라고 혼쫓을 내려고 가보니/ 기름진 밭에 메꽃처럼/ 흰하게 나왔
아 있다/ 내 눈에도 저만한 것이/ 님의 눈에는 더할 말이 있으랴

간간놀제	놈의첩드난
어디간간	내놀아서니
쫓른적삼	진치매입언
한질구름	썰린배웃네

간간이 놀려고 남의 첩 드니/ 어디 간간이 내 놀았더냐/ 짧은 적삼 긴
치마 입어서/ 한길 먼지 닦은 바 없네

이여씨나	이여씨나
우리부모	날날적의
해도돌도	엇일적의
나를낳아	농아싱가
어떤사름	팔제중앙
고대광실	노픈집의
진담뻬대	물고앗앙
스랑방에	좁을자리
해너팔젠	무신팔제라
흔백상지	등에지곡
푸린물속을	왓닥갓닥



물 길는 아낙들의 모습

우리 부모 날 낳을 적에/ 해도 달도 없을 적에/ 나를 낳아 놓았는가/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긴 담뱃대 물고 앉아/ 사랑방에 잠을 자리/ 해녀 팔자는 무슨 팔자라/ 혼백상자(魂帛箱子) 등에 지고/ 푸른 물속을 오락가락

짐녕뒷개	나가온섬이여
잠자당도	세한숨난다
이여싸나	이여도싸나

김녕 북촌(金寧 北村) 내 갔다 온 섬이네/ 잠자다가도 한숨이 난다

우리어멍	날날적의
혜천영업	태움서로 날낳던가
가시나무	몽고지에
손에꿇이	배졌는가

우리 어머니 날 낳을 적에/ 하루종일 영업 타고나서 날 낳았던가/ 가시나무 공이에/ 손에 공이 배졌는가

물도싸민	여을이나곡
낭도싸민	ㄱ를이난다
에구에구	나가는섬은
물도낭도	웃어라혼다

물도 썰면 여가 나고/ 나무도 켜면 가루가 난다/ 에구에구 내 가는 섬은

/ 물도 나무도 없어라 한다

어떤놈의	낳은아긴
팔자전성	요리좋아
고대광실	노픈집이
부귀영화	누리고야 살건마는
우리부모	나신아긴
두령박이	종사가 웬일이냐
불쌍하고	가련혼
요예즈덜	시간ㄱ린
요영업이여	아이고도
생각하민	설우러라 불쌍하다

어떤 사람이 낳은 아기는/ 팔자가 이
리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부귀영
화 누리고서 살건마는/ 우리부모 낳은
아기는/ 두령박(테왁) 종사가 웬일이냐/
불쌍하고 가련한/ 이 여자들 시간 가린/
이 영업이여 아이고도/ 생각하면 서럽고
불쌍하다



아기를 등에 업은 채로 소를 치는 목동

이여씨나	이여씨나
새끼섬	우의는
올랭이가	노는디
시퍼렁혼	바당우원

요내몸이	뗫고나
이여싸	이여도사나
흔손에다	빋창쥬꼭
흔손에다	호미쥬영
메역생복	따다근
어린자식	공부후영
제주판스	시길라고
바당우의	시달리는
불쌍흔	이내몸아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어느제믄	이내몸도
존식상	만나근에
눔광ㄱ찌	산단말고
이여싸나	이여싸나

새끼섬 위에는/ 오리가 노는데/ 시퍼런 바다 위엔/ 이내 몸이 뗫구나/
 이여싸 이여도사나/ 한 손에다 '빋창' 쥐고/ 한 손에다 호미 쥐어/ 미역 생
 복 따다가/ 어린 자식 공부하여/ 제주판사 시키려고/ 바다 위에 시달리는 /
 불쌍한 이내 몸아/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언제면 이내 몸도/ 좋은 세상 만
 나서는/ 남과 같이 산단 말이고

이여싸나	이여싸나
저바당의	무우낭에
빛이난덜	이실이개랴
원진돌밤	몹은날시멍

요내무심

풀릴날시라

저 바다의 흑산호(黑珊瑚)에/ 빛이 난들 이슬이 개랴/ 소원(所願)된 달
밤 맑은 날 있으며/ 이내 마음 풀릴 날 있으랴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설룬어멍 날설아올적
어느바당 메역국먹국
보름불적 절일적마다
궁글리멍 못사는구나

설운 어머니 날 생겨 올 적/ 어느 바다
미역국 먹고/ 바람 불 적 물결 일 적마다/
흔들리며 못 사는구나



산지천빨래터의 하루

이여사나	이여사나
어떤사름	팔제좋아
고대광실	노픈집의
부귀영화	누리건만
우리ㄱ튼	무삼자는
무신날에	태어난에
춘하추동	스시절에
일기만	좋다하면
저바당에	둥둥땡
흔질두질	지픈물에

내집 ㄱ찌	출입헝멍
고동생복	따다근에
어린자식	달래멍
모든고생	다하는구나
이여사나	이여사나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 누리건만/ 우리 같은 무산자는/ 무슨 날에 태어나선/ 춘하추동 사시절에/ 일기만 좋다 하면/ 저 바다에 둥둥 떠서/ 한길 두길 깊은 물에/ 내 집같이 출입하며/ 고동 생복 따다가는/ 어린 자식 달래면서/ 모든 고생 다하는구나

이여싸나	이여싸나
우리팔제	헝헝고나
죽은낭을	집을삼곡
허제비 ㄱ찌	실린네에
바당을	집을삼곡
우리팔제	헝헝고나
이여싸나	이여싸나

우리 팔자 헝하구나/ 마른 나무를 집을 삼고/ 허수아비같이 실린 노에/ 바다를 집을 삼고/ 우리 팔자 헝하구나

저산천에	불난것은
비나오민	꺼지건만
청청과수	속타는건

물을준덜 끌수가시나
이여싸나 이여싸나

저 산천에 불난 것은/ 비나 오면 꺼지
건만/ 청청과수 속타는 건/ 물을 준들 끌
수가 있느냐



소달구지를 끌고가는 여성

7. 자강과 근면

노동의 비장함은 바로 노동 작업의 고통에서 오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을 근면함으로 극복하려 하고 스스로 ‘자강(自彊)’의 의지가 담긴 인생관을 가지게 한다. 모든 삶에는 마루와 고비가 있는데 이는 마치 바다의 ‘물마루’에 비유되며, 인생에서 넘어서야 할 고비는 과도성이인 ‘눌’이 밀려오는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여겼다.

또 노동을 하다가 ‘노의 끈이 끊어지면 로프줄이 있고, 노착이 끊어지면 끈은 나무가 있다’고 자위하면서 인생의 마루와 고비는 늘 사람살이에 따라다니므로 당연히 맞서서 넘겨야 될 고개라고 인정한다. 해녀들은 고통스런 노동에 대해 이처럼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자위하면서 더욱더 강해지려고 노력한다.

요벤드레	끊어나지민
인천항구	녹보줄이 없을소냐
요네상착	부러지건
부산항구	끈은남이 없을소냐
ㄱ라ㄱ라	이여도싸나
잘넘어간다	잘넘어간다
요동무털	그만흥민
홀만흥다	이여싸나

이 벤드레 끊어나지면/ 인천(仁川)항구 로프줄이 없을소냐/ 이 노(櫓)의 상책 부러지거든/ 부산(釜山)항구 끈은 나무가 없을소냐/ ㄱ라ㄱ라 이여도싸나/ 잘 넘어간다/ 이 동무들 그만하면/ 할 만하다 이여싸나

불칸밧디	쉐닭은넌아
무신벌이로	역꾸여먹으리
모진벌이로	역꾸여먹나

불 지른 밧에 소 닭은 넌아/ 무슨 벌이로 품팔아 먹으리/ 모진 벌이로
품팔아 먹는다

큰부젠	하늘엿부제
작은부젠	오곰엿부제
오곰엿툑	오곰엿툑

큰 부자는 하늘엿 부자/ 작은 부자는 오곰엿 부자/ 오곰엿 톱 오곰엿 톱

이여싸나	이여싸나
요벤드레	떨어진덜
전깃줄이	엇일말가
요네상착	떨어진덜
가시낭이	엇일말가

이 벤드레줄이 떨어진들/ 전깃줄이 없을 말인가/ 이 노(櫓) 상책 떨어진
들/ 가시나무가 없을 말인가

이여싸나	이여싸나
쭈무나문	설나문엔
요네상착	놈줄소냐

지픈바당

물질이사

눔을준덜

상착이사

눔줄내가

아니로다

스무 남은 서른 남은엔/ 이 노의 상책 남 줄쏘냐/ 깊은 바다 물질이야/
 남을 준들 상책이야/ 남 줄 내가 아니로다



집신년아

집자랑말라

데춧낭을

지등을삼안

굴묵낭끼

동서리결언

깃언보난

집이로고나

집 있는 년아 집 자랑 말라/ 대추나
 무로 기등을 삼아/ 느티나무의 서까래
 걸어/ 지어 보니 집이로구나



말방아에서 곡식알을 으깨는 장면(위)과
 지미봉 앞에서 김매는 여성(아래)

이여사나

이여사나

일성으로

못하나망정

소리로나

권력이다

먼디사름

듣지 좋게

긏디사름

보기 좋게

내가 못홀

일이시라

천추도박

눔을준덜

고동생복

눔을주라

요만일사

버칠말가

일손으로 못할망정/ 소리로나 권력이다/ 먼 데 사람 듣기 좋게/ 가까운
데 사람 보기 좋게/ 내가 못할 일이 있으랴/ 우뭇가사리 도박 남을 준들/ 고
동 생복 남을 주랴/ 이만한 일이야 부칠 말인가

이여싸나	이여싸나
열두빼를	놀려근에
요네착을	젓어보게
요벤드레	근차진덜
신사라가	씨져서나
요내홀목	부러진덜
부산병원장	씨져서나

열두 빼를 놀려서는/ 이 노를 저어 보자/ 이 벤드레 줄이 끊어진들/ 신
설란이 씨 말랴나/ 이내 손목 부러진들/ 부산 병원장 씨 말랴나

요네상착	끊어진덜
가시낭이	엇일소나
요벤드레	끊어진덜
부산항구	아사노가 엇일손가
요네굿대	타령맙서
천추도박	눔을준덜
고동생복	눔을주랴

이 노 상책 끊어진들/ 가시나무가 없을쏘냐/ 이 벤드레줄 끊어진들/ 부
산항구 하사노가 없을 말인가 /이 노가 좋지 않다고 타령 마세요/ 천초(우

못가사리)도박 남을 준들/ 고동(소라) 생복(전복) 남을 주라

요목조목	울단목이
넘어든다	이여사나
요네상책	부러나진덜
선흘고지	남괴엇일말가
요벤드레가	떨어나진덜
부산항구	녹보줄이 엇일말가

이 목 저 목 울돌목이/ 넘어든다 이어사나/ 이 노의 상책 부러나진들/
선흘곳 나무가 없을 말인가/ 이 벤드레 줄 끊어나진들/ 부산항구 로프줄이
없을 말인가

한질두질	깊은물속
허위적허위적	들어간다
요어깨	노았다가
논을살까	밭을살까
놀릴대로	놀려보자

한길 두길 깊은 물속/ 허우적 허우적 들어간다/ 이 어깨 놓았다가/ 논을
살까 밭을 살까/ 놀릴 대로 놀려보자

8. 자연에 합일 · 동화

노래 속에서는 자연적인 소재를 끌어와 차용하기도 하고 자신도 자연물의 일부나 다름없다고 여겨서 자연의 한 존재로 화하게 된다. 이는 곧 자연에의 합일이고 자연과의 조화이다.

자연에 합일한다는 것은 곧 자아를 망각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곧, 대상과 자아는 현상을 초월하여 원초적인 본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자연과의 조화는, 자연과 자아는 분명히 구분되지만 자연이라는 장소에서 자연을 매개로 하여 하나로 합하게 되는 정신적인 경지이며 자연현상과 자아를 각각 독립된 존재로서 인식하게 된다. 자아가 주체가 되며 고유한 존재형태를 유지한 객체인 자연을 받아들이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여씨나	이여씨나
한강바당	네를젓엉
이섬윳가민	점복이시카
저섬윳가민	진주가시카
풍덩빠전	들어간보난
웨기덜은	모다나들엉
벗을삼앙	놀젠헤라

한강(漢江)바다 노(櫓)를 저어/ 이 섬윳 가면 전
복이 있을까/ 저 섬윳 가면 진주(眞珠)가 있을까/
풍덩 빠져서 들어가 보니/ 고기들은 모여 들어/ 벗



여름날 콩밭의 아기사슴

을 삼아서 놀려 하더라

복름이랑	밥으로먹곡
구름으로	똥을싸곡
물절이랑	집안을삼앙
설룬어멍	떼어두곡
설룬아팡	떼어두곡
부모동성	이별ㅎ곡
한강바당	집을삼앙
이업을	하라ㅎ곡
이내몸이	탄생했든가

바람일랑 밥으로 먹고/ 구름으로 똥을 싸고 /물절일랑 집안을 삼아/ 설
운 어머니 떼어두고/ 설운 아버지 떼어두고/ 부모동생 이별하고/ 한강바다
집을 삼아 /이 업을 하라 하고/ 이내 몸이 탄생했던가

이여짜나	이여짜나
몸짱으로	집을삼앙
눅고개랑	어멍을삼앙
요바당에	날살아시민
어느바당	걸릴웨시라

모자반덩일랑 집을 삼아/ 파도 고꺾랑 어머니를 삼아/ 이 바다에 내 살
았으면/ 어느바다 걸릴 리 있으랴

9.기원

해녀들의 신앙 속에서 볼 수 있는 신에 대한 인식은 두 개의 무속의례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어부와 해녀들에 의해 영등 2월에 치러지는 영등굿의 영등신이고, 다른 하나는 잠수회 중심으로 치러지는 잠수굿의 요왕신이다. 영등신은 ‘강남천자국’과 ‘왜눈배기섬’에서 오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 가운데의 섬은 섬사람들의 세계인식적인 사고를 반영한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이승과 저승의 관념이 하늘과 땅의 수직적인 사고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용궁이 대체적으로 해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궁사상의 영향으로 보는 편이며, 용왕은 어민들의 모든 삶을 관장한다고 믿고 있다.



신화가 깃든 마라도의 아기압개당

어느제민	열다솜나건
비양도섬의	깃너븐메역
가시테로나	웬기레가코
이여싸나	이여도싸나

언제면 열다섯 나거든/ 비양도 섬의 깃 넓은 미역/ 가시나무뿔목으로나
웁기러 갈까

이여싸나	이여싸나
구쟁기랑	잡거들랑
닷섬만	잡게훅곡
전복이랑	잡거들랑
여든섬만	잡게흡서
못사는	우리팔조
흔번아주	ㄱ썸보게

소라는 잡거들랑/ 닷 섬만 잡게 하고/ 전복일랑 잡거들랑/ 여든 섬만 잡
게 하오/ 못사는 우리 팔자/ 이 기회에 고쳐보게

우리베에	서낭님아
앞발로랑	허위치명
뒷발로랑	오동치명
여긔들로	득달훅게 ㅎ여도줍서
고동생복	한딜로나 가게나흡서
이여차	이여라차

우리 배에 서낭님아/ 앞발로랑 헤치며/ 뒷발로랑 치올려 차며/ 여 끝으
로 득달(得達)하게 하여 주고/ 고동 생복(生腹) 많은 데로나 가게나 하오

이여싸나	이여싸나
총각차라	물에들게
양식싸라	섬에가게
우리선관	가는디랑
매역좋은	여끝으로
놈의선관	가는디랑
감태좋은	홍동개로
요벨테고	어딜가코
진도바당	골로간다.
이여싸나	이여싸나

총각 쪽저라 물에 들자/ 양식 싸라 섬에 가자/ 우리 선관 가는 델랑/ 미
역 좋은 여 끝으로/ 남의 선관 가는 델랑/ 감태 좋은 홍동개로/ 이 배를 타
고 어딜 갈꼬/ 진도(珍島)바다골로 간다

10. 님

님은 민요에서 자주 선호되는 제재인데 종종 부재한 님으로 나타나고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별로 인한 극한적인 정서와 함께 사별을 노래하기도 한다. 지극히 고독한 정서로 여성 화자가 종종 등장하며 다른 여성노동요 속에서도 불리곤 했다.

배앵배앵	돌아진섬에
삼시끓으멍	물질허영
훈푼두푼	모은금전
정든님술값에	다들어가네

배앵배앵 돌아진 섬에/ 삼시 끓으면서 물질하여/ 훈푼 두푼 모은 금전
(金錢)/ 정든 님 술값에 다 들어가네

산에오르난	살장귀소리
물에드난	숨비질소리
집의드난	정 7 레소리
임이오젠	설심이라냐
내가가젠	발심이라냐
멩지바지	설멩지소리
귀에쟁쟁	열리어온다

산에 오르니 살장구소리/ 물에 드니 숨비질소리/ 집에 드니 멩돌소리/
임이 오려 혈심(血心)이더냐/ 내가 가려 발심(發心)이더냐/ 멩주바지 설멩

주(雪綿子) 소리/ 귀에 쟁쟁 들려온다

부랑청진 가신님은
돈이나벌면 오건마는
공동산천 가신님은
적스때나 돌아오네

부령 청진(富寧 淸津) 가신 님은 / 돈
이나 벌면 오건마는/ 공동묘지 가신 님
은/ 제사 때나 돌아오네



전통 혼례식

이여싸나	이여싸나
산이노팡	못오켜경
막를투근	건너웁서
물이지평	문오켜경
배를투근	건너웁서

산이 높아 못 오겠거든/ 말을 타서 건너오고/ 물이 깊어 못 오겠거든/
배를 타서 건너와요

이여싸나	이여싸나
대천바당	눅소리는
산지축항만	울리는디
공동묘지가신	부모말소린
산에산천만	울렷구나



상투를 자른 제주의 남성들

일본동경	가신님은
돈만벌레	갓건마는
공동묘지	가신님은
죄스때만	돌아온다
이여씨나	여씨나

대천바다 놀소리는/ 산지향(山地港)
만 울리는데/ 공동묘지 가신 부모 말소
린/ 산(山)에 산천(山川)만 울리는구나/
일본 동경(日本 東京) 가신 님은/ 돈 벌

러 갓건마는/ 공동묘지 가신 님은/ 제사 때만 돌아온다

이여씨	해다지고
저문날에	골목골목
연기만	나건마는
우리님은	어딜가고
아니오는고	이여씨히
이여쳐라	쳐라쳐라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골목골목 연기만 나건마는/ 우리 님은 어디를 가
고 아니오는가

초롱초롱	양사초롱
불밝힐줄	모르더라
앗아시민	임이나올카

누워시민	좁이나올까
임도좁도	아니오네
이기여차	쳐라쳐라

초롱초롱 양사초롱/ 불 밝힐 줄 모르더라/ 앉아있으면 임이나 올까/ 누
 위있으면 잠이나 올까/ 임도 잠도 아니오네

임아싫건	날버려라
꽃신적의	날버리소
앞신적의	날버리소
어느제민	저곳갈꼬
실금실짝	올라간다

님아 싫어하건 날 버려라/ 꽃처럼 젊고 예쁠 때 날 버리소/ 앞이 있을
 적에 날 버리소/ 어느 때면 저곳을 갈까/ 슬금슬쩍 올라간다

11. 금전



머리수건을 맨 제주해녀들

해녀들의 노동의 목적은 돈을 번다는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가치에 있다. 역사 기사와 신화 속에는 진주를 캐는 일에 관해 실려 있으며 경제적인 가치 인식은 해산물이 돈이 되기 시작한 근대기 이후의 일로 볼 수 있다. 노동 역시 경제적 효용가치 추구로 인식하고 있다.

이내몸	이몸을아정
한강바다	띠와농곡
쌀물들물에	띠와농곡
흔질두질	수지픈물에
반송반질	출입이라라
요금전아	돈아흔건
돌아나오라	돈의전체아니몬사
요런고생	무사하리

이내 몸을 가져 한강바다/ 쌀물 밑물에 띄워 놓고/ 한길 두길 깊은 물에
/ 절반만큼 출입이더라/ 이 금전아 하거든 돌아오라/ 돈의 까닭 아니면 이
고생을 어이하리

눈이엿인	요금전아
어딜가고	이여싸나
찾아올줄	모르더냐
부르거든	돌아나오라

눈이 없는 이 금전아/ 어딜 가고 이여싸나/ 찾아올 줄 모르더냐/ 부르거든 돌아나오라

이여싸나	이여싸나
요벗들아	훈디가게
저곳디랑	내몬저강
매역이랑	내몬저흐저
울산강	돈벌어당
가지늦인	큰집사곡
멍에느진	큰밭사곡
재미나게	살아보게
이여싸나	이여싸나

이 벗들아 함께 가자/ 저 가에는 내 먼저 가서/ 미역일랑 내 먼저 하네/
울산(蔚山) 가서 돈 벌어다가/ 처마 늘린 큰 집 사고/ 밭머리 늘어진 큰 밭
사고/ 재미나게 살아보자

이여싸나	이여싸나
이내몸을	이몸을아정
한강바다	떡와놓곡

썰물들물에	띄와놓곡
흔질두질	수지픈물에
반송반절	출입이라라
요금전아	돈아흔건
돈의전체	아니문사
요런고생	무사히리

이내 몸을 가져/ 한강바다 띄워 놓고/ 썰물 밀물에 띄워 놓고/ 한길 두
길 깊은 물에/ 절반만큼 출입이더라/ 이 금전아 하거든/ 돈의 까닭 아니면
야/ 요런 고생 어어하리

이여싸나	이여싸나
돈아돈아	말몰른돈아
돈의전체곳	아니민
육로천리	수로천리
만리강산	어디엥오리
돈아돈아	말몰른돈아
귀먹은돈아	눈어둔돈아
부르건에	돌아오라

돈아 돈아 말 모른 돈아/ 돈의 까닭 아니면/ 육로천리(陸路千里) 수로천
리(水路千里)/ 만리강산(萬里江山) 어디라 오리/ 돈아 돈아 말 모른 돈아/
귀먹은 돈아 눈 어두운 돈아/ 부르거들랑 돌아오라

12. 부모와 어머니

해녀들은 가족 중에서 자신처럼 해녀가 될 딸의 소중함과 역할을 강조 하기도 했다. 또한 부모에게 기대거나 고통스러울 때 가장 친근한 대상인 어머니를 통해 극복하려고 했다. 곧, 어머니는 모성성과 비극적 운명의 원천임과 동시에 회복의 대상이었다.

이여이여	이여도 허라
저석궁의	어명을사젠
준지닷말	우전을걸언
저석궁으로	들어가보난
살사름은	하서라마는
어명닭은인	허나웃어라

제석궁(帝釋宮)에 어머니를 사려고/
진주(眞珠) 닷 말 웃돈을 걸어/ 제석궁
(帝釋宮)으로 들어가 보니/ 살 사람은 많
더라마는/ 어머니 닭은 인 하나 없더라

물에바놓	쭈쭈이쭈언
급사실로	주머니놓앙
부모사렝	서울을가난
부모그튼이	허나웃다

물에 있는 바늘을 한 줌 가득 주워/



허벅을 등에진소녀

금실로 주머니에 수를 놓아서/ 부모 사라고 서울을 가니/ 부모 같은 이는
한 이도 없다

이여씨나	이여씨나
몸짱으랑	집을 삼앙
늣고개랑	어멍을 삼앙
요바당에	날살아시민
어느바당	결릴웨시라

모자반덩일랑 집을 삼아/ 파도 고꺾랑 어머닐 삼아/ 이 바다에 내 살았
으면/ 어느바다 결릴 바있으라

자랑자랑	왕이자랑
우리애긴	잘도잔다
부모에도	소즈동아
일가에도	화목동아
동네어른	인심동아
나라에는	충성동아
비즈낭엔	비즈동아
옥즈낭엔	옥즈동아
천지건곤	일월동아
앞임댕이	헤그린دت
뒷임댕이	돌그린دت
물아래에	옥돌닦고
가마귀에	즌놀개여

제비생이	알라구리
넓은전답	물려주마
벨진밭도	너물리마
유기재물	너물리마
방앳귀도	너물리마
얏진솟도	너물리마
싱근살레	너물리마
싱근물황	너물리마

자랑자랑 왕이자랑/ 우리 아긴 잘도 잔다/ 부모에도 효자동아/ 일가에
 도 화목동아/ 동네 어른 인심동아/ 나라
 에는 충성동아/ 비자나무엔 비자동아/
 옥자나무엔 옥자동아/ 천지건곤 일월동
 아/ 앞 이마에 해 그린 듯/ 뒷 이마에 달
 그린 듯/ 물 아래에 옥돌 닳고/ 까마귀에
 잔 날개네/ 제비새 아가리/ 넓은 전답 물
 려주마/ ‘벨진밭’ 도 너 물리마/ 유기 재
 물 너 물리마/ 절굿공이도 너 물리마/ 얏
 힌 술도 너 물리마/ 얏힌 ‘살레’ 너 물리
 마/ 얏힌 물독 너 물리마



애기구덕에서 아기를 재우면서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어명죽언	하원통흐난
나머리랑	선대자여
머리라근	선대자머리

비여내연	감은배 혼난
감은배도	싣대자여
저석궁의	어떻을사젠
준지닷말	우전을걸언
저석궁으로	들어가보난
살사름은	하서라마는
어떻닢은인	흐나웃어라

어머니 죽어 너무 원통하니/ 내 머릴랑 싣 대자네/ 머릴랑은 싣 대자
머리/ 베어내어 검은 배 만드니/ 검은 배도 싣 대자네/ 제석궁에 어머니를 사
려/ 진주(眞珠) 닷 말 웃돈을 걸어/ 제석궁으로 들어가 보니/ 살 사람은 많
더라마는/ 어머니 닢은 인 하나 없더라

금즈동아	옥즈동아
천지건곤	일월동아
초록명지	비단동아
남전북답	장만흔덜
이보단	더지쁘명
산호준지	봉가싣덜
이보단	더홀소냐
자랑자랑	왕이자랑

금자동아 옥자동아/ 천지건곤 일월동(天地乾坤 日月童)아/ 초록명주
비단동아/ 남전북답(南田北畝) 장만한들/ 이보다 더 기쁘며/ 산호진주(珊
瑚眞珠)주웠든들/ 이보다 더할쏘냐/ 자랑자랑 왕이자랑

이여도후라	이여도후라
이성말곡	저성간어멍
진디브리곡	여홀로옵서

이승 아닌 저승에 간 어머니/ 진 데를 버리고 여로 오세요

이여싸나	이여싸나
설룬부모	날날적의
뫼에태완	날나선고
태완난건	안여밧여
숨은여로	정들라고
태완낫나	

서러운 부모 나를 낳을 적에/ 어떤 운명으로 나를 낳았나/ 운명으로 타고난 건/ 안여 밧여 숨은 여로/ 정들려고 타고 났나

가면어멍	보리연마는
아니가난	그리는구나
어멍한테	날가랭후면
안진숫혜	물피기전에
천기보멍	새놀듯후마
왕대족대	섯베인그루에
신을벗엉	돌으멍기마

가면은 어머니를 보겠지마는/ 아니 가서 그리워하는구나/ 어머니한테



기제사를 위한 제수준비를 하면서

나를 가라고 한다면/ 앓힌 술에 물 끓기
전에/ 천기(天氣) 보면서 새 날아가듯이
가마/ 왕대 족대 어슷이 벤 그루에/ 신을
벗어서도 달리면서 기어가마

저산이랑	난지젠 혼난
짐패쥬 란	못지더라
부모공은	가프젠 혼난
맹이쥬 란	못가프더라

저 산을 내가 등에 짊어지려 하니/ 짐배가 짧아서 못 짊어지더라/ 부모
공을 갇으려고 하니/ 수명이 짧아서 못 갇더라

유월더위	더위엥말라
정칠월이	한더월러라
설운부모	길행을가난
이내몸은	번구름돼여
간대마다	그늘이될걸

유월 더위를 더위라고 일컫지도 마라/ 정작 7월이 한 더월러라/ 설운 부
모 나그네 행을 가난/ 이내 몸이 비구름이 되어서/ 간 곳마다 그늘이 될걸

양친부모	신사름덜아
산때효심	흐소서한다
죽어근에	삼대상흐명

삼헌관에	양집사세왕
술삼잔에	침작을한들
어느잔이	끌라니한다

양친(兩親) 부모 계신 사람들아/ 산 때 효도하라고 한다/ 죽어서 삼대상
(三大喪)하며/ 삼헌관(三獻官)에 양집사(兩執事) 세워서/술 삼 잔을 침작
(添酌)을 한들/ 어느 잔이 비었는가 하더라

13. 자식

자식은 부모에게 상당히 기대거나 의타적이었다. 부모가 부르는 자식에 관한 노래들은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라는 속담을 방불케 한다. 자식의 무용(無用) 혹은 부모 공을 모르는 것에 대한 아쉬움 등을 표현하기도 했다.



상여 나가는길

아들잇젠	은곽에가멍
아들웃젠	늦곽에가라
아흠아기	열아기나온
문왕비도	소남곽이여

아들이 있다고 은곽(銀槨)에 담겨 묻히며/ 아들이 없다고 늦곽에 묻히겠는가
/ 아흠 아기 열 아기 낳은/ 문왕비도 소나무로 된 곽(槨)이여

세상본은	아기넷본이여
본이하면	서름이한다
아기웃댄	물그럼서나
본대아기	웃인간혼다

세상의 근본은 아기가 근본이여/ 근본이 많으면 슬픔이 많다/ 아기 없다고 물이 먹고 싶을까/ 본래부터 아기 없는가 한다

석상에	이서단낭글
일러단에	왕당에싱건
저의몸이	이성당흐니
싱근나를	몰나라혼다

돌 위에 난 나무를/ 일러다가 좋은 땅에 심어/ 저의 몸이 왕성하니/ 심
은 나를 몰라라 한다

14. 형제

형제들 간의 관계는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면서도 상보적이다. 형제애는 서로의 모아짐의 위세에서 더욱 강하게 생기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나가 남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상당히 애뜻하다. 또 형제가 없어 고독감을 느꼈던 자는 형제가 많은 집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남좋은댄	그들이좋나
동생한댄	위품이좋나
외낭게	외동박7치
외로난일	설와라혼다

나무가 무성한 곳은 그들이 좋다/ 동생이 많으면 위품이 좋다/ 나무 하나에 외로 난 동백처럼/ 홀로 난 것을 서러워한다

바당절이	울어도근심
굿디절이	울어도근심
하낫동싱	물위에노안
근심으로	날세염서라

바다의 파도가 소리쳐도 근심/ 해변의 파도가 울어도 근심/ 하나인 동생을 물 위에 놓아/ 근심으로서 날 새더라

머리삼갑	등에논적인
부모동싱도	있었건마는

삼갑머리를 육갑에 땀으난
부모동생도 허세일러라

삼갑으로 땀 머리를 등에 놓은 적엔/ 부모 동생도 있었건마는/ 삼갑머
리를 육갑으로 땀으니/ 부모 동생도 허세일러라

15. 이여도



인생의 회한을 뒤로 하고



한적한 제주 중산간 모습

이상향으로서의 이여도의 설정은 해녀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녀들은 이여도를 저승의 세계라고 여기고 있으면서도 죽어서 돌아가는 낙원과도 같은 이상향으로 인식된다. 주로 민요에서는 부재한 남편을 소재로 해서 기다림의 미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여도하라	이여도하라
이여도길은	저승길이여
신단보선에	불받아놓곡
입단옷에	풀혀여놓앙
애가카게	지들려도
다신올출	몰르더라

이여도하라 이여도하라/ 이여도 길
은 저승길이여/ 신던 보선을 불 받아 놓
고/ 입던 옷을 풀칠하여 다림질해 놓아/
애가 타도록 기다려도/ 다신 올 줄 모르
더라

이여도문은	대문이여
대문뒤엔	방축이여

방축뒤엔	연꽃이라라
연꽃귀경	좋아라마는
연꽃귀경	흐젠흐난
못돌아오더라	

이여도문은 대문이여/ 대문 뒤엔 방축이여/ 방축 뒤엔 연꽃이라/ 연꽃
구경 좋더라마는/ 연꽃 구경 하려 하니/ 못 돌아오더라

이여흐난	나눈물난다
이엿말랑	말아근가라
강남가건	해남을보라
이여도가	반이엿 혼다

이여라고 하니 내 눈물 난다/ 이여라
는 말이랑 말아서 가라/ 강남을 가거든
해남을 보고/ 이여도가 반이라고 한다

이여싸나	이여싸나
점복한	이여도
매역한	이여도
점복이영	매역이영
흐여당	우리아들
공부시키키여	이여싸나
이여도가자	이여도
이여싸나	이여싸나



유채밭을 뒤로 하고 물가로

전복이 많은 이여도/미역 많은 이여도/ 전복이랑 미역이랑 해다가/ 우리 아들 공부시키겠네/ 이여씨나/ 이여도 가자 이여도

3부

해녀노래, 누가 잘 불렀나

1. 고덕수 - 서귀포시 남원을 위미리 노 젓는 소리⁷²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잘잘가는 잣나무배나
술술가는 솔나무배나
참매새끼 노는듯이⁷³
잘도나간다 헛
쳐라쳐라 쳐라베껴라 헛
쳐라쳐라 이에도사나
산아산아 조선산아
사랑하는 우리산아
제주한로산 높다더냐
길한밤이 길다더냐
나주영산이 명산이라도
우리님종기는 영원히좋네
산아산아 이에도산아
간다더니 왜왔느냐



고덕수 해녀

72 A: 고덕수(78세), B: 김순생(82세), 자료조사: 2001년 9월 5일

73 나는 듯이

울고 갈길을 왜왔느냐
 물로 뱅뱅 돌아진 섬의⁷⁴
 일년열두달 물에질혀영⁷⁵
 혼푼두푼 모여논 금전
 서방님 술상에 다 들어간다 헛
 처라처라 헛 이어라 처라 헛
 삼돛돌양 배질혀기⁷⁶
 선주나사공 노님⁷⁷놀이
 이물에랑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허릿대밧디 화장아야
 물때나 점점 늦어나간다
 처라처라
 만리야 강산⁷⁸ 버든 닳을⁷⁹
 줌줍이 사려나 놓고⁸⁰
 어가차 소리에 배올라간다 헛
 만리야 강산 버든 닳을
 줌줍이 사려나 놓고
 어가차 소리에 배올라간다 헛

74 물로 사면이 돌아진 섬에

75 일 년 열두 달 물질하면서

76 삼 돛을 달고 배질하는 것을

77 노는

78 먼 곳으로

79 널리 흘러서 고정시킨 닳

80 가지런히 사려 놓고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뒷명에야 들어나오라
 가을해가 짝르다흐니⁸¹
 오늘은 품팔이흐니
 해도질고⁸² 시간도 간다 헛
 우리야 제주도에
 가이없는 해녀로구나
 두렁박⁸³을 가슴에 안고
 요리장을 눈에다 박고
 등도빋창 흘목⁸⁴에 걸어
 칠성판을 등에지고
 열길 스무길⁸⁵ 물속을 느려가니
 저승도⁸⁶가 분명하다⁸⁷
 임아임아 정든님아
 어딜가고 아니나오나
 밤은길고 낮은줄 라도⁸⁸
 누워기다려 앓아기다려
 임을지를 기다려도
 아니오는 우리님아

81 짧으니

82 해도 길고

83 테왁' 이라고 하며 박을 이용하여 물에 뜨도록 한 물질 기구

84 팔목

85 열길 스무길

86 저승문

87 분명하다

88 짧아도

어딜가고 아나오나
 땡사십리 해당화야⁸⁹
 꽃이나 핀다고 설워마라
 땡년⁹⁰이철 춘삼월이
 돌아나오나 꽃도피어
 만발인데 우리야 인생
 한번가면 돌아올 줄 모르는구나

고덕수는 태어날 때부터 ‘해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친정 할아버지의 고향이 소섬(우도)이어서 바다와는 인연이 깊었다. 아버지는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고 학문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바다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물질을 잘해서 ‘고래 상군’이라고 칭송받던 어머니의 7형제 중 외동딸로 태어났다. 열세 살(1936년)에 물질을 배워 테왁을 짚고 가까운 바다에서 물질하였으며 열여덟 살(1941년)에 초용으로 방어진에 출가물질을 갔다. 그 배에는 둘째 오빠가 사공으로 있었고 두 살 난 조카가 동행해서 출가를 떠났기 때문에 아기돌봄이 역할로 떠난 것이다.

3월 초순에 배임자의 인술 하에 스무 명이 한 배를 타고 떠났다. 제주바다를 건너고 사수바다를 건너 육지 가까이에 도달하면 강과 바다가 인접하여 배는 수월하게 잘 나간다. 배에 노를 저으면서 5일간의 항해 끝에 방어진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대정, 한림, 구좌의 해녀들을 태우고 온 제주 배 스무 척 정도가 와 있었다.

아침에 동이 트면 여덟시경에 바다로 나가 저녁까지 여남은 시간을 바

⁸⁹ 고운 모랫길 위의 해당화야
⁹⁰ 내년

다에 떠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한 시간 정도 물질을 한 후 몸이 추워지면 배로 올라와 화덕에 불을 피워 쪼곤 했다. 어느 정도 몸이 풀렸다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작업을 한다. 일에 지쳐서 배 위로 돌아와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선주가 물을 가져와 불을 끄려고 하면서 빨리 들어가 작업하라고 옥박지르기까지 했다. 주로 장작으로 불을 때지만 땀감이 없으면 제주에서 가지고 온 쇠똥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른 봄 3월의 날씨는 싸늘했다. 맨 몸에 속옷 하나만을 걸쳐서 물에 젖어 있어 봄바람에도 차갑기가 그지없다. 캐는 해산물도 천초(우미)와 홍합(합저), 성게, 미역이 주가 된다.

제주에서 가지고 온 좁쌀, 보리쌀, 고구마 가루로 밥과 범벅을 만들어 싸고 온 점심을 배 위에서 먹는데, 부식이라고는 주로 된장이 전부였다.

물때가 아니거나 날씨가 궂어서 일을 하지 못할 때에는 집에서 해너복이나 중이적삼, 도복 등 옷 만드는 일을 주로 했다. 덕수는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남들이 해너복에 무늬 장식을 종종 부탁해왔다. 때론 지방 해너들에게 이러한 일을 해주고서 간장이나 된장과 같은 부식을 얻어먹기도 했다.

그런데 출가 첫 해에 물질은 하지 않았지만 수입을 톡톡히 봤던 일도 있다. 해녀들이 바다에 나가서 작업하고 혼자 뱃두둑에 앉아 아기와 놀고 있는데 물 밑 바위에 전복이 무더기로 꿈틀거리는 것이 아닌가. 덕수는 아기를 줄로 기둥에 묶어 둔 채 물에 들어가 망사리 듬뿍 전복을 캐고 물 위로 올라왔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한 할머니가 “도둑놈 취급 당할 지도 모른다.” 하면서 전복을 가지고 행하니 가버렸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곳은 전복을 캐다가 두는 저장고였는데 그것을 모르고 가져온 것이다. 할머니는 이튿날 저녁에 전복 값으로 우미 네 칭 값을 가지고 왔다. 상군 해녀가 일 년 내내 캐낸 우미가 여섯 칭이었으니 그 가격이 대단했음은 가히 짐작할 만하다.

그 해 덕수는 고향에 돌아와서 시집을 잤다.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마흔한 살 될 때까지 거의 스물두 해 동안 출가 물질을 다녔다. 워낙 노를 잘 젓고 ‘노 젓는 소리’를 잘했기 때문에 사공이나 배임자들에게는 인기가 최고로 좋았다. 늘상 ‘하네’를 저으면서 ‘노 젓는 소리’의 선소리를 도맡아서 했다.

출가지로는 이 외에도 경상북도 울산, 일본 가고시마 등지를 다녀왔다. 덕수는 늘 ‘고래상군’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물질을 잘해서 가정경제 걱정은 전혀 없었다. 보통 배임자는 자기가 수확한 것 중에서 1할 정도를 떼어 계산을 하고 남은 돈을 해녀에게 주었다.

덕수는 마흔한 살이 되면서 위미리 해녀회장직을 맡았다.

해녀회장이 되면서부터 출가물질은 그만두고 해녀들이 잡아온 물건을



위미리지꾸내어장

사서 서귀포에 가서 팔아 장사를 했다. 그것은 직접 물질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당시 해녀회장의 임기는 3년이고 어촌계장은 4년이였다. 그때 일을 회상하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은 바로 지귀도(지꾸섬)를 위미리 소유로 지정토록 한 것이다. 지귀도 섬 주위는 황금어장으로 위미리와 공천포의 중간 위치에 있었다. 지귀도



그런데 늘 섬의 작업권과 소유권을 놓고서 이웃 마을과 싸움질하기가 일쑤였고, 위미리에서 공천포로 시집간 오누이가 바다 어장을 다투어 싸울 정도였다. 그런데 어장 소유권은 옛날 관습대로 시체 처리가 우선이었다. 지귀도에 일본군의 시신이 떠오르자 마을 주민들이 ‘넛빌레 소롱곳’ 동산에 가서 묻었다. 이후 주인이 와서 그 시신을 찾아갔고 이웃마을 신례리와 어장다툼에서 결국 위미리의 소유가 된 것이다. 덕수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과거 작업했던 바다를 회상하며 추억만을 되새길 뿐이다.

2. 고이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녀노래⁹¹

(물질 나가면서)

이어싸 이어싸

우리배는 잘도간다

참매새끼 나는 듯이 잘도간다

이어도쳐라 쳐라쳐라

이어도쳐라

오륙도 좁은 목에

올려줬던 요네로구나⁹²

이어싸 이어싸나

쳐라쳐라 이어도쳐라

이어싸나 이어싸나

흔저가건 바당에 강⁹³

물건을 흥영내여사⁹⁴

정든신랑 밥을주고



고이화해녀

91 고이화(89세) 자료조사: 2003년 4월 8일

92 이 노로구나

93 바다에가서

94 해산물을 많이 잡아서

어린애기 젓을주고
쳐라쳐라 이어싸나 이어싸나
이어싸나 이어싸나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어싸나 이어싸나 이어싸나
해는 저물고야도 어린애기
젓먹구정⁹⁵ 울어간다
빨리가자 요네야
빨리들려 말 알아들라
쳐라 이어쳐라

(울돌목을 지나면서)
이어싸나 이어싸나
울돌목 좁은목에
올려쳤던 요네로구나
쳐라 쳐라 이어도쳐라
쳐라 쳐라 이어도쳐라

(칠산 바다로 가면서)
이어싸나 이어싸나
칠산바당 중선배야
우리배가 빨리간다

⁹⁵젓을 먹고싶어서

중선배보단 우리배가 빨리간다

(군산, 갈매기섬으로)

이여씨나 이여씨나
군산바당은 전깃불만
반짝반짝 흔저가건
갈매기섬의⁹⁶ 가건
해녀들도 갈매기알을
주워다근 삶아먹었⁹⁷
풍선으로 왜정때에
충남으로 건너간다
충남은 어디냐하면
안흥으로 건너간다
쳐라쳐라 쳐라쳐라
안흥목이 다쳤구나
쳐라쳐라 이여도쳐라

(군장목, 밧섬으로)

이여씨나 이여씨나
충남은 생복⁹⁸하고
해삼은 엇는디⁹⁹

96 갈매기섬의

97 주워다가 삶아먹어

98 생복(生鰯)

99 해삼은 없는데

여기는 고동서도
충남은 강이¹⁰⁰항곡 다싱거
해녀들은 그거 잡으레간다
근장목 좁은목으로 올라간다
쳐라 이어도쳐라
밧섬 하사리로 젓어간다
쳐라 쳐라 쳐라

(석섬으로)
이여싸나 이여싸나
석섬으로 가는 요놈의 배야
재계글라¹⁰¹ 물때가 바빻구나
쳐라쳐라 이어도쳐라
이여싸나 이여싸나
충남등대 밧섬등대
가는구나 이여싸나 이여싸나
이어도쳐라 이어도쳐라

구좌읍 하도리 고이화는 우도 출신으로 당시 일본의 강제 수탈의 역사와 우도 해녀항일운동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는 산 증인이기도 하다. 제주도 해녀항일운동은 어업 조합의 어용화 폐단에 대항해 1931년 여름, 구좌면 하도리에서 거세게 폭발한다. 제주도 구좌면 하도, 종달, 연평, 세화 해

100 게
101 빨리 가자

녀들이 일본 관헌들의 가혹한 대우에 대하여 저항하고, 해녀권의 옹호를 위해 분연히 일어난 것이다.

여러 차례의 사건 중에서 1932년 1월 12일 세화리 대시위 이후, 혁우동 맹원들 검거에 대항한 1월 26일 우도 시위도 격렬했다.

어렸을 적부터 이화는 물질을 잘 하여 ‘애기상군’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열다섯 살 때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출가 물질을 다녀왔고 그 당시 불렀던 해녀노래는 고령의 나이에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평데기’라는 별명처럼 건강한 몸체에 키도 커서 해녀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었던 그녀는 여덟 살 때에 펄개창에서 헤엄을 배운 후, 그해 6월에 넓미역을 작업하는 언니들과 바다로 향했다. 족세눈을 끼고 언니들이 하는 데로 작업을 해나갔다.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탑과 해녀박물관

열 살이 되자 거의 완전한 해녀로 성장하게 되었다. 처음 ‘쨤기통’에서 숨비질 정도 했던 자신이 점점 물 밑으로 가서 잠수하여 물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다.

물 밑의 세계는 육지와는 아주 다른 별세계였다. 돌이 쌓인 곳과 바위에는 전복이 많았고 이화는 지형·지물을 익히기하면서 많은 전복을 캐낼 수 있었다. 당시 생복 가격은 ‘양두돈 너푼’ 이었는데 그 돈으로 제수비용을 준비해서 기제사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당시 여자들의 교육은 대체적으로 금기시하는 편이었다. 학교에서도 우리글인 한글은 배우지 못하고 일본글과 한자만을 가르쳤다.

열여섯 살 나던 해에 항일운동을 위해 우도초등학교에서 15일간 훈련을 받았다. 태왁(두렁박)을 둘러메고 왼손에는 빗창, 오른손에는 호미 그리고 속옷, 물적삼, 초신을 신고서 학교 운동장을 행진하면서 훈련했다. 당시 우도 해녀들은 270명이나 있었고, 기억에 의하면 훈련을 담당했던 선생으로 고태주, 고원한, 윤재홍, 이두삼이 있었다.

이후 기억으로는 바다의 파도가 거칠고 추운 날 풍선배 열 척에 나눠서 일본 순경에 저항하려고 종달리 모래사장에 모여들었다. 그런데 순사들은 헛총을 쏘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세화지서 연단 위에서 강연을 하고 말을 잘 듣지 않아 저항의 기미가 보이면 허리띠를 풀어서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다. 당시 허리띠로 매를 맞고 치료한 흉터가 지금도 남아 있다. 이후 해녀들은 다시 우도로 배를 타고 돌아왔다.

고이화는 열네 살부터 대동아전쟁시 화약의 재료로 썼다고 하는 감태를 바다에서



제주해녀 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주해녀상



하도리해녀들의 소라채취작업

끌어올려 말린 후 일본인 대생(對生)에게 팔았다. 그리고 고동, 생복은 성감룡에게 팔았다.

열여덟 살에는 일본 대마도로 물질 가고 거기에서는 일본인 군두아마(남자), 아마(여자)들에게 따 놓은 전복을 뺏기는 수탈도 경험했다. 계속해서 결혼하라고 중신이 왔으나 남자와 사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오

직 친구들과 바다에 들어가서 웃고 떠들면서 놀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인 ‘물질’이 즐겁기만 했다.

이화는 그런 와중에도 막내였지만 집안의 가정경제도 책임져야만 했다. 출가물질을 해서 번 돈으로 300평 정도의 집터를 사고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이화는 4·3사건 때 시집 형제와 남편을 모두 잃었다. 지금 가족으로는 아들 셋과 딸 하나에 서른 세 명의 손주가 있다.

그녀가 부른 노래는 출가물질 간 지역과 상황에 따라 가사 구성을 달리 하고 있다. 노래 속에는 물질 노 젓는 상황과 함께 제주 해녀의 강인한 삶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 구슬픈 가락은 많은 의미를 남기고 있다.

3. 김도원 - 제주시구좌읍 종달리 해녀노래¹⁰²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요넬젓고 어딜가나
진도바당 한골로가자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나를두고 가시던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우리어명 날날적에
손에깁이 백이라고 날났던가
어기야차 배올라가요
뒤야차 소리엔 닳감아 가는구나
삼돛돌안 배질호긴
선주사공 노념이고
한질두질 수비친물에
삼시끓엉 물질호영
한푼두푼 모인금전



김도원 해녀

¹⁰² 김도원(1923년생)/ 자료조사일: 2009년 5월29일

정든님 술값에 다들어간다
어기야차 소리엔
배울라 가는다
뒤야차 소리엔
닷감아 가는구나
어기야차 어기야차

■ 종달리 해안에서 불린 노래

구좌읍 종달리 해녀들은 1970년대까지도 물질 갈 때 풍선 배(돛배)를 이용하여 노를 저으면서 작업을 나갔다. 노를 저어서 ‘개염여’, ‘너분여’, ‘벌러진여’를 거쳐 내려가노라면 어느새 배는 우도가까이에 와 있다.

작업을 마친 후 종달리 쪽으로는 들물과 썰물의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종달리 뱃물질 작업

작업한 물건을 들고 올라오기 힘들다. 특히 시흥리와외의 경계는 더욱 물살이 세어 “종달리 바닷물은 오리다리 꺾어질 정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

그렇지만 도원은 고무옷을 입으면서 닻을 스무 발씩 내려 작업할 정도로 깊은 물속에서 작업이 가능했던 대상군 해녀였다.



올해 수확해 놓은 천초들

“지금 내 나이에 물질하는 사람이 없어, 건강 허난 나이가 많아도… 천초도 굶겨서¹⁰³, 헛무레도 굶겨서 해.”

“그래도 일흔 일곱까지는 대부분 작업해.”

올해의 작업성으로 천초 1, 2, 3등 품의 세 마대를 가리켰다. 30kg 한 가마는 상품인 경우에 15만 원이다. 수협에서 공동으로 입찰하여 일본으로 수출한다.

집마루에는 박물관에나 전시할 만한 오래된 싱가포르싱이 놓여 있다. 38년 전에 동생이 부산에 출가 물질 다닐 때 8,000원을 주고 샀는데 그녀는 아흔이 다 되는 나이에도 미싱작업을 한다.

마흔살쯤 지나서 1960년대 이후 흰 적삼과 소중이를 만들어 줄곧 입었다. 지금도 물속옷 한 벌을 제작하려면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한다.

“나, 아무것도 없었어, 열아홉에 본 시집에서 애기 없앤 쫓겨났어. 그때 생각엔 백정 놈이라도 만나 자식을 낳아야지 하고 결심했지.” 그때는 저승에 가신 할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곤 했다고 전한다.

103 물가에서



종달리 천초작업 나가는 길

“큰년이랑 스물여덟 넘어서 시집가라.”

그해 4월이 지나 육지에 물질 나갔는데 보통 8월 추석이 가까워 오면 제주로 들어오지만 8월 대목을 보고 가려고 전라도 사랑도에 갔다. 당시 전라도 사랑도에는 지금 아기 아빠가 된 남편이 홍합 바위를 산 전주와 계약해서 홍합을 채취하고 있었다. 그때는 한림 해녀들이 많았고 8월 추석대목까지 작업을 했는데, 눈에 선뜻 들어와 정이 든 사람이었다. 이듬해 3월이 되니 아이가 생겼다. 아들 한 명과 딸 둘인데 여자 혼자 물질로 자식들을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밭떼기와 집을 사고, 밭은 아들이 장가간 이후에 팔아서 제주시 아들네가 살 집을 마련해 주긴 했지만...”

■ 원산과 대마도에서 작업

“대마도와 원산, 일본 사꾸라지마에도 물질 갔어. 종달리 어른 소개로 대마도에서 배를 이용해서 미역작업을 했는데 7~8명이 작업하고 전복이나

고동은 다른 사람이 했어.”

“부산서 배를 타고 일본 가고시마의 사꾸라지마에 가서 성계를 두 달간 작업했지.” 당시는 테왁망사리를 사용하지 않고 ‘담뽀’라고 하는 나무통을 이용해서 작업하고 속옷에 수건을 쓰고 수경은 족쇄눈을 썼다고 한다.

4월이 되어 원산에 간 후 미역, 성게, 숨, 전복 작업을 했다. 전라도 용바위에서 3년간은 주로 미역을 하고 벌바위에서는 2년간 전복이나 홍합을 작업했다.

경상도에서는 당포와 사랑도에서 난바르 작업을 했다.

“난바르는 한 배에 8~9명이 줄곧 타고 다니며 작업하는데 배에서 숙식을 하면서 한 주일 작업하지.” 소라와 전복 담은 상자를 배에 올려서 이동하고 배를 정지하고 작업할 때는 물에 담가둔다. 이를 ‘전복 소라를 물 먹인다’고 했다.

육지부로 미역물질을 가기 전에 우선 1~2월에 제주미역을 미리 해두고, 육지 미역바다를 산 전주(곽주라고도 함)가 3월이 되면 제주 해녀들을 데리고 가서 미역을 캐어 선주와 해녀가 4:6의 비율로 나눴다.

■ 두 살 위인데도 멋진 사람이었지

여든여덟을 지탱해온 할머니의 얼굴에는 아직도 소녀와 같은 수줍음이 알뜰하게 남아 있었다.

남편이 늘 하던 말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는 할머니의 이야기다.

“나 얻어서 아들 나난 소 잡앙 먹여.”

늘 농담삼아 하던 할아버지와는 돌아가시기 전 해에 한 해를 같이 산 게 한평생의 추억거리였다.

그녀가 평생 물질 작업을 하며 운명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가

장 보람있었던 것은 자식을 낳아 키운 일이라고 한다. 제주해녀들에게서 늘 보는 일이지만 사람 삶과 인연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처지를 보면서 숙연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

4. 김부선 - 가파도네 져는 소리¹⁰⁴

이어싸나 이어싸나 이어싸나 이어도사나
요넬젓엉 어딜가리 모슬포 앞바당 홀레미¹⁰⁵
섬으로 물질가까¹⁰⁶ 이어싸 이어도싸 이어싸
이어싸 이어싸 이어도사나 춘하추동 사시절은
해년마다 돌아나오꼭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가 만무하다 예기여차 예기여 ㄱ라
나를 주라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나 이여싸나
요물아래 은과금은 깔렸건마는¹⁰⁷ 높은나의¹⁰⁸
열매로다 이여싸나 혼 착손에 태와을 들고
혼 착손에 비창을 들렁 한숨두숨 희여가명
요물아래 은과금을 건져놓고
이여싸 이여싸나 어기여저라
어기야저라 이여차소리에 배올라간다
이여차뒤야 이여차저차



김부선 해녀

¹⁰⁴ 김부선(1938년생)/자료조사일: 2010년 1월29일

¹⁰⁵ 모슬포 근방의 섬 이름

¹⁰⁶ 물질을 갈까

¹⁰⁷ 깔렸지마는

¹⁰⁸ 높은 나무의

이여싸 이여싸 이여소리는 그만훅곡
 요눇탱이 저눇탱이 뗏을 먹고 슬졌느냐¹⁰⁹
 바람통을 먹었더냐 기름통¹¹⁰을 먹었더냐
 이여도싸 이여싸 아니더라
 바람통을 먹어노니 궁글궁글 궁글려간다¹¹¹
 어기여차 어기쳐⁷라 어기여차
 어여차소리에 배울라간다
 일락서산 해는지고 골목골목 연기내어
 어느제민¹¹² 요넬젓엉 저믄른디¹¹³ 들어가서
 우는아기 젓을주고 낭군님 저녁밥을 지어나노라
 이여도사 이여도사 요내상척¹¹⁴부러지면
 한라산에 쭉대나무가 없을손가
 요벤드레¹¹⁵ 꿰어야지면 모슬포 항구에 노끈장사¹¹⁶
 업실손가 이여싸 이여싸 이여싸나 이여싸나
 뗏물에는 서해바당으로,
 안물에는 동해바당으로
 요 내 신체 배나온다 동여가명
 설룬아기 이여싸나 인생은 요 물질훅명
 살았구나 어서나지고 어서가서 우는아기

109 살뻘느냐

110 기름통

111 흔들린다

112 언제면

113 육지로

114 상책, 노의 상반부

115 닭싹거루의 노를 저을수 있도록배 멩에와노손을 묶어놓은 밧줄

116 짚으로 꼬은 새끼줄을 파는 장사꾼

젓을주멍 정든남편 밥을 주자 이여싸나
 이여싸나 이여싸나 처라쳐라 처라베겨 처라도베겨
 혼믈랑 높이놓고 혼믈랑 늑지나놓고
 이여싸 이여싸나 지쳤구나 버쳤구나
 요목저목 젓엿가게 혼믈랑 높이젓곡 혼믈랑 늑지젓곡¹¹⁷
 늑은영감 장개가듯¹¹⁸ 느적느적 이여도사
 예기여차 예기여7라 처라베기 처라도베기
 혼믈리지곡 목이삭삭 다물라지곡
 뱃또롱을 하늘을 배우곡 궁둥패기랑¹¹⁹ 남을 배우멍
 지엿가게 이여싸나 이여사나 이여싸나
 정든님을 남을 준들 요네 상착을 남을주라
 이여도사 늑적늑적 지어나보라 든적든 적 지어나보라
 요내기신 놓았다가 죽어지면씩어갈 몸 밧을사라¹²⁰ 집을사라
 이여도사나 이여도사 그만젓자

대정읍 해녀노래¹²¹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저마라도	할망당의
전설이여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이여사나

¹¹⁷ 배에 노를 저어갈 때 파도에 따라 높게 그리고 낮게 이동하는 모습

¹¹⁸ 장가기듯

¹¹⁹ 엉덩이랑

¹²⁰ 밧을 사라

¹²¹ 마라도 본향당 아기압개 전설이 노래로 불리는 각 편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저마라도	할망당의
전설이여	이여도사나
백오십년	전이로다
가파도에서	저마라도로
해천영업을	가실적이
홀연이	광풍이
일어나서	그날에
배가돌아	못내흔다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백발노인	할아버지가
꿈에선몽	디려나간다
꿈에선몽	뗏을디렸느냐
흥꿈시문은 ¹²²	너이덜이
이파라도를	뜨라흥문
인재지숙을	두고가야
흥시는다	이여도사나
선주는	깨고보니
몽이더라	이여도사나
이만흥문	어느누구

122 조금 있으면

이마라도에	인재지숙
들어나갈까	노인네가
돌아나간다	이여도사나
선주가	묘한꿈을
내여놓고	이여싸나
아기엽개	내여보내
가는구나	아기엽개야
저설덕에	요내통대
두고와시난	ㄱ 정오렝 ¹²³
일러간다	
아기엽개는	그말듣고
그통대를	가지려고
배로다	설덕더레
내려간다	내리거니
무정호고도	적막호게
선주는	가과도로
돌암구나	이여도사나

아기엽개는	그설덕에
놔놓고	삼춘삼춘
나를실러	가읍소서
손가락을	열개들고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흐는구나
무정호신	선주덜은
가파도로	돌아나온다

뒷해에	삼월들은
가서보니	아기엿개는
그설덕에	빼꾸리만 ¹²⁴
소리슬짝	남앗도다
이여사나	

요아기엿개	마라도에
빼꿀남은	그설덕에다
할팡당으로	무어나두고
일년열두돌	흔돌흔돌
할팡밥을	얻어먹고
흐시는	마라도의
전설이여	이기여사
저나가리	지어라베겨 헛
이기여사 헛	이기여사
야뛰어라 헛	

오래전에 만났던 김부선 해녀를 다시 만난다는 사실에 상당히 기대가 컸다. 7년 전 만남의 기억으로는 가파도 바다에서 물질했었다는 사실과 해

124 몸체의 빼만

녀노래를 잘했으며 얼굴이 예뻐다는 어렵풋한 인상만이 기억으로 남았는데 전화 목소리만 듣고서도 반갑게 환영하며 기쁘게 맞아주었다.

찾아간 집안 화단에는 여느 해녀의 집처럼 소라껍질이랑 고동껍질로 장식되어 있었고, 여기저기에 놓여 있는 어구들로 바다 냄새가 온 집안을 감싸는 것만 같았다.

가과도 출신 아버지와 구좌읍 상도리 출신 어머니는 쓰시마의 ‘모기’ 지역에서 미역바다를 산 후 해녀들을 모집해갔다. 친척분이 바다에서 배를 건지는 일명 ‘뺏배’ 사업을 하여 아버지는 일찍이 쓰시마로 건너가서 잠수 기선 배 위에서 줄을 통제하는 ‘쥬네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과도 출신의 부모가 쓰시마에 출가물질 갔을 때 그곳에서 태어났다. 아홉 살이 되던 해까지 쓰시마 긴(琴)에서 자라고 쓰시마의 히타가츠(比田勝), 고즈나(小綱), 사스나(佐修奈), 니시도마리(西舶) 등 여러 항구와 바다에서 작업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아홉 살 때 가과도로 돌아와 마라도 등의 섬에서 물질을 하였다.

열 여덟살 되던 해에 경남 통영의 한산도에 출가물질 갔을 때는 ‘비진’에 가서 물질을 했고 점심을 준비하고 배를 타고 나가서 뺏물질을 했다. 먹을 것이라곤 날고구마 썰어서 말린 ‘뺏때기’ 삶은 것이 주로 점심 대용이었다. 첫 출가물질이라 잘 적응하지 못해 8월 명절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는 전주가 미역바다를 사서 미역작업을 하고 음력 정월에는 해삼을 잡았다.

김부선이 살고 있던 대정읍 가과도에는 150여 명의 해녀가 있었으며 주로



모슬포 방어축제 때 해녀노래를 불러받은 감사패

전복이나 소라, 미역을 땀다. 한 배에 15명 정도 해녀가 타고 보통 노를 짓는 사람은 세 사람이다. 선장이 ‘도문네’를 짓고 해녀 두 명이 ‘젓거리’와 ‘하네’를 짓는다.

“해녀노래는 구좌읍 세화리처럼 동촌지역의 것과 한림 쪽 서촌지역의 해녀들의 노래가 박자 등에서 조금 다른 감이 있고 가사는 거의 비슷해. 출가물질에서 동촌·서촌 해녀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했기 때문에 뭐 대강은 다 같아.”



49년된 손 재봉틀(위)과 늘 작업하던 대정읍 하모리 ‘앞바르’ 어장(아래)

물론 그녀는 가과도 물질에서 배의 노를 저으면서 물질했기 때문에 가과도의 해녀노래를 배웠지만 노래 습득 경위는 육지부 출가물질이 중심이었다.

열아홉 살 때에는 고향사람 다섯 명과 같이 한산도에서 풍선을 타고 작업했으며 섬이 많은 지역이어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미역과 천초 작업을 했다.

스무 살에는 목포를 거쳐 홍도에 가서 배의 노를 저으며 작업하면서 해녀노래를 불렀다. 음력 5월, 6월, 9월 천초를 1반초, 2반초, 3반초 뜯어서 판 후에 8월 추석명절 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육지 물질은 목돈을 위한 것이어서 시집가기 전 처녀들도 10여 명이 함께 갔다. 그해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자식을 낳고 줄곧 가과도에서 작업했는데 서른세 살(1975년) 되는 해까지 노를 저으면서 작업했

던 것을 기억했다. 이듬해부터는 모슬포로 나와 직접 물질 나가는 ‘굿물질’을 했다.

“남편이 아직도 배 사업을 놓지 않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

지금은 아들 셋, 딸 둘이 있는데 모두 다 출가를 해 두 부부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 마루구석에 놓여 있는 싱가미싱을 탐내자 디자인을 전공한 막내딸이 이 손 미싱은 자신이 가지겠다고 한다면서 “한산도에 물질갔을 때 품질 1등짜리 미역을 해서 번 돈 8천 원을 주고 산 미싱으로 그때도 사람들이 부러워했어.” 하고 더 이상 언급을 못하도록 말을 가로채었다.

5. 김인창 - 서귀포시 효돈동의 해녀노래¹²⁵

이여씨나 이여도사나 어허라 이여도사나
 우리는 제주도의 가이 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에 없구나
 더운 날 추운 날 비가 오는 그날에도
 저 바당의 물결 속에 시달리는 이내몸아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되면 돌아와
 우는 애기 젖먹이며 저녁밥을 짓는구나
 하루 종일 애썼으나 버는 것은 기가막혀
 자자하니 한숨으로 잠도아니 오는구나
 이여도사나 처라뒤여
 우리배에 수덕 좋은 선왕님아
 눈이 붉은 용왕님아 앞발로랑 허우치멍
 뒷발로랑 거두치멍 어서가자 밧피가자
 생복 좋은 등돌알로 고동 좋은 여끝딜로
 혼물거리 돈만원씩 나수와옵서
 요만못 혼 앞집에도 머루가 있나



김인창해녀

¹²⁵ 김인창(1921년생)/ 자료조사일: 2009년 6월 12일

요백안에 무루없이 지을말가 처라
 어서지고 어서가진 우는애기 젖을주나
 정든 가장 밥을 주나
 늙은부모 물을주나 개도야지 채를주나
 어서가자 바빠가자 처라 이여도사나 처라
 놈의고대 애기랑배영, 허리지덕 배지덕말아
 쉬운일을 그린듯이
 양끝잡앙 무친 듯이 양단어깨 숨은정 걸언
 먼뒋사람 보기좋게 곁디사람 듣기좋게
 굽영일억 지여보라 처라 처라 베겨
 꿩꿩배경 지경가자
 스무나문 설나문에 지는노는
 안여밧여 숨은여로 고향천리 다돌아가고
 나만흔이 지는 노는
 요내연방 골아나지네 처라
 요목저목 울단목이 근당흐네
 요눗댕이 저눗댕이
 뿔을먹고 몽실몽실 끓어지나
 바람통을 먹었느냐 구름통을 먹었느냐
 몽실몽실 끓어지네
 요몰아래 은과금은 쌓였어도
 높은남의 열매로구나 처라,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울로요레 돌아진섬에 물질흐영
 혼푼두푼 번금전 서방님 술값에 다들어간다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처라

이여도사나 사나사나 지영사나
 나주영산 가운데로 질이나나라
 설문정례¹²⁶ 가는되는 질아올라¹²⁷
 자우라지네,¹²⁸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처라
 어떤어떻 나은 아긴 고대광실 높은 집에
 남단북단 너른밧디
 부귀영화로 살건마는
 우리어떻 낄날적의 가시남의 몽고지에
 손에꿍이 지라하고 날났던가, 어허아
 이여도사나 처라 처라베겨, 열씨구나 좋다

서귀포시 효돈동 강인옥 해녀회장은 제주에서 ‘해녀노래’를 가장 잘 부르고 여든 넘게 작업을 한 해녀라고 하면서 김인창 해녀를 소개해주었다. 인생의 수많은 곡절을 넘겼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김인창의 표정은 고난의 그늘을 넘어서서 당차고 밝게 보였다.

“효돈에서 나고 자라, 열세 살에 물질을 배우고 효돈 사람과 결혼해서 쭉 여기서 살았어.”

열여섯, 열일곱 살에는 울산 감포에 가서 천초, 미역, 도박과 헛무레를 했다는 것 등, 만나자마자 그녀는 여느 해녀의 삶 속에서라도 읽을 수 있던 공식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나갔다.

아들을 먼저 양세웠고 50대에 남편이 사고로 다쳐서 남편 뒷수발을 했던 일, 여러 가지 고통스런 일 등, 그동안 얻었던 실마리를 풀 듯 모든 것을

126 서러운정녀(貞女)

127 길마저도

128 기울어지네



독교 타고 시집가는 모습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듯 남의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갔다.

안집에 사는 작은 며느리를 낳은 이들에게 인사 소개를 시키면서 안과 밖거리에 같이 살면서 늘 며느리에게 미안함이 앞서곤 했다고 자신의 속내를 털어 놓았다.

“며느리야, 너 뭐 하러 이 집안에 들어와 고생하냐? 조금 더 있는 집에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해녀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노래를 맘껏 부를 수 있고 자신이 살아온 고통스런 삶을 노래가사로 엮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해녀탈의장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안내했다.

신식으로 지어진 해녀탈의장은 해녀 30명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넓었으며 그 안에는 노래방 기계와 건강보조 기구들이 비치되어 있었

다. 마을 앞 바다어장에는 항구를 조성하기 위한 삼밭이들이 널브러져 있고 항구 공사는 진척 중이나 지난해 찾아왔을 때와 별반 다름이 없었다.

해녀노래를 잘 부르느냐고 묻자,

“올해 정월, 서귀포 칠십리 축제에서 상을 탔어. 그리고 수협축제를 할 때 해녀노래를 불러서 인기상도 받았어.” 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녀노래를 녹음해가고 물질작업에 관련해서도 물어봤다고 했다.

“효돈에서는 노 젓이멍 지귀도도 가고, ‘하노’ 나 ‘젓거리’ 를 저으면서 해녀노래를 불렀어. 1971년도 발동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배의 노를 젓고 다녔어. 세계 유람했어. 안가 본 곳이 없어.”

“열여덟 되던 해(1939년) 인술자를 따라서 20명의 해녀가 서귀포 갯마리에서 군대환을 타고 대마도에 작업을 갔지. 이듬해에 1940년에 건지 올리고 장옷을 쓴 채 독교를 타고 시집을 갔어. 스무 살에 강원도 지방에 물질 다녀오고, 스물한 살에 가고시마 세서누우라에 마흔 명의 해녀들이 가서 헛무레와 전복을 했어. 전주는 우도사람 고은순 씨고, 인술자는 김유생이야. 스물두 살(1943년)에 동경 넘어 하찌쵸지마(八丈島)에 서귀포시 보목동 인술자를 따라서 마흔 명이 갔어. 해방이 되어 다 돌아왔지.”

할머니는 스무 살의 젊은 나이에 일본을 철새처럼 드나들던 가벼움을 밝은 미소로 표출하고 있었다.

6. 김절 - 서귀포시 대포동 최고령 해녀¹²⁹

■ “하늘우의 절만 안 들면 물에 들레 갔저”

(과도가 웬만큼 거세지 않으면 물질 작업을 나갔다)

“노래라고 할 것도 없어.”

“갯쟁흐문 울어정 못골아(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울음이 나와서 못해).”

김절의 해녀노래는 특별할 것 없이 바로 해녀생활사의 한 기록이면서 그녀 삶의 한 단면이다. 그녀는 선율에 붙여서 노래를 부르다가 다시 대화체로 강하게 그리고 조금은 낮은 어조로 불러 나갔다.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어기여라
이여도사 우리야매는 술남¹³⁰으로 지은배라
술술하게 잘도간다 젊은년의 흐는일쌍¹³¹
벳또롱알을¹³² 남을준 덜 요노야상착¹³³ 늬
줄소냐¹³⁴



김절 해녀

¹²⁹ 김절(89세)/ 자료조사일: 2009년 2월 20일

¹³⁰ 소나무로

¹³¹ 하는 일들

어기야쳐라 처라베겨 세깃배가¹³⁵ 휘여지고
 물갈기가 휘여지게 흐염시난 오늘이랑 어두웠구나
 이어도사 웬착손에¹³⁶ 두렁박메영¹³⁷
 늑든손에¹³⁸ 서수나비창 둘러심어
 열두나물속 바라간다 바라온다
 젊은 놈 오카부댕¹³⁹ 금착금착¹⁴⁰
 올름틸름 알세기멍 요물질흐영
 물로벙벙 돌아진 섬중 삼시끓엉 물질흐영
 벚으런파두어도¹⁴¹ 낭군님술값도 부족한다 어기야쳐라
 어기야쳐라 요왕님아 쌀물나민¹⁴² 동의와당
 들물나민 서의와당 산탄여로 태튼여로
 굽엉일억 굽엉일억 흐루삼시 요물질흐멍
 우리야 인생은 무신날에 난팔자라
 열두발물알도 허우치멍 이여싸
 열아흙에 대마도가난 배아흙척 상군흐연
 흐루가민¹⁴³ 구제기¹⁴⁴ 세칭씩 전복 수무근씩 잡아오멍

-
- 132배꼽 밑을
 133이 노의상책
 134남을 줄쏘냐
 135가는 노끈이
 136왼쪽 손에
 137테왁을 들고
 138오른 손에
 139올까봐
 140가슴이 두근두근
 141돈을 벌어서 놓아도
 142쌀물이면
 143하루 가면
 144소라

흐엿구나 뒷헤엔가난 마딱섬더레 오갈더레가부난
 나흔자들언 배세와두고 튼강엔 간보난
 요만씩 혼돌엔¹⁴⁵ 요만씩흐 전복
 두개씩 세개씩 삼십일킬로 잡아놓고
 구제긴 여섯 개 흐여난에 된
 도깨리상다리 테왁걸어진 나시난
 사공은 두어른이 오갑테연오란
 줌녀덜크라¹⁴⁶ 욱흐기는 썩는물건 무사안흐연
 굴벧테레 갓젠흐멍 혼목쌈고¹⁴⁷ 이여도사나
 쉬염시난 뒷헤엔가난에 우리어머니영 가난
 “예야 옥년이야, 일로왕 요거 전복 테여도라”
 “간보난 춤말로 감저파당 막데미민¹⁴⁸ 흙올르지 아니흐여
 구제기 막데미난 모살이 헤영흐거라¹⁴⁹, 우리 어머니가 강
 구제기를 영흐연 안양오라. 바당더레 찰찰 서끄는거라¹⁵⁰
 난 망시리 이디 영흐연¹⁵¹, 난 망시리 이디 영흐연 준망시리
 채우곡 확확하게 좇엉¹⁵² 일곱 개, 여덟 개 좇엉오민¹⁵³ 아
 흐꿈흐민¹⁵⁴ 망시리 그득흐곡¹⁵⁵ 비와 또로¹⁵⁶ 너발흐디라¹⁵⁷

145 이만큼 한 돌에는

146 해녀들에게

147 한묵 싸우고

148 쌓아두면

149 모래가 하얀 거라

150 헤치는 것이라

151 이렇게 해서

152 빨리 주워서

153 주워서 오면

154 조금 하면

155 가득하고

물 가는디 강

전복이 예실곱개 흠어져서¹⁵⁸, 나오당 할망덜 7라¹⁵⁹ 전복테
영¹⁶⁰ 읍센하난¹⁶¹ 재우¹⁶² 옷둥네, 두팽이 누이 하나¹⁶³ 태
영와서¹⁶⁴

■ 테왁 짚엉 희여가는 소리(테왁을 짚고서 헤엄쳐가는 노래)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이여사
오늘날은 어딜가건 숨다먹으멍 물질하코
영겍좋은 서낭님아 나가는디랑
전복이나 드랑드랑 하여줍서
들물나민 서의와당
썰물나민 동의와당
어기역치기역 스만스천 저용신네
지방여 산탄여 수정세멍¹⁶⁵
물아래서 지픈물알¹⁶⁶ 허우영가멍¹⁶⁷

156 비워서 다시

157 네 발한 곳이라

158 여섯, 일곱 개가 흠어져 있어

159 할머니들에게

160 전복을 떼고

161 오시도록 하자

162 겨우

163 혼자서

164 떼고 왔어

165 수를 헤아리며

166 깊은 물속

167 헤쳐가며

전복따라 소리를 따라
일천간장 다세기명
“울어정 못하키여”

서귀포시 대포동에 살고 있는 해녀 김옥련은 대상군이며 해녀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호적에는 ‘김철’ 외자 이름이지만 해녀들 중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어서 두 이름 중에 어느 이름을 불러도 그녀가 누구라는 것을 잘 안다.

여든일곱까지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바다로 나가고 물속에서 작업할 때에는 지팡이를 테왁망사리에 걸어두고 작업하기 때문에 ‘막대이(막대의 제주어)할망’이라는 호칭이 붙었다. 그녀는 그동안 육지와 바다를 넘나들며 너무나 많은 일을 해온 까닭에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겨 지난해 동짓달 스무닷새부터 겨우 끼니나 해먹고 화장실 출입을 할 뿐이다.

셋째딸이 얼마 전에 와서 테왁망사리를 만지면서 “어명 정말 물질 못하키라(어머니 이제는 물질하지 못하겠습니까)?”하고 물었다.

“응, 정말 못 하키여(응 정말 못하겠다).”

그 말을 들은 딸은 눈에서 으쓱하게 눈물을 보였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한평생 몸담아서 해온 일을 그만둔 것에 대한 섭섭함과 아쉬움의 표출이며 연민과 동정이었다.

“늙으면 못 하는 거여, 마음은 있어도…” 옥련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그동안 할 만큼은 했고 또한 용왕님 덕분으로 남보다 많이 바다에서 물건을 잡았으며 이렇게 천수를 다 누리는데 그 이상의 바람이라든가 회한은 없었던 것이다.

“우리 대포바다에서도 한꺼번에 전복을 스물일곱 근, 스물여덟 근 잡아본 경험이 있어, 물속에 한 번 들어가면 전복을 두세 개씩 터(잡아), 그때는

전복이 이만씩 하여(이만큼씩 해).” 그녀는 그동안 일해서 굶어진 손과 튼튼해진 큼직한 양손바닥을 합쳐서 우리들에게 내보이며 우쭐해 하는 몸짓을 보였다.

“자식 공부를 못 시킨 것이 한이라. 돈도 많이 벌었지만, 서방님 술값, 노름 값도 부족하여.”

그녀는 열일곱 살부터 물질을 했다. 지금까지 작업하다 큰일 한 번 없었던 것은 다 용왕님 덕분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자신의 몸 하나로 아들 딸 자식 여덟을 키워낸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역력했다.

이번 어촌계에서 큰 굿을 할 때는 독자적으로 용왕님께 쌀 20kg 한 가마니를 제물로 바칠 예정이다.

서귀포시 대포동 마을은 몇 년 사이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해녀들은 바다에서 사람이 죽으면 바다가 더러워졌다고 여겨서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한 굿을 한다. 이번에 치르는 용왕굿은 할머니 생애에서 세 번째 경험하는 것으로 23년 만에 하는 것이다.

탈의장과 해녀식당을 건축해서 아직까지 성주풀이를 못했는데 초감제를 시작으로 성주풀이와 용왕질을 쳐 대신(大神)을 맞다 보면 거의 일주간 진행될 예정인 큰 굿이었다. 이번에는 어촌계에서 단단한 결심을 하고 많은 비용을 각출해서 굿을 하는 모양이다.

“음력 이월 보름날은 꼭 와.”

영등달 이월 초하루에 들어온 영등신이 이월 열나흘에는 제주시 칠머리당에서 제를 받고 이월 보름날에는 우도를 통해서 나간다. 곧, 이월 보름은 영등신이 나가는 날이다. 이날 치르는 용왕제를 통해 풍어와 안전 조업 기원이 같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게 된다. 할머니는 어느 심방이 주재해서 이러한 목적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마음을 쓰면서 제발 잘 치렀으면 하는 절실한 기원을 보였다.

■ 스무 살, 스물한살에 대마도 물질

열아홉에 결혼하여 스무 살에 대마도(쓰시마)에 물질 갔다. 이 동네 최이장과 김옥천 사공 두 사람, 해녀 일곱 명이 같이 동행했고 물질작업은 2월에 시작하여 8월에 돌아왔다. 해방 전인 1941년도의 일이다. 그 당시는 1,600여 명 정도가 일본으로 출가물질을 떠날 정도로¹⁶⁸ 철새처럼 갔다가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마을의 원인옥 해녀는 세 살 난 아들을 데리고 갔다. 부산에서는 발동선을 이용했고 돌아올 때는 삼나무를 가득 실은 삼돗선 돛배를 타고 왔다.

“아기는 노끈으로 배에 매어두고 노 젓는 사공이 돌본다.” 대마도에서는 큰 ‘농투선’이라는 배의 노를 저으면서 작업을 했다. 8월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해묵이를 하며 작업을 했다.

다시 스물한 살에는 어머니와 같이 갔다. 어느 날은 남들이 작업하지 않는 날인 아홉 물 때에 전복을 31kg이나 잡았다. 그 바다 안에는 전복이 지천에 깔려 있어서 마치 꿈속인 것만 같았다. 그날 다른 해녀들은 물때가 좋지 않아서 보말(고동)을 채취했는데 전주는 옥련이가 딱 전복을 손가락으



서비당

¹⁶⁸ 『제주도세요람』, 1937년 통계.

로 가리키며 다른 해녀들에게 뭘 하느냐고 욕을 했다.

그런데 전복을 잡은 후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 아프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문점을 하니 일곱 살에 돌아가신 아버지 댁이 빙의하여 들렸다고 했다.

“나에게 귀한 아기를 이렇게 먼 곳까지 데리고 와서 작업시키느냐. 빨리 돌아가게 하라.”고 영혼은 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짐을 꾸리고 제주도로 돌아온 후 고향을 했다. 이후 병이 나왔다.

쓰시마에는 일반적으로 산비탈 골짜기를 내려와서 물가에 마을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개 작업했던 곳은 ‘와뉴라’라는 지역인데 당시 나이 든 해녀 두 명과 남자들만이 작업했었고, 채취한 소라는 소라통조림 공장이 있는 ‘고견’에 가서 팔았다.

■ 봉근여(우연히 발견한여)

할머니는 우리가 부탁하지 않아도 대포리 바다 어장 이름을 받아쓰라고 하시면서 줄줄 된다.

“지샷개에는 ‘큰여’와 ‘산탄여’가 있어.”

“큰여는 크다는 뜻인 것 같고, 산탄여가 뭘니까.”

“산을 탄 여.”

‘산탄여’란 작업하러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위로 나와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때 바로 맞대어 일직선상의 경계에 있는 바닷속에 위치해 있는 암반을 말한다.

‘봉근여’는 표준어 ‘줍다’의 제주어 ‘봉그다’와 ‘여’가 합쳐진 것으로, 작업하다 우연히 발견하여 자신들의 작업 장소로 삼은 곳을 말한다. 또 새로운 여를 하나 발견하였다고 해서 ‘새여’라고도 했다. 기존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여 추가한 그 신천지는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에 꼭꼭 숨겨둔다.

그래서 그곳은 해녀 누구의 새로운 섬이기도 하고 작업할 때 찾아가는 장소이기도 했다.

해녀들은 보통 바다 어장 인식을 육지부의 지형, 서귀포시 중문동대로피 '큰엿도' 지물을 이용하여 가늠하는

데 곧 자신들만의 어장에 대한 지형인식으로 붙여진 이름들이 많다. 보통 해녀들의 지형에 대한 인식들을 나열해보면 바다 속 지형의 명칭들이 얼마나 구체적이며 어장지도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대상군 해녀의 자격은 이처럼 어장 지형을 확실하게 인식하여 각 곳에 어떤 해산물이나 나가는 또는 어장의 특성 등 해양에 관한 지식들을 전부 알아야 가능했다. 이러한 물질기술이나 어장에 대한 지식체계를 학습하는 데는 좋은 머리와 암기력 그리고 누가 직접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산지식을 파악하는 '눈치'가 필요하다.

할머니는 그렇게 얻은 산지식을 기억나는 대로 나열했다.

“연티맛에는 광광여가 있어, 물속에서 ‘광광’ 소리가 난다고 해서 광광여지, 물 흐름이 소용돌이쳐서 소리가 나는데… 그리고 섯코지에는 개창여, 동코지는 섯여, 거문머들에는 범의서들여, 자장코지, 큰갯물포구, 모살읍개, 세배방개, 실내바당에는 넙작여, 큰엿도에는 두리여, 지방턱에는 새



여, 베탄개에는 물이 깊은 소들목이 있어.” 지형을 설명하며 나열하는 것은 바다어장 작업 경험에서 얻은 지식들을 마치 정리라도 했다가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파도 같았다.

“전에는 인정도 있었어. 나는 작살로 물고기도 잘 쏘았지. 한 동네에서는 오늘 누구네 집 제사도 다 알아. 그러면 쏜 고기를 다 제숙으로 나눠줬어. 그리고 전복이나 소라도 망사리에 다 넣어 줬어. 그 덕에 이렇게 오래 사는 것 같아.”

7. 김춘산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 해녀가(해녀항일의 노래)¹⁶⁹

■ 우도 해녀가

1절

우리는 제주도의 가이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에 물결 우에 시달리던 이내 몸

2절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되면 돌아와
어린 아이 젖 주면서 저녁밥을 짓는다
하루 종일 하였으나 버는 것은 기막혀
살자하니 근심으로 잠도 안 오네

3절

이른 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코



김춘산해녀¹⁷⁰

¹⁶⁹ 김춘산(60세) / 자료조사일: 2001년 11월 15일

¹⁷⁰ 사진: 연합통신 김호천 기자 촬영

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고
파도 세고 물결 센 저 바다를 건너서
기 울산 대마도로 돈벌이 가요

4절

배움없는 우리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은 착취기간 설치해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간다
가이없는 우리해녀 어디로 갈까



‘해녀항일의 노래’를 작사한 강관순(아랫줄 맨 왼쪽)

우도면에서는 ‘해녀노래’라 부르는 ‘해녀 노 젓는 소리’ 외에 새로 만들어진 ‘해녀가’ 혹은 ‘해녀항일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가 전해지고 있다. 이 ‘해녀항일의 노래’는 1932년 우도, 성산, 구좌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해녀항일운동 당시 이곳 출신 강관순이 작사하고 일본 창가인 ‘동경행진곡’에 곡을 붙여서 불렀다. 지금도 나이 든 해녀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다.

노래는 전체적으로 4절로 되어 있으나 3절까지만 구전되어 내려오면서 불렸다. 그것은 4절 가사가 항일에 대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서 당시에는 자유롭게 부르지 못했던 것에 그 까닭이 있다.

이 노래를 잘 부르는 김춘산은 우도 해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해녀회 장직을 30여 년간 담당했으며 외지 출가물질인 경우도 가 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열일곱 살에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첫 출가물질인 초용을 가고 열여덟 살에는 한산도, 가옥도, 열아홉에 한산도 매물도, 스무 살에 강원도, 스물한 살에 통영, 스물두 살에 전라남도 청산, 스물 셋에 부산시 남구 남천동, 스물넷부터 스물여섯까지는 경북 포항 외에도 강원도 울진 등 가 보지 않은 곳이 없다면



우도해녀항일기념비

서 다녀 온 곳을 줄줄이 꿰고 있었다.

또 육지물질 외에도 일본 오사카에 20명이 함께 작업하러 간 적이 있었다. 한국인 객주를 따라 갔는데 그 바다어장을 산 사람은 일본인이었다. 결국 일본인 종노릇만 하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보내주질 않아서 “경찰에 가서 자수하고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서야 겨우 풀려 나왔다. 일본 오사카에는 언니가 물질 갔다가 재일동포와 결혼해서 60년 동안 살고 있어 가까운 인연이 있었다.

춘산 씨는 본인이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말하да시피 다른 해녀들이 알지 못하는 민요를 거의 완벽하게 기억해내고 있다. 특히 4·3사건 중에 청년들이 만들어 해녀들에게 부르도록 한 ‘바다를 그리워하는 노래’ 역시도 이 우도에서는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한다. 노래는 선배 해녀나 언니들이 부르는 것을 따라 배워 익혔다.

아홉 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많이 배웠다고 하며 여장부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다리를 다쳐 물질을 못하고 자주 병원신세를 지는 실정이다. 아픈 다리를 끌면서도 10,000평 정도의 땅에 주업인 땅콩과 보리농사를 짓는

대농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물질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운동하러 가는 것쯤으로 여긴다.

지금은 노래 부를 기회가 자주 없으나 바닷가에서 자신이 부르는 노래 가사의 내용을 곰곰 생각해보면 해녀들의 삶과 정서를 잘 느낄 수 있다.

다음 노래는 특별한 노래의 제목은 없었는데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신세를 닮아 있어 눈물이 나온다고 했다.

내 신세 아득하다
저 바다에 달린 몸
물결소리 찾아간다
호이 소리 들려온다
그리운 바다
가냘픈 순명선은
저 바다에 달린 몸
물결소리 찾아간다(가슴이 무너진다)
호이소리¹⁷¹ 들려온다(가슴이 찢어진다)
그리운 바다
쓸쓸한 고국산천
제주도는 사백리
무궁화 피는 산천
갈매기 우는 바다
그리운 바다

171 해녀들이 물질작업을 마치고 물 위로 올라와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호이' 하고 내쉬는 숨소리

이튿날 그녀를 찾아갔을 때 마침 물질 다녀온 소리를 손질해 찬거리를 만든 후 툇 공동 작업을 위해 물질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잠겨 노래를 할 수 없다고 극구 사양하다가 노래를 시작하자 계속 이어졌다. 열두 살적부터 노래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은 고인이 된 김덕희 그리고 다대포에서 살고 있는 김정순이 축음기를 들고 노래 연습을 할 때에 줄곧 쫓아다니면서 가사를 외워서 따라 부를 수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한국해조감태관매회사’에 다녔던 남편이 죽은 후에는 노래로 시름을 달래었고 노래는 자신의 삶을 대신하여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우도바다에서 도박을 채취한 후

그녀는 삶이 어렵고 고달픈 때에도 원래 성품이 유쾌하고 해학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웃기곤 했다. 열일곱 살 때에는 우도에서 연극 공연 중에 남장을 하여 잘 어울렸다고 옆에서 지켜봤던 친구들이 과거를 회상했을 정도다.

그녀는 ‘해녀노래’, ‘검질매는 소리’, ‘ㄱ레ㄱ는 소리’ 등의 토속민요뿐 아니라 창부타령, 양산도와 같은 타령류나 유희요도 잘 부른다. 포항에 물질 갔을 때 쿡쿨대회에서 양산도를 불러 일등상으로 흰 고무신을 탄 적이 있고 노래에 감탄한 남성에게서 프리포즈를 받은 적도 있다고 자랑스러운 듯 전했다.

그녀가 부른 창부타령은 기존의 사설을 변용하여 해학적으로 엮어 놓았다. 그렇지만 그녀의 노래는 삶을 담아 놓은 그릇이며 저장고였다. 두 아들의 병치레와 저세상으로 일찍 간 남편을 대신하여 그녀는 억척스러우면

서도 강하게 삶을 살아오면서 제주여성과 제주해녀의 기상을 바로 보여주었다.

노래가 시작되고 몇 곡 이어나가자 몸 아픈 고통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녀는 맘껏 손을 저으며 박자를 맞추면서 신명을 내었다.

10시부터 몇몇 해녀들이 툯 채취 공동작업을 위해 테왁을 들고 바다로 나갔기 때문에 서둘러 검은 고무옷을 입고 아픈 다리를 이끌며 다시 시퍼런 바다로 들어갔다. 36명 해녀들의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왔다 하면서 내뿜는 ‘호이소리’(숨비소리)가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와 조화를 이루어 아주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들렸다.

어느새 춘산의 모습도 자취를 감춰 다른 해녀들 속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 해녀 네 짓는 소리

이여씨나 이여도사 이여씨 이여도사나
우리나배는 잘도간다 이여씨
쳐라배겨 쳐라쳐 이여도사나 이여차
요목저목 쳐라배겨 울단목가
사랑도에 이여라차 울단목가
올라야쳤던 요네로구나
이여도씨 이여도씨나
이여씨 이여도씨나
요넬지고 어디가나¹⁷²
진도야바당 한골로가자¹⁷³
이여씨나 이여도씨나



우도 하고수동해수욕장의 해녀상

이여차 쳐라베겨
 쳐라쳐 이야차
 저눗댕이 요눗댕이
 뗏을 먹고 쳐라베겨 둥긱둥긱 커지였나 쳐라
 뗏을 먹고 쳐라쳐 커지였나
 지름통¹⁷⁴을 이야라 쳐 마셨더냐
 쳐라베겨
 바람통을 마셨더냐
 이여라쳐
 뗏을 먹고 둥긱둥긱
 커지였나 이여도사나 이여짜
 이여짜 이여짜

¹⁷² 이 노를 지고 어디를 가나

¹⁷³ 진도 바다 한골로 가자

¹⁷⁴ 기름통

8. 김춘심 -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쯔네소리¹⁷⁵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요바다에
 요물속은 기쁨여쁨¹⁷⁶
 알건마는 한집사람
 임의 속물라
 철썽간장 다썩인다
 이어싸 산아산아
 높은산아 너아무리
 높다한들 우리부모 미칠소냐
 이어싸 이어도사나 이어싸
 명사십리 해당화야¹⁷⁷
 꽃진다고 설워마라
 오는백년 춘삼월에
 꽃도피고 잎도피여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김춘심 해녀

¹⁷⁵ 김춘심(1946년생)/자료조사일: 2002년 11월 2일

¹⁷⁶ 깊고 앗음

¹⁷⁷ 고운 모래길 위의 해당화야

높은곳 선산에
 외로난 솔나무
 너두야 나같이
 외로이 흐는구나 이어싸
 흐 착손에 태와들고
 흐 착손에 비창¹⁷⁸들고
 흐 치두치 내려다보니
 저성도¹⁷⁹가 다왔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우리어명 날날적에
 해도달도 어신날에 날났던가¹⁸⁰
 물로뽕뽕 예운섬에¹⁸¹
 삼시끓엉¹⁸² 물질흐영
 흐푼두푼 모은돈은
 정든님술값에 다들어간다
 앞강에 뜬배는
 임실어 놓고요
 뒷강에 뜬배는
 낙수질¹⁸³ 갈배라
 이여싸 이여싸

178 전복을 떼 때 사용하는 도구

179 저승으로 가는 입구

180 해도 달도 없는 날에 날 낳았던가

181 물로 뽕뽕 예워싼 섬에

182 세 끼니를 굶고

183 낚시질

이여라싸라 어야차라
 앞의서는 뒤물리면
 우리아선은 앞을서라
 요바당에 요물질허영¹⁸⁴
 먹영살젠 날났던가¹⁸⁵
 어떤사름 팔제조앙¹⁸⁶
 노픈집에 살건마는¹⁸⁷
 우리야인생 두렁박¹⁸⁸인생
 언제면 끝이날고
 명사십리 해당화야
 오는맹년 춘삼월에
 앞도나돌아 만발하고
 꽃도피여 만발한다.
 으리야차야
 혼목지영¹⁸⁹ 놈을주멍
 앞발로랑 허우치멍¹⁹⁰
 뒷발로랑 거두잡앙
 이어싸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헛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헛

184 이 바다에 이물질을 하여

185 생계를 꾸려 가려고 나를 낳았던가

186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187 높은 집에 살건마는

188 테왁을 가지고 물질 작업하는 것을 비유해서 일컬음

189 어느 정도 노를 지어서

190 손으로 물길을 헤치고 해산물을 캐기 위한 동작

요네젓엿 서비여¹⁹¹가니
 골메기¹⁹²도 내벗이어라
 이여도사나 이여사
 산천초목 꼭꼭꼭
 해넌마다 돌아나고
 우리야인생 한번가면
 다시올 줄 모르더라
 이물에는 이사공아¹⁹³
 고물에는 고사공아¹⁹⁴
 허릿간에 화장아¹⁹⁵야
 물때점점 늦어지네
 이여싸 이여싸

한림읍 금릉리에서는 해녀노래를 ‘줍네소리’라 부르고 있다. 이 노래는 배의 노를 저으면서 여성들에 의해 불린 어업노동요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쪽이든 서쪽지역이든 공통적으로 불려서 거의 비슷하게 전승된다.

해녀는 일본과 한국의 제주지역에서 아직도 경제를 위한 생업 형태를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 비록 노래 현장은 바뀌었지만 해녀들의 심정이 담긴 해녀노래는 제주지역에서 가장 올곧게 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춘심은 한림읍 금릉리 제주 최초 여성 어촌계장으로 유명하다. 어촌계는 어부회와 해녀회를 아우르는 모임으로 직접 바다에서 생산 활동에 참

191 비양도가까이에 있는 자그마한섬 이름

192 갈매기

193 배의 앞칸의이씨 사공아

194 배의 뒷칸의고씨 사공아

195 밭짓고, 불을담당하는 심부름꾼



한림읍 비양도 공동어장위와 김춘심 해녀가 받은 공로상(아래)

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다.

한림읍 금릉리의 경우도 과거에는 어촌계와 해녀회가 독립적이면서도 존속적 위치에 있었다. 인원수는 비양도까지 물질가서 작업하는 해녀 수가 40명이나 되고 전복 양식장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를 합치면 거의 120명이 된다. 해녀회에는 반장이 있고 대의원이 18명이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의 대의원이 4명 배당된다. 해녀들은 어촌계에 가입하고 싶으면 120만 원을 내며 탈퇴를 할 때는 65만 원 정도를 받는다. 어촌계 회원은 247명이고 자산은 공동자산 이외에 현금 자산만 6천만 원에 이른다.

1997년부터는 어촌계와 해녀회의 총대 대의원이 겸직되어 해녀회가 자체 활동을 했다. 주로 해녀회에서 하는 일은 바당풀을 제거하거나 바다에서 잡은 잔

소라를 선별하여 공동으로 판매하는 일들을 한다.

어촌계에서는 톳을 음력 2~3월에 채취하여 수협으로 개통출하를 했다. 지선어장이나 양식장의 톳이나 해초채취는 공동작업과 수매로 공평히 수익을 분배하는 반면 소라, 전복, 오분작 등은 공동으로 작업하고 판매하지만 자신이 잡은 양에 따라 수익을 할당받는다. 그리고 톳은 어촌계원이 채취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이 톳 채취를 할 경우는 부과금과 수수료를 톳 생산가에서 댈다.

춘심은 제주의 여느 해녀들처럼 열여덟 살에 울릉도와 구룡포로 첫 출가물질을 갔다. 여덟 살 적에 여객선 ‘이리호’를 타고 처음에는 아기를 돌보는 ‘아기업개’로 갔다. 울릉도에서도 노를 저으면서 섬에 나가 작업하는 뱃물질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해녀노래를 부를 기회가 많았다.



2002년 「탐라문화제」에서는 금릉리 본향당으로 해신당의 특성을 지닌 할망당과 ‘소황당’, ‘하르방당’을 합제해서 유교식 제사를 지내고자 ‘능향원’으로 이설하는 과정을 주제로 걸궁을 만들어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신제를 유교식·무속식으로 지내는 능향원

9. 김태매 - 제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유자¹⁹⁶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히잇
요네를젓엉¹⁹⁷ 어디를가리
진도바당 혼꼴로가자
이어도사나 처라 베겨 처라처라
요네상척 부러지면 한로산에 곧은목이
없을소냐 히잇
이어도사나 처라 베겨 처라처라
요네상척 모두치멍
젓어나보자 이어도사나 히잇
처라 베겨 처라처라
요벤드레¹⁹⁸ 꿇어지면
부산항구 노프줄이 없을소냐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처라 베겨 처라처라 히잇
잘덜도젓나 울돌목¹⁹⁹이 젓어보라



제주시 향토문화유산보유자
김태매 해녀

¹⁹⁶ 김태매(1925년생)/자료조사일: 2010년 1월6일

¹⁹⁷ 이 노를저어

¹⁹⁸ 배 멩에와 노를 묶어놓은 밧줄

양껏잡앙 채친듯이 젖어보라
 이어도사나 처라 베겨 처라쳐라
 물로뽕뽕 돌아진 우리제주 해녀덜
 저바당에 나가서 물질을 하여
 혼푼두푼 벌어논 금전
 사랑하신 낭군님 용돈에
 다들어간다 히잇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처라 베겨 처라쳐라 히잇
 우리 잠수덜 젊은년덜 젓는노가 히잇
 아니로고나 히잇
 이어도사나 히잇 처라 베겨 처라쳐라 히잇
 젊은년덜 젓는노가 아니로고나 히잇
 앞산낭도 무에레가자²⁰⁰ 산돌백도 무에레간다²⁰¹
 젊은년덜 처라베겨 처라쳐라 이내 잠수덜아
 잠수준비덜 어서나^하자
 혼작손에 테왁을 들렁 혼작손에 비창을 들렁
 이어도사나
 혼질두질 들어가니 전복을딸까
 구쟁길²⁰²딸까 이어도사나 히잇
 우리 잠수덜 잘도잡나 히잇
 이어도사나 히잇 처라 베겨 처라쳐라 히잇

199 진도와 전남 화원(花原)반도 사이의좁은해협, 조류의 빠르기가 심함

200 앞이 싱싱한나무도무너뜨리러가자

201 산의 절벽도무너뜨리러가자

202 소라

우리 제주도 뽕뽕 돌아진 제주섬에서
 알뜰하고 살뜰한 우리 해녀덜 잘덜도간다
 저바다에 나가서 물아래가서 숨춤으멍
 돈벌레 알뜰살뜰 우리해녀덜 잘덜도간다
 우리배에 배를 짓엉
 울돌목이여 처라쳐라 잘덜도젓나
 울돌목이 올라간다
 요물아래 은과 금은 낚렸건만
 높은낭게 열매로고나
 이어도사나 처라 베겨 처라쳐라
 우리배에 서낭님아 우리잠수가는디랑
 앞발르곡 뒤발라줍서²⁰³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처라 베겨 처라쳐라
 설룬어멍 나날적에 영화를 볼려고 나를 낚는데
 이어도사나 처라 베겨
 손에깅이 박아가멍 울돌목을 냉겨가자
 이어도사나 처라 베겨 처라쳐라 처라쳐라
 우리인생 살다보난 요바당에 은광금을 따내여근
 우리살림 아덜똥 공부시기멍
 요물질호영 돈벌었구나 히잇
 이어도사나 처라 베겨 요왕님아 서낭님아
 우리배 가는데 잠수가는디 여긔존딜로 물건존딜로 가게흡서
 이어도사나 처라 베겨 처라쳐라 요네상척 젓어보라

203 앞뒤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놈의고대랑 아기랑배영 허리지덕 배지덕마라
 열두신빼 실랑거렁²⁰⁴ 요네상척 젓어보라
 처라베겨 처라쳐라
 울돌목이 올라온다 처라 베겨 처라쳐라
 앞닷노라

이여도싸나 허어	이여도싸나 허어
이여도싸나 히	쳐라베겨
요네를젓엉 으	어디로가리 히
진도바당 흐	글로나가져 히
이여도싸나 하아	이여도싸나 하아
이여도싸나 흐으	이여도싸나 히

이물에랑 으흐	이사공아 허어
고물에랑 으흐	고사공아 히
허릿대밋디 으흐	화장아야 하
물때점점 어허	늦어나진다 히
이여도차라 히	이여도싸나 하
이여도싸나 하	이여도싸나 하
이네줍수털아 흐	물질준빌 ²⁰⁵ 허어
어서흥자 어어	흔 착손에 흐으
두렁박들런 ²⁰⁶ 어허	흔 착손에 흐으

204 열두 뼈마디를 움직여서

205 물질도구는 개날에 준비를 하면 좋다고 한다

206 테왁

호미를들린 히
들어가민 이히
진복을딸까 하
이여도싸나 에에

혼자두자 이히
메역을캘까 아하
이여도싸나 에에
이여도싸나 히

요네상척 어허
한로산에 에헤
엇일소나 히
이여도사나 어허
이여도사나 히

부러지민 어허
곧은목이 히
이여도차라 히
이여도사나 어허

요벤드레 에헤
부산항구 흐으
엇일소나 흐흐
쳐라도베겨 히
이여도사나 허어

끓어지민 어허
노프줄이 히
이여도사나 히
이여도사나 허어
이여도사나 히

눔의고대랑 아허
허리지닥 어허
열두신빼 히
요네상척 히이
헤친듯이 히
지여라베겨 히

아기랑베영 어허
베지닥말앙 어허
들랑거려 히
양꿏잡앙 아하
쳐라베겨 히
이여도하라

요물아래 어허

은과금은 흐흐

쫄 렸건만 으흐	높은낭게 히
올매 ²⁰⁷ 로다 으흐	이여도싸나 아하
이여도싸나 히	쳐라베겨
쳐라베겨	

김태매는 조천읍 북촌리에서 유난히 노래를 잘했던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천부적인 소질을 이어받아 3남 3녀 중 둘째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제주도 민요 가창자 중에서 여성노동요를 잘 부르는 상징적 존재로 인정받아 왔다. 김태매류의 제주여성노동요인 ‘해녀노래’, ‘망건노래’ 등 4수의 대상기능인으로서 2002년에 제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제주시 건입동 산지포가 고향인 어머니에게서 어렸을 적부터 배워 익힌 해녀노래와 더불어 망건, 망건을 걸으면서 불렀던 관망노동요는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잘했다.

그녀는 밤이면 망건이나 망건을 걸고 낮에는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머니의 소리와 함께했다. 바다에 가서 물질 작업을 주로 했는데 조천읍 북촌리 다려도에 물질 갈 때 불렀던 ‘해녀 노 짓는 소리’는 제주의 해녀노래 중에서도 으뜸이었다.

열세 살 때부터 물질을 배워 ‘애기상군’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속초, 울산에 초용으로 출가물질 가고 스무 살 나던 해에 해방을 맞았다. 해방 전까지는 강원도, 구룡포, 거제도, 장진, 대진, 속초, 원산, 청진, 평양 등 38선 이북으로까지 해녀들을 인솔하여 작업을 다녀왔으며 북촌해녀들 30명을 모집하여 거제도, 구룡포 등지로 10년 동안 인솔자 역을 담당했다. 조사팀은 함경북도 청진까지 물질 다녀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당시 청진에는 해녀들이 300명 정도 있었는데, ‘어대진’ 까지 종종 물질을 가지. 물질을 하면 내가 1등을 했어.”

청진에서는 구좌읍 김녕리 사공과 함께 가서 ‘곤포’ 작업을 두루 했다. 깊은 바다 먹돌 위에는 ‘곤포’ 해초가 두세 발이나 되어 수면 위를 기어다니듯이 나풀거렸다. 작은 소형배인 뱀마선을 이용하여 작업한 후 모래 위에 널어 말렸다.



김태매 해녀가출가물질 간 지역

열여섯, 열일곱 되는 해에는 북한 원산 가까이 있는 통천(고저)에서 ‘물래물’ 섬까지 가서 물질 작업을 했다. 주로 천초와 전복을 캐었는데 물속에는 전복이 아주 많았다. 미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길고 좋아 길쭉하고 넓은 미역인 장괵(長藿)으로 말려 열 개씩 묶어서 저장해두었다가 팔곤 했다. 여기서는 우도 출신의 해녀들과 서촌 해녀들이 같이 생활했는데 서촌 사람들은 순해서 성품이 좋았다고 한다.

열여덟 시집가던 해에는 어대진에서 작업하

먼서 한 시간 정도 배질을 하여 청진으로 들어가서 조천읍 북촌에서 같이 간 해녀들과 함께 성계 작업을 했다. 성계는 ‘이면수’ 라는 물고기 잡이의 미끼로 쓰였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세 망사리 잡는 동안 태매는 다섯 망사리를 잡았다. 이처럼 작업 잘하기로 소문이 나서 어대진에서는 그녀를 데려가서 작업시키려고 푸대쌈하러 청진까지 올 정도였다.

홍남 지역에 숨(말뚝성계)이 많이 난다고 해서 배 선장이 부추겼다. 바다 밑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숨을 물속에 들어가 줍다시피 해서 자루에 담아, 스무 사람이 하루 종일 알(은단)을 고르니 두 말짜리 통이 가득했다. 상어가 사람을 해쳐서 죽을 수 있다고 말렸지만 막무가내로 작업해서 7일 동안 일곱 통을 캐내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나자 빠질 정도였다고 한다.

원산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캐내어 팔린 미역은 평양으로 가지고 가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보초병들에게 막걸리를 사주면서 38선을 통과한 적이 있어 한때 ‘막걸리 아지망’으로 통하기도 했다.

당시 평양에는 사촌이 모란봉 앞에서 비단 장사를 하고 있었다. 사촌은 그 곳에 있는 행수기생을 소개해 주었는데,



1970년대 물질작업 모습(위)과 제주칠머리당영등굿에서 노래 부르는 김태매(아래)

태매가 ‘청춘가’를 부르자 너무나 놀라면서 같이 그곳에 남아 살자고 종용했다. 태매는 극구 사절하고서 양단과 유동치마, 그리고 돈을 한 움큼 받아 남쪽으로 넘어왔다. 38선 휴전선에 근무하는 경비병들의 경계를 넘기 위해 걱정하던 차에 백발노인이 꿈속에서 나타나 빨리 일어나도록 깨워서 작은 배를 이용하여 10리 밖 주문진까지 도망친 적도 있었다.

“해녀 일처럼 야박한 게 없어…….” 이 말은 해녀의 삶이 고되다는 표현이다.

제주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서 다시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강원도 통천(고저)으로 가려면 차(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평안남도 원산으로 가려면 두 번, 다시 함경북도 청진으로 가려면 세 번씩이나 차를 바꿔 타야 했다.

열여섯부터 스물여섯까지 해녀들을 모집하여 출가물질 인솔자로 역할



해녀시절 받은 표창패(1984년)



항토 문화유산 지정서(2002년)

을 했고, 다시 제주로 돌아와서 산지 어촌계에서 작업하면서 50년간 회장 일을 역임했다.

또 해녀물질을 하거나 육지부로 출가물질 나가면서 노를 저을 때는 선창자로 소리를 메겼으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주 단골이면서 행사를 주관하는 제주시 건입동 산지어촌계 해녀회장으로 행사 때마다 ‘해녀노래’ 공연을 했다.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불렀던 농업노동요와 ‘이야흥’ 등 통속민요도 남다르게 잘한다.

그리고 노래 부르는 일을 즐겨 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김주옥 씨와 동김녕리의 김정성 씨와 함께 공연을 다닐 적마다 많은 찬사를 받았다.

제주민요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 현재도 여러 민요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고령의 나이에 불구하고 건입동 풍물패와 해녀회를 이끌어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딸 고은희 씨가 어머니의 노래를 전수하고 있다.

10. 이여수 - 신 해녀노래²⁰⁸

■ 신 해녀노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어어어
이여도사나 여차여차
이여도 음음음
이여도사나 여차
요넬젓엉 어틸가리
음음음
진도바탕 콜로나가자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쳐라쳐라 여차여차
이여도사나
허릿대밑에 화장아야
물때나 점점 늦어나간다
어어 이여도사나 쳐라쳐라



이여수 씨

208 이여수(1926년생)/ 자료조사일: 2001년 7월 11일

이어도사나 좋다좋다
 간다간다 나는간다
 아아 물에들레 나는간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여차여차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음음
 이어도사나 어허어어
 차라차라 잘도간다
 우리배는 쑥대남²⁰⁹배여
 사공만으시도²¹⁰ 잘도간다
 이어도사나 어허어 여차
 우리 어머니 날 날때에
 제주바당 폐역국먹언
 날나신고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아아아
 이어도사나 어허어
 이어도사나 차라 차
 잘도간다 여차여차
 요넬젓엉 어딜가리
 진도바당 어허어
 콜로나가자 음음
 이어도사나 차라차

209 삼나무

210 사공 없어도

잘도간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음음음
 허릿대²¹¹밑에 화장아²¹²야
 아아 물때나 점점 어허
 늦어나간다 이어도사나 차라차
 이어도사나 여차여차
 이어도사나 음음음
 이어도사나 어허어
 이어도사나 음음음
 허릿대밑에 화장아야
 물때나 점점 늦어나간다
 어허어 이어도사나
 차라차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쿵작
 우리 어머니 날날적에
 제주바당 어허어
 메역국 먹으멍
 날났는가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물로뽕뽕 둘러싼 섬에²¹³
 삼시끓엉 물질호영 번 돈²¹⁴

211 배의 허리칸에 있는 돛대

212 배의 식사를 담당하는 일꾼

213 물로 빙빙 둘러싸인 섬에

214 삼시 세끼 끓으면서 물질을 하여 번 돈

서방님 술잔에 다 들어간다
 이어도사나 어도사나 처라처라
 이어도사나 여차여차
 우리배는 쑥대남배여²¹⁵
 사공만으시도 잘도간다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처라쳐 이여도사나
 잘도간다 이여도사나
 간다간다 나는가요
 물에들레²¹⁶ 나는간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아아아 이어도사나
 여차여차 어떤 사름은 팔즈²¹⁷가 좋앙
 고대광실 높은집에
 에-물질 아니 흥여도
 잘사느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아아아
 이어도사나 음음음
 아아아 이어도사나
 음음음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어허어

215 삼나무배여

216 물에 들어가기 위해

217 팔자

이어도사나 처라차
 잘도간다 여차여차
 이어도사나 요벨젓엉
 어딜가리 진도바당 어허어
 골로나가자 어허어허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어허어 이어도사나
 어허어 이어도사나
 여차여차
 허릿대밑에 화장아야
 물때나 점점 늦어나간다
 이어도사나 차라차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아아
 요내인생 기박흥여
 물에들멍 살겠느냐
 허망흥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처라차
 이어도사나 처라차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여차여차 우리어머니
 날날적엔 뎡난날에²¹⁸
 뎡난시에 날났주마는

218 남이 태어난날에

신 해녀노래는 원래 노동요인 해녀노래 사설에서 춤을 위해 음악을 편곡하여 유희요로 전환한 새로운 형식의 노래이다. 노동요인 해녀노래에 비해서 곡조가 아름답고 흥겨워서 춤곡으로 알맞다.

해녀노래는 노동요이기 때문에 춤을 추기에는 박자와 곡조가 맞지 않아 이여수는 고정형인 해녀노래 가사를 지키면서 음곡을 편곡했다. 이 편곡된 노래는 1971년도에 전주에서 열린 제12회 전국민속경연대회 때 다시 ‘해녀놀이’ 공연에서 선을 보이게 되었는데, 당시 춤을 추었던 김희숙(당시 개인상을 받음) 씨에 의해 자주 해녀춤에 쓰이게 되고 기존의 노동요와는 다른 새로운 해녀노래가 유행하게 되었다.

이여수는 제주시 도두에서 태어났다. 마을에서 노래를 잘한다고 이름이 있던 어머니(고 안영인)를 따라서 조와 보리농사를 지었다. 제주에서는 음력 6월경이면 조를 파종하고 ‘밭밟는 소리’를 하면서 조 밭을 밟기도 하고 콩 밭에 가서 김을 매었다. 밭에서 돌아오면 저녁에는 땃돌을 이용해서 보리나 밀을 찧고 뿔아야 했다. 바쁜 와중의 힘든 노동 속에서도 이여수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동네 직공기(레코드 축음기)가 있는 집에 놀러 갔다. 한때 도두에는 박문수 씨 집에 축음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와 놀곤 했다. 여수가 음악을 듣고 노는 것을 구경하러 놀러 가면 키가 작다고 쪼쌀방울만 한 것이 왔다고 내쫓았다.

결혼한 시댁은 제주시 남문통으로 대농사를 짓는 부농이었다. 오드싱 고산동산에 3,000평 정도의 땅이 시집 농경지여서 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보리, 조 농사를 주로 했다. 친정 어머니와 같이 짓던 농사를 시어머니와 같이 하게 된 것이다. 남편은 해방 전에 망우대²¹⁹에 근무를 했다.

민요를 접하고 공연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송근우, 이석범, 송석범 씨와

219비행기 관제소



도두동바다 '골체올래'

함께 경복궁에 가서 이야흥, 오돌또기, 해녀노래를 부른 것이 첫 기회가 되었고 차츰 소리꾼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한라문화제 행사 때 용담동 대표로 다시 해녀노래를 불러서 1등상을 받은 것이 활동의 주된 동기다. 또 1969년 대구에서 열린 제10회 전국민속경연대회 때 남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대구공설운동장에 가서 해녀춤과 노래를 구성해서 '해녀놀이'를 했다. 공연 결과

는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탔고 공연을 구성하고 참여했던 양인생 씨와 송근우 씨가 개인상을 받았다. 다시 1976년 제17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김주옥, 김명자(이호동 출신, 재일본), 고수선 씨와 함께 해녀노래를 불렀다. 한동안 일본에 거주했기 때문에 민요를 부를 기회는 거의 없었다. 일본에서 돌아온 후 한라문화제 때 제주시 건입동에서 '만덕할망' 가장행렬이 있었는데 기생 역을 담당하여 '해녀노래' 뿐만 아니라 제주 민요들을 다시 부를 기회가 생겼다. 그녀는 해녀로서의 물질 작업은 전혀 해보지 않았으나 해녀노래를 부르는 대표적인 가수로 활동하고 춤을 위하여 춤곡으로 편곡을 한 것이다.

11. 정태숙 - 서귀포시 안덕면대평리 해녀노래²²⁰

이어싸	이어도사나
이어싸	우리어멍
날날적의	어느바당
미역국먹언	나를난고
이어싸	안녀밧녀
숨은녀로	감아들멍
흐시라고	나를난가
이어싸	이어도사나
고라사사	어기야뒤야
잘넘어간다	이어싸
썰물나민	동의바당
들물 ²²¹ 나민	서의바당
요벤드레 ²²²	인천항구
지름줄이	어디가고
없을소냐	이어싸



정태숙 해녀

²²⁰ 정태숙(1922년생)/자료조사일: 2010년 2월5일

²²¹ 밀물

²²² 낚싯거루의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배 멩예와 노손을 묶어놓은 밧줄

요네상착 ²²³	부서지면
부산항구	곶은남이
어디가고	없을소냐
고라사사	므루므루 ²²⁴
당겨나보자	이어싸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허릿대 ²²⁵ 밧디	이사공아
물때나 점점	늦어나가네
저산천의	푸쑤새는
왔다갔다	흔건마는
초로야같은	우리인생
다시나오기	만무하다
어야뒤야	
대천바당	한가운데
불휘없는 ²²⁶	나무가나서
가지도 열둘이여	있는 보난
삼백예순	그냥에 열매가 열안
일월이라	볼 수 있나
이어도사나	이어싸
서낭님 ²²⁷	수덕좋은 ²²⁸

223 상책, 노의 상반부를 말함

224 물마루로, 길게 늘어져 다가오는 파도의 등성이

225 배의 허리칸에 세운 돛대

226 뿌리 없는

서낭님아	서낭님아
구제기 ²²⁹ 전복	좋은여로
나수아봄서	전의전짝
대마도산천	사수나로
이시도마리	흔데들러
다돌아오면서	언제나 동동 칠월
어장팔월	돌아나오면
우리고향	환고향으로
들어나오는구나	어기야뒤야
고라사사	당케돈지 금돈지여
고라사야	이여도사야
간다간다	나는간다.
대마도산천	잘있거라
땡년이철	돌아오면
다시나흔번	상봉이여

해녀노래는 제주바다에서만 불리지 않고 출가물질을 간 육지 지역이나 일본 대마도(쓰시마)에서도 불렸다. 출가 해녀들은 3월에 제주 땅을 떠나 8월 추석이 가까워 올 때까지 출가지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제2의 고향이 되었다.

배로 일정 지역까지 노를 저으면서 그녀들은 제주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래를 불렀다. 마치 집을 떠난 철새처럼 이동하면서 물질노동의 고통과

²²⁷ 어업과 해녀작업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²²⁸ 마음씨 좋은

²²⁹ 소라



마을 입구에서 본대평리

향수를 노래를 통해 달래었다. 노래는 힘찬 기백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주 해녀들의 기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정태숙은 안덕면 대평리의 여느 해녀들처럼 일본 대마도, 강원도 삼척 그리고 금강산을 가 볼 기회가 있었다. 그것은 출가물질 해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특히 대마도에는 열일곱 살적부터 스물세 살이 될 때까지 물질을 다녔는데 당시 거기에는 일본 해녀들이 없어서 주로 제주에서 데려간 해녀들이 소라나 전복을 잡았다.

물질작업은 ‘농투선’이라는 배를 이용한 뱃물질을 주로 했다. 배에는 발동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해녀들이 직접 노를 저어서 바다로 나가 작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배는 늘 바다 위에 떠 있었는데 작업은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 이어졌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먹었고 식사로 쓰는 식량은 제주도에서 가지고 간 보리, 좁쌀, 고구마 말린 것과 그것을 빵은 가루가 주었다.

날씨가 추우면 배 위에 불을 피워 한두 시간 작업하고 배 위로 올라와서 몸을 녹이려고 하면 사공과 뱃주인은 빨리 내려가 작업하라고 등을 떠밀곤 했다.

정태숙의 숙부인 정두석 어른은 일본 대마도(쓰시마)에 가서 바당(浦)를 사고 해마다 제주의 해녀들을 불렀다. 뱃사공과 함께 대평리 해녀는 10명쯤 그리고 대정읍 가파도 해녀와 안덕면 사계리, 한림읍 한림리, 한경면 고산리 해녀들도 같이 끼었다. 주로 3월에 가서 추석 때까지 작업하고 또



박수 앞해녀노래 공연장

미역 작업을 하게 되면 9월까지 머물렀다. 이곳에서는 따로 물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날씨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매일 작업했다. 보통 한 달이면 10일에서 15일정도 작업했다.

잡은 소리를 지역민들과 부식으로 바꿔 먹기도 하고 또 전복 껍질을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이를 땀나무인 장작이나 호박 같은 야채와 바꾸어 먹곤 했다.

정태숙은 열여덟 살 때 강원도 물질에서 한 해에 명주와 광복 한 통 값을 벌어 시집가는 혼숫감으로 삼을 수 있었다. 특히 대마도(쓰시마) 물질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 해에 60원에서 80원까지 벌고 자신이 번 돈은 부모에게 드리거나 살림에 보태었다. 그런데 남동생이 무역선 남양호 침몰 때 사고를 당해서 순직했기 때문에 바다가 너무 무서워 다시는 물질하고 싶지 않아 태숙은 물질을 일찍 그만두어야 했다.

12. 명창 박순재 - 해녀놀이요²³⁰

해녀들이 태왁 장단에 맞추어 놀거나 혹은 무대 공연을 위해 춤곡 형태로 만들어진 유희요를 ‘해녀놀이요’ 라고 한다. 음악은 흥겹고 노래 가사에는 해녀들의 삶이 잘 표출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놀이의 흥을 돋우기 위해 느리고 빠른 ‘서우젯소리’ 를 부른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잘도 간다 저어라 저어라(후렴)

요 넬저어 내 어딜가리 진도바당 혼골로 가자

(후렴)저어라 배겨라 쿵쿵지어라

이물에는 이 사공놀고 고물에는 고사공이 논다

허리띠 밑에 화장아야²³¹ 물때 점점 다 늦어간다

물로 뱅뱅 돌아진 섬에 먹으나 굶으나 요 물질허영

한푼 두푼 모여논 금전이 낭군님 술값에 다 들어간다.

한쪽 손에 비창을 들고 또 한쪽 손에 태왁을 지영

칠성판을 등에다 지고 혼질두질 들어간 보난 저승도²³²



명창 박순재씨

²³⁰ 박순재(1947년생)/자료조사일: 2010년 1월15일

²³¹ 배 뒤에서 불을담당한아이

²³² 저승으로 가는 길

가 분명하다

요 노작이 부러지면 한라산에 올곧은 나무가 없을말가

노방에 끈이 끊어지면 선흘곳이 물정당줄이 없을말가

우리배는 참나무배여 남의 배는 썩은 나무 덕덜이요

높이고대 애기랑 배영 허리지닥 배지닥 말고

열두신빼 설랑거렁²³³ 짓어나 보라 아~

저 바당에 저 군함아 궁굴털테로 궁굴려줍써

우리잡은 짓거리²³⁴로 배는 짓어 가는구나

저 산천에 풀잎새는 해년마다 푸릇푸릇 젊어야 오고

우리네 인생은 해년마다 소곡소곡 다 늙어간다

요물아래²³⁵은과 금은 천태만태 깔렸건만

높은 낭에²³⁶ 열매로구나

요강산이 뭐시좋아 도람들멍²³⁷ 나 여기왔다

여끝 돌끝에 내 눈물이여

한숨을 쉬면 동남풍되고 눈물을 흘리면 한강수여

옛날옛적 해천영업²³⁸ 내임자야 어딜가고 아니나오나

천년이 가도 원수로구나 만년이 가도 원수로구나

우리 어멍 날 설앙 날때²³⁹ 손에 팽이 매길려고²⁴⁰ 날 납데강

233 열두 뼈를 움직여서

234 배의 옆거리

235 이 물 아래

236 높은 나무의

237 돌아 들면서

238 하루 종일 영업해서

239 생겨날 때

240 손에 공이 지우려고

박순재는 열세 살부터 아기상군으로 불릴 정도로 물질작업이 뛰어났고 우미, 미역을 작업하였으며 채취한 소라는 반찬으로 사용했다. 울산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출가물질은 주로 그곳에서 했다. 첫 출가물질은 열여덟 살 되던 해 3월 울산 용잠동으로 갔는데, 고향사람이었던 전주 한무섭 씨 댁에 방을 빌어서 5~6명씩 숙식하며 우미 일반초를 켰다. 보통 해녀들이 캔 것은 선주와 해녀가 3:7로 분배를 했으며 소개자는 해녀로부터 10%를 받았다.

울산 용잠동에서는 주로 노젓는 배를 타고 작업을 했다. 배에는 7~8명이 탔으며 해녀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었다.

2월 그믐경에 물질을 가서 미역, 전복, 성게 등을 작업했고 소꼴을 벨 무렵인 8월에 돌아와 꼴을 벨 후 9월에 다시 돌아가서 ‘양장구’ 작업을 했다. 겨울이 들면 제주에서 4개월을 지내거나 ‘해묵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질작업을 할 때는 울산 대현면이나 신포, 방어진, 목도, 용잠네는 한꺼번에 날을 정해서 작업하는 일정한 구역이 있고 각각의 구역은 그 외의 날을 정해서 한다.

‘신마정’(신을 맞이한 것과 같은)이라는 기간은 보통 7월에서 8월로 여름의 더운 날씨인데도 물 위는 따뜻하나 물 밑은 찬 기간을 말한다. 이때 작업이 끝나면 구룡포 전주의 인술하에 열 사람이 ‘술머리’라는 곳으로 간다.

‘술머리’ 바다는 얕아 보이지만 깊은 바다였다. 이곳에서는 ‘이반초’ 작업을 했다. 가지고 간 보리쌀과 좁쌀로 밥을 해서 먹고 일기가 좋으면 물에서 작업하고 나무장작을 마련해 불을 때서 밥을 지어먹었다. 부식이라고는 된장밖에 없었다.

열여덟에서 스무 살 무렵에 출가물질로 구룡포에 갔다. 지금은 정유공장이 들어서서 과거에 물질했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울산, 장생포, 용잠, 용신네, 신포에도 작업을 갔다. 당시 그곳에서 해녀 권익옹호에 힘썼던

김정희 씨 추천으로 물질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독도에까지 물질 가서 미역작업을 한 적도 있다.

출가물질의 경로를 보면 보리쌀, 좁쌀, 자리젓, 담요, 이불 등을 싸서 도라지호나 제주호를 타고 간 후에 버스를 타고 간다. 짐 실은 배는 직접 장생포로 오는데 먼저 가서 기다리다가 화물을 찾은 후 노 젓는 배에 싣고서 용잠동으로 간다.

이곳은 외진 곳으로 차도 거의 없었다. 몇 년이 지난 이후에야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버스가 다녔다. 용잠동에서는 들판 위에 나는 ‘험냉이풀’을 스무 망사리씩 따내었다. 1년 버는 돈은 상군인 경우는 3만 원, 중군은 1만 5천 원이다. 현찰을 도난당할까봐 박으로 만든 ‘꼭’ 테왁 속에 넣어 숨기고 배에서 잠을 잘 때는 베개 삼아 머리 밑에 넣었다.



김녕리 '한개' 어장

고향인 김녕 동네에서는 “우리 딸 돈 하영 벌엉 왔저.”하고 소문이 났다. 열여덟 되는 해에 제주에 와서 약혼을 했다. 약혼 후에도 계속 물질을 하고 스물네 살에 아들을 낳은 후에도 아기를 데리고 울산으로 물질 간 적이 있었다. 제주에서 천초 작업을 할 때는 태왁 두 개를 이용하여 작업하는데, ‘고래상군’, ‘고래쟁이’ 라는 호칭을 받은 적이 있다.

제주시 산지항에서 구좌읍 대표로 물질경연대회에 참석하여 ‘물속에서 오래 숨비기’, ‘빨리 물건 많이 따기’ 에서 일등을 하고 광목 두 통, 쌀 한 가마니를 상금으로 받았다. 물질해서 번 돈으로 신랑과 동생을 대학까지 공부시킨 것이 큰 보람이라고 한다.

구좌읍 출신으로 과거 김녕리에서 ‘멀치후리는 노래’ 를 잘 불렀던 박순재 어머니인 고 양승옥 씨가 (주)브리태니커사에서 녹음한 노래는 전국적으로도 아주 유명했다. 노래를 잘 하시던 어머니가 1984년에 갑자기 타계하면서 자식인 박순재에게나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바로 전 해에 별나게도 딸에게 제주민요를 배우라고 종용했다. 그해 농업, 어업 노동요 외에도 여러 창민

요와 ‘뱃 불리는 소리’, ‘방애짚는 소리’, ‘ㄱ레ㄱ는 소리’, ‘오돌또기’, ‘이야흥’, ‘너녕나녕’ 등 많은 노래를 전수 받을 수 있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제주 민요를 계속 연습하여 익히기 시작했고, 1988년 전국민요경창대회에서 ‘멀치후리는 소리’ 로 우수상을 받고, 1989년에 ‘영주십경’ 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공연 후 단원들과 함께(왼쪽에서 다섯 번째 박단장)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된 제주민요 명창이었던 김주옥, 양승옥, 김녕리의 김순녀 세 분과는 의리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으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러한 인연으로 박순재는 김주옥 씨에게서 한 달 정도 ‘밧블리는 소리’, ‘영주십경’, ‘흥애기’를 배울 수 있었다.

한편 그녀는 제주도의 소리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라져 가는 것을 아쉬워하여 1991년에 탐라예술단을 창단했다. 회원수는 현재 70명 정도이며 매일 단원들이 편한 시간에 와서 연습한다. 지속적인 연습과 공연에 임하는 회원은 20명 정도다. 그동안의 예술단 활동도 아주 활발하다. 1991년부터 한라문화제에 참가하여 상을 휩쓸었으며 전국무속경연대회 우수상(1996), 전도민요경창대회 최우수상(1996), 김녕리 대표 최우수상(1999)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2001년 5월 26일에 국립민속박물관 초청으로 경복궁에서 공연을 했는데, 제주의 노동요 ‘도깨질소리’, ‘김매는 소리’ 등의 노동요와 창민요도 공연했다. 현재는 구좌읍 민요동아리, 세화리 주민자치센터, 남읍초등학교 등에서 민요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공연 사진과 상장들



13. 강경자 - 출가해녀의 노래

■ 출가해녀의 노래 작사자 고 이영근²⁴¹

출가해녀의 노래는 안덕면 대평리 출신 고 이영근 씨가 창작한 작품으로 대평리의 해녀들에 의해 전해져 왔다. 고 이영근 씨는 고향 마을 해녀분들이 출가 물질을 갈 때 이별의 아픔을 달래면서 창작하였고, 해녀들은 창부타령 곡조에 맞춰 불렀다. 그리고 부인 고송자(1940년생)의 증언에 따르면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곤 했다고 한다.



고 이영근선생

그리고 “육지에 물질 가는 해녀들을 따라가서 물질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해녀들의 애환을 담아 글로 표현하였다.”고 전해진다.

고 이영근 씨는 안덕면 대평리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육지로 이사 간 후 전주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6·25사변을 겪고 고향 안덕으로 돌아와 대정고등학교를 졸업, 바로 제주대 국문학과에 다니게 된다. 그는

241 자료조사일: 2009년 11월 9일

문학성이 뛰어나고 글쓰기를 좋아했으며 고향에 계신 해녀분들을 누님 삼아 다정하게 지내면서 늘 해녀분들의 작업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노래 가사에는 출가 생활의 어려움과 육지로 물질 간 해녀들의 신세 한탄, 고향생각,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 해녀들의 정서가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다.

■ 제주해녀의 출가물질

출가(出稼)물질은 해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제주가 아닌 한반도나 일본 등지의 어장에 가서 작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주해녀들의 출가는 1900년대 초부터 이루어졌는데, 직접적인 동기는 일본 잠수기업자들이 들어오면서 전복 등 많은 해산물을 잡아 물건이 줄어들고, 직접 채취한 해산물의 판매로 자신들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물질에 대한 노동 경제적 가치 인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한반도나 일본 등과의 외부 세계망 형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제주해녀들은 1895년 경상남도로 첫 출가를 한 후 강원도, 전라도, 경상북도, 함경도 등에 지속적으로 나갔으며, 일본에는 1903년 미야케지마(三宅島)를 시작으로 대마도, 고치, 가고시마, 동경, 나가사키, 시즈오카, 지바, 에히메 등지로 나갔다고 전한다.

1930년경에는 4,000여 명의 해녀들이 3월경에 집을 떠나 추석이 가까워오면 돈을 벌고 제주로 들어오고, 출가물질에서 번 돈은 가정경제의 버팀목이었을 뿐 아니라 제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다.

마쓰다이 치지(柵田一二)의 「제주도연구(濟州島海女)」에 따르면 일본에 출가한 제주해녀들은 이세 및 일본 아마(海女)들에 비해서 노동임금이 저렴하고 능률이 비교적 높고 추위에 강해서 일본 업자들이 선호했으며,

1932년경에는 1,600명이 되었는데 고용관계에 따른 자가 많았다고 한다. 쓰시마를 제외하고는 오사카 경유가 대부분이었다. 1922년부터 출항한 군대환(기미가요마루)을 타고서 오사카 등지에서 내린 후 기선이나 철도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현재 에히메현(愛媛県) 미사키초(三崎町)에는 당시 6월부터 10월에 걸쳐 천초를 캐면서 작업할 때 날인한 인장부가 남아 있다.

또 한반도인 경남, 경북, 전남, 전북과 대마도 등지로는 대부분 5톤의 범선을 이용하여 15~20인의 해녀가 배에 타고 사공과 해녀들이 노를 저으면서 물질을 떠났다. 이때 해녀들은 배의 노를 저으면서 ‘해녀 노 젓는 소리’를 했고 그곳에서 타향살이의 향수를 달래려고 서로 모여서 놀 때도 이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에는 해녀들의 삶 전반이 잘 표출되고 있다.

외지에서의 물질은 쉬운 것이 아니어서 해녀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입어권 획득을 위한 노력과 함께 분쟁의 역사도 전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감포, 양포, 구룡포, 대보는 1954년부터 경북지구에 대한 재정으로, 제주해녀 1,070명만이 물질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이 확정된 적도 있었다.

제주도 바닷가 마을별로 한 마을에서 30명에서 많으면 80명씩 구좌,



안덕면대평리 해녀들의물질작업

표선, 남원, 서귀포 해녀들을 모집하여 풍선 또는 발동선을 타고 치좁쌀, 보리쌀, 된장, 콩잎 등 먹을 것을 싸고 가 몇 사람씩 모여서 집을 임대하여 숙식을 하고 자신들이 잡은 해산물을 부식으로 바꿔 먹곤 했다.

주로 따는 해산물로는 전북과 소라, 미역, 천초 등으로 미역인 경우는 어장을 공매한 ‘곽주’ 혹은 ‘곽암주’ 라고 하

는 임자와 계약을 하고 생산량 중 곱주는 8할 그리고 해녀는 2할을 배당받았다. ‘지선훈녀’, ‘지방해녀’ 라고 하는 육지부의 해녀들과 함께 서로 공존하며 자신들의 문화권을 넓혔고 지선훈녀들은 제주해녀들을 통해 물질 기술 등을 익혀 나갔다.

출가해녀의 노래

이날저날	날가려서
삼산오오	짜을지어
가네가네	육지가네
고향산천	뒤에두고
정든사람	이별하고
부모형제	이별하여
버스타고	연락선타고
잠시나마	고향떠나
돈벌러	떠나가네
떠나가는	우리인들
오죽이나	속상하여
인간세상	슬픈일이
이별인줄	왜모를까

이별중에	생이별로
이런곳이	어데라고
낮도설고	물도선타
누굴보아	오고가리

불쌍할사	우리해녀
요때한번	못놀고서
손가락질	받아가며
이런고생	하는신세
슬프고나	해녀몸이
푸른바다	지붕삼고
흔백상지	등에지고
한손에는	빗창들고
한손에는	호미를쥐어
석질넉질	깊은물에
물숨참고	들어갈제
저승도가	아니던가

간장간장	열두간장
열두간장	다녹일때
테왁끓고	물에떠서
생각생각	고향생각
생각생각	부모생각
칠년대한	가문날에
빗줄같이	보고싶어
눈에송송	귀에쟁쟁
고향부모	간절하여
내설음에	내가울고
내신세에	한숨쉬는
해녀몸이	한이로다

높고푸른	청청하늘
무심히도	바라보니
우리고향	향하여서
외기러기	날아가네
날아가는	저기러기야
우리고향	가거들랑
우리부모	앞에가서
우리소식	전해다오

■ ‘해녀노래’ 전수장학생 강경자²⁴²

출가해녀의 노래를 잘 부르는 강경자 씨는 「송죽예술단」에서 단원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활동하면서 제주민요와 경기창을 배웠다. 어렸을 적부터 동복리의 명창이었던 어머니 신사순에게 해녀노래를 비롯하여 제주민요와 창민요 혹은 타령류를 배웠다. 당시는 결혼식 뒤풀이라든가 경사일이 있으면 놀이판을 열었는데 창민요 역시 어머니를 따라 놀러 다니면서 어깨너머 배운 것이다.

스물네 살 때에 함덕으로 시집와서 본격적으로 노래 공부를 시작했다. 「삼



사라예술단 단원들

²⁴² 강경자(1946년생)/ 자료조사일: 2009년 10월 1일



강경자씨 해녀노래 공연가운데



찾아가는 해녀노래 교육

다예술단)에 와 있던 홍금란 선생으로부터 2년 정도 경기민요를 배운 후 양로원 등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다가 송죽예술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죽예술단에는 30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배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으로는 오돌또기, 이야홍, 너영나영, 서우젯소리, 해녀노래, 망건소리 등의 제주민요다.

강경자 씨는 제주민요가 너무 노동요 위주이고 흥이 덜 살아나서 새로운 리듬과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는 민요의 재생산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경서도 민요와 제주도 민요의 가창에 있어서 그 차이는 제주민요는 소리만 되면 누구라도 쉽게 익힐 수 있는 선율과 가락으로 자연스럽다고 한다.

2007년부터 해녀노래 전수 장학생으로 해녀박물관에서 진행된 해녀노래 교육에서 이 노래를 익히고 또한 교육생들

에게 가르쳤다.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어업노동요를 교육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해녀노래 보유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공연을 펼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대행, 「제주도 민요의 노래인식」, 『제주도 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 김영돈, 『제주의 민요』, 제주도, 1992.
- ,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 현용준, 『한국구비문학대계(9-1)(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981.
- , 「제주도 민요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3.
- , 『제주도 민요 연구(상)』, 일조각, 1981.
- 문무병, 「제주도의 해신신앙」, 『민속학 국제학술회의(3회) 요지집』, 민속학회, 1999.
-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 민요해설집)』, 1992.
- 변성구, 「해녀노래의 사설 유형 분석」, 『제주문화연구』, 경신인쇄사, 1993.
- 유철인, 「濟州 海女の 몸과 技術에 대한 文化的 접근」, 『민속학 국제학술회의(3회) 요지집』, 민속학회, 1999.
- 조혜정, 『한국의 남성과 여성』, 문학과 지성사, 1998.
- 좌혜경, 『민요시학연구』, 국학자료원, 1996.
- , 『제주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1995.
- , 「제주여성과 민요」, 『韓國民俗學報』 제11호, 한국민속학회, 2000.
- , 「제주해녀노래의 생산과 수용」, 『깨어나는 제주 여성의 역사』,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제주도, 2001.
- , 『한국, 제주, 오끼나와 민요민속론』, 푸른사상, 2000.
- 한창훈, 「제주민요와 여성 11」, 『민속학 국제학술회의(3회) 요지집』, 민속학회, 1999.
- 현용준, 「악마 회고」, 『연암현평호박사회갑기념논총』, 1980.
- 현춘식, 「제주도의 민속예술」, 『제주도지』 제79호, 제주도, 1986.
- David W. Plath, *Fit Surroundings*, 「해양문명사에서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 제1회 세계잠녀학술회의 발표요지」, 제주도, 2002.
- 泉靖一, 『濟州道』, 東京: 東京大出版會, 1966.
- 吉田敬市, 『朝鮮水産開發史』, 日本: 朝水會, 1954.
- 金榮·梁澄子, 『海を渡つた朝鮮人 海女』, 東京: 新宿書房, 1988.
- 榊田一二, 「濟州島海女」, 『地理學論文集』, 東京, 1976.
- , 「濟州島海女の 地誌學的研究」, 『大塚地理學會論文集 二』, 1934.
- 시바료타로, 『탐라기행』, 학고재, 1998.
- 岩田準一, 『志摩の海女』, 아타카지움, 1942.
- 野村史降, 「海女- 出稼の人口」, 海와 人間, 토마시(鳥羽市) 바다박물관(海の博物館) 제간지, 특별호, 1989년 가을호.
- 田辺悟, 『近世日本蠻人傳統の研究』, 동경: 慶友社, 1996.
- , 『日本蠻人傳統の研究』, 동경: 法政大學出版局, 1990.
- 토마시 菅島町 편, 『후루시토 쓰가자마(菅島)』, 1979.
- 마라이니 (牧野文子 역), 『海女の島- 헤구라지마』, 未來社, 1964.
- 李善愛, 『海を越える濟州島の海女』, 東京: 明石書店, 2001.

영문

I . The Songs of the Jeju Haenyeos

There are the ‘Songs of the Jeju Haenyeos’ sung by the haenyeos themselves on whichever seashores go around Jeju Island. These songs were mainly sung when they rowed out to the sea to Biyang-Island or Jigwi-Island to carry out their diving work. It was also sung when they went to far out places for a period of time away from home to dive, and when they swam out to the sea and carried out the ‘gotmuljil(work in near place)’ while leaning on the ‘taewak’ .

The songs of the haenyeos are a labor song which focuses on the functionality of the sound of the rowing. In most cases, this sound of rowing has been referred to as the ‘songs of the haenyeos’ and They it were sung almost in the same way all around the Jeju region. The sound of the rowing is considered to have been sung until the end of the 1960’ s which is right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motor boats. Because it was sung while going far away to dive to the mainland or rowing their fishing boats or other boats powered by the wind, as well as while they were away from home, the songs of the haenyeos were shared by one and all not only on Jeju Island but 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The songs of the haenyeos at present are

designated as the number one intangible asset for Jeju Island and is being passed on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Ethnic Culture Preservation Committee of Haengwon-li, Gujwa-eup, Jeju City. Here, the song of the haenyeo refers to the ‘sound of rowing’.

- Kim Youngja and Kang Deungja, possessors of the Jeju Island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1 Skilled Craftsman Distinction

Ie-eo-do-sa-na, ie-eo-do-sa-na

Ie-eo-sa-na, ie-eo-sa-na

Where are we going by rowing these oars,

let's go in the direction of the Jin-do seas.

Ie-eo-do-sa-na, ie-eo-do-sa-na

Ie-eo-do-sa-na

Set out the boat with three sails,

ah, the head ferryman makes merry with rowing.

The Seoul aristocrat holds a brush

and writes his piece.

Ie-eo-do-sa-na, ie-eo-do-sa-na

We take turns rowing the oars

don't exert yourself too much

bending over stomach and back.

Ie-eo-sa-na, ie-eo-sa-na

The pinenut boat slides along

and the pinewood boat glides along.

Our boat is as fast as it can be
 like a flying baby goshawk.
 Hit the water, and away we go,
 hit the water vigorously ie-eo-do-sa-na.
 Don't exert yourself too much
 bending over stomach and back
 ie-eo-do-sa-na, ie-eo-do-sa-na.
 When my mother gave birth to me
 did she give birth to me just to have callouses
 with thornbush oars in her hands?
 When the rope breaks
 there must be the Japanese ropes from the Busan Harbor.
 When the oars break
 there must be the straight stick from
 Tsusima mountains.
 Eo-ki-yeo-cha, eo-ki-yeo-cha
 ie-yeo-do-sa-na.
 Look how well our boat goes
 the front boatman at the bow
 the back boatman at the stern
 the galley cook under the mast
 the high tide gets delayed.

 Ie-yeo-do-sa-na, ie-yeo-do-sa-na
 my shoulders on this night sea

shake along with the waves.
 This small woman's mind
 shakes with the grief of a lifetime
 ie-yeo-do-sa-na ie-yeo-do-sa-na.
 Money money that doesn't answer
 money money that even dogs or cows don't eat.
 It is money that cannot be used
 to build even the door
 ie-yeo-do-sa-na ie-yeo-sa-na
 If not for money
 why would we sing the parting song about family
 why would we come all the way to Wulsan?
 Time passes and it is dark July
 return back to us August lovely.
 My hometown I do want to go back
 my beloved parents and brothers.
 I want to live to see their faces again.
 ie-yeo-do-sa-na ie-yeo-do-sa-na.
 The green leaves on that mountain
 grow younger every year
 but my body grows older every year
 ie-yeo-do-sa-na, ie-yeo-sa-na.
 My body is as thin as a needle
 and gets sickened with bull-like disease.
 I write a letter to my loved one.

I only get a reply telling me to try some medicine.

I think it was foolish of me
to pine after such a cold lover
even though I know I will forget
once I go on with my life.

I am still a foolish woman
I am beguiled into being gullible
ie-yeo-do-sa-na, ie-yeo-do-sa-na.

Ie-yeo-do-sa-na, ie-yeo-do-sa-na
blunt has become my liver, my bowels
they are buried in slopes and mounds.

Sea god with good eyesight
swaggers away with front arms
swaggers away with back legs.

The good fortune with abalones and conches galore
please let me achieve it
ie-yeo-sa, ie-yeo-do-sa-na, ie-yeo-do-sa-na.

The merciful Dragon Sea God
and my efficacious Sea God
although we have the good fortune
with abalones and conches galore
please let me dive in peace
ie-yeo-sa-na, ie-yeo-do-sa-na.

I dive into the middle of the big ocean.
 I don't know where the shore is and spend
 all night outside in the moonlight.
 Please Mr Ship-owner, turn around the ship.
 We three siblings have come together
 so the beat of the oar
 and the beat of our back
 and everything fits together
 ie-yeo-do-sa-na, ie-yeo-do-sa-na.
 Three months, four months, please don't go.
 My youth is all spent up.
 When I was around my twenties
 I could have gone to topple the rocks of mountain valleys.
 When I am in my forties and fifties
 my lover turns around while on his way to meet me.
 Ah you people in your teens,
 don't make fun of this white hair of mine.
 The child becomes white haired soon enough

 ie-yeo-do-sa-na, ie-yeo-do-sa-na.

II. The Sentiments and Functions of the Haenyeos' Songs

1. The Haenyeos' Songs as a Labor Song

Originally, the haenyeos' songs were songs of fishing labors, sung by bodies of 'Haenyeo' who carried out muljil(diving into the sea) with the sea as the background. The 'Oar rowing sound' song while you are rowing the boat and the 'Sound of swimming using the life buoy (tae-wak)' song are two good examples. The 'Oar rowing sound' song was especially like the representative song of the haenyeos' songs which were sung when they went to the mainland to diver or to another specific island on a boat. These kinds of haenyeos' songs bear the characteristics of a primitive labor song and reveal the sentiments as well as the functions of the haenyeos' work. There is a pre and post singing format where the meaningful story and the chorus are sung.

There is the singing exchange format where even though each of the singers are singing about a different story, there is a lot of relation between the two, and the tunes become harmonious.

2. The Sentiments of the Haenyeos

A variety of sentiments that may be obtained from individual lives and communal lives that is possessed by a group appear in the haenyeos' songs. The longing for their family felt by the haenyeos when they are in the mainland for their muljil, their painful lives, their expectations and betrayal of their husbands, and their fated lot are expressed though a dark image. The dark image due to their tragic life perspective tried to be overcome by borrowing the 'mother' figure and portrayed as a sympathetic figure or a comrade in their destined life.

A) The Functions of Labor and Expression of Space and Time

The Haenyeos' songs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muljil. The act of leaving the house and rowing the boat and the functions of labor are expressed in the story of the songs directly. The labor songs are products of the oral narration of the actual scenes. That is why the scenes of labor as the expression of time and space backgrounds are depicted directly. The limits of the labor work, the time and space spent in working are described vividly. The frustration of not being able to get the abalone compared to gold and silver and the shells when they dived into the water because of their short breath is compared to the fruits hanging high up in the tree. By doing this, they brought in an objectively related object with a vertical movement in space.

I-eo-do-sa-na, i-eo-do-sa-na i-eo-do-sa-na i-eo-do-sa-na

By rowing this boat, where am I going?

I am going to the Jindo seas,

Let's go to only this place

I-eo-do-sa-na, i-eo-do-sa-na i-eo-do-sa-na

Let's have three sails,

Let's go on rowing out,

Come on captain oarsman, No-nyeom!

Hold a brush, you are such a good writer

You aristocrat from Seoul, No-nyeom!

Is this a pine-nut tree boat that goes far away?

Or is this a pine tree that sails so well?

Our boat is so quick and swift

Like a young hawk playing

Come on waves, hit us! We are going so well

Our boat is going so well!

Oarsman Yi in the front part of the boat!

Oarsman Go in the stem part of the boat!

The ship's cook under the main mast

is time for the water is getting more and more late

Even though gold and silver are spread out under the water

they are like fruits hanging high up in a tree

B) The Purpose of Labor

The work of 'muljil' was focused on economic realities where you have to earn money for cash more than anything else. A part of a song that is sung in an exchange format by two people.

The first part is sung by A, and the latter part is sung by B and it takes on a double story telling format. The song is centered towards a synonymous theme of being rewarded with money after their own labor. This is ultimately the justification of the realities of the trip to a foreign place and the labor that was done by the haenyeos who left for another place to carry out muljil.

A	B
I-eo-do-sa-na	Sun and moon
I-eo-sa-na	Do not eat
what is dirty	what is dirty
It' s not money	It' s not money
Parents and siblings	their blood and sweat
left behind	bleeding away
Wul-san, rivers and mountains	Here it is
What do you like so much	Here is it
Parents and siblings	Here it is

parting

These mountains

why did you go

Here it is

My sweet youth at 16!

C) Tragic Life Perspectives

The 'muljil' process started in the morning and went on until 15oclock in the afternoon.

The haenyeos spend about 5~6 hours in the waters making it extremely difficult.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y hold their breath for about two minutes and go down about twenty meters to catch abalone under extreme peril to their lives. This is because a misjudgment of experiential knowledge learned through their 'muljil' can sometime lead to death by not being able to hold their breath in the water. That is why the 'muljil' was regarded as 'an act of going back and forth on the road to hell'. As this is the case, their own destiny resembled that of the seaweed which sways in the waves and their life perspectives are pessimistic.

I-yo-sa-na I-yeo-sa-na

Carrying the soul coffin on my back

With a gourd on my breast

In one hand holding a hoe

One feet, two feet into the deep deep sea

floundering into the sea

Bittersweet mother, when you gave birth to me
 From which sea seaweed soup did you eat
 Each waves make me cry
 Whenever the waves strike
 we struggle and sway with our lives

D) The Spirit and Vigor of Labor

Humans have the tendency to overcome every tragedy they come across. For the Jeju haenyeos, the difficulties that they faced due to the dangerous work that they worked. This can be said to the acknowledgement of reality. That is why the songs have a much more of a stronger disposition.

The symbol of the overcoming of the difficulty is the 'maru' (the top part of the wave when they strike) in their lives. For the haenyeos, there is the 'water maru' which is created when they go forward on the waves by rowing. The will to overcome any kind of difficulty is expressed and even more emphasized by using the technique of arrayal.

A

I-yeo-do-sa

Eo-gi-yeo

Eo-gi-yeo-ra

I-eo-do-sa-na

I-eo-do-sa-na

B

The ship's rope

Even though it breaks

The Busan harbor

A-sa-no-juri

There may be nothing

You slyly	Catch hold my wrist
I have no choice	I may meet a disastrous fate
In my both eyes	Busan harbor
Go in	Yu-do-ya hospital
I-eo-do-sa	There may be nothing
I-eo-do-sa	My young and strong disposition
I-eo-sa-na	I let it go
I buy a house	I buy a house
I buy a field	I buy a field
On the roof	On the roof
The upper maru	let' s look up
At the sea	at the sea
The water maru	the water maru
Without the maru	without the maru
How can I live	Cheo-ra, cheo-ra
Push on the front	and go up
Row the boat	and go on rowing the oars

E) The Prayer and Belief

Although they overcame limits with their own efforts and withstood everything with their spirit, in order to get the successful result of getting a good sea-harvest the 'meo-jeong' which is like luck had to be present. That is why the haenyeos prayed and believed in the Sea God whom they though governed the sea.

A

The mountain and fields over there

Every year

lively lively

Make me young

With my body

Every year

Gently gently

I grow old

B

the shells and abalone

It is there

Take your breath

Please do it

I pray and pray

I pray

to the Sea God

I pray and pray

III. The Changes in the Haenyeos' Songs

Three variation can be given from the haenyeos' songs. The first one is the song that Bak Haeng-ik composed in sympathy of their plight and he was the person in charge of the haenyeos who went to Japan to dive. This song was made in Wadaira, Chiba, in the Hosono peninsula Japan and spread out to all the haenyeos who went far away to dive and then came to be sung in Jeju again. The song reveals a sympathetic sentiment looked on by a second party at the haenyeos. The narrators called this the 'song of Jamsu'.

The poor and pitiful live of the divers
It is regretful that they were even taught
Even when it is windy or it is raining
they have to go out looking for food like the sea-gulls
that fly around the sea
They go back and forth between the waves that
wildly break out into a thousand pieces
Breathing is difficult
The mind is full of sorrow

A) The Song of the 'Chulga Haenyeo'

The term 'chulga' referred to economic activities like diving away from their hometown. While they were div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various regions of the mainland such as Kangwon-do, Kyungsang-do and so on, they sang this song to console themselves from the hardwork, loneliness, and nostalgia about their homeland. It portrays the emotions and mental state of the chulga haenyeos in a very descriptive way.

A

This day that day
we create groups
we go we go
we leave behind
we bid farewell
we say goodbye
we take the bus
we leave our home
we go away
we ourselves
feel bittersweet
don't you think
that this world
and that it is

B

we pick a day
in threes and fives
we go to the mainland
our beloved hometown
to our loved ones
to our family
we take the ferry
just for a little while
to make money
who are leaving
as much
that we know
is full of distressing things
bitter parting?

It is the worst parting	of all partings
what kind of place	is this?
Unfamiliar	and the waters are strange
who shall I depend on	to see and go?
Ah poor are we	the haenyeos
we never get to play	in leisure
we get pointed at	and ostracized
we have this poor lot	with suffering and pain
so sad are we with	the bodies of haenyeos
we take the sea	as our roof over our heads
we risk our lives	carrying our coffins on our back
the bitchang	in one hand
a hoe	in the other hand
three fathoms	four fathoms deep
we hold our breath	and dive in
this must be the	entrance to hell

liver, bowels	all my 12 organs
when we dissolve	all our 12 organs
we lean on the taewak	and float on the water
memories, memories	of my hometown
memories, memories	of my parents
I miss them like	a drought of 7 years
longing for the home town	pouring rain
I see them in my eyes	I hear them in my ears

I long for my parents	so desperately
I cry at my own	sounds of lamentation
I sigh at my own	sorry situation
I deplore this haenyeo	body of mine

The sky so high	so clean so blue
I look at it	inadvertently
the lone goose	fly towards the direction of my home
Oh, the flying goose	flying so freely
if you stop by	my home so dear
please go to my	parents
and give my regards	to them

The best oral tradition genre that expresses the sentiments of the haenyeos can be said to be 'songs.' They expressed their hard labor and their sentiments about their tired lives through songs. The Haenyeos' songs appeared in the usage of their everyday lives. Their songs were the literature and sentiments of their lives which vividly presented their lives. In the Haenyeos' songs, not only the communal sentiments as a labor literature appears but comedic sentiments, resistance against the Japanese and a sympathetic sentiments appear in variations through functional changes.

The third in an expression of comedic sentiment by the functional change. Originally, the labor song which was the Haenyeos, story and music was revised for the accompaniment of dancing. The new song'

s format which had changed into a comedic song is strong in its comedic sentiment.

B) The Merrymaking Song of the Haenyeos

This is a merrymaking song created by the haenyeos as a dance song for the performance on stage or for a play following the beat of the 'taewak'. The music is exciting and the lyrics reflect the lives of the haenyeos in a vivid way. To enhance the function of the merrymaking, the slow and fast tempo of the 'seowujetsori' is actively encouraged.

ie-eo-do-sa-na~~ ie-eo-do-sa-na~~

ie-eo-do-sa-na~~ look how well it goes, row, row (Chorus)

Where can I go by rowing these oars? I will go to the Jindo Seas.

This front boatman plays in this water and the back boatman plays in that water.

The galley cook under the mast, the tide is delayed.

Whether we eat or starve, we continue to dive in this island surrounded by water everywhere.

One coin, clink, two coins, clink, it all drains down into my husband's drinking.

One hand carries the bitchang, and the other hand hauls the taewak.

I carry the coffin board on my back to dive, once, twice and it is

no doubt my entrance to hell.

When the oar breaks, there should be the straight stick from Hallasan.

When the rope snaps, there should be the strong rope from Seonheul Cape.

Our boat is the oakwood boat and other people's boats are rotted wooden boats.

Don't just bend stomach and back with him, move all your twelve bones to row the boat.

The warship on the ocean, please move in any direction.

We row the boat on the side and go forward.

The leaves on the mountain become greener every year.

Our lives get older and older every year.

There are seafood aplenty under these waters
but they are as unattainable as fruits high up in a tree.

What's so good about this region for me to come all the way up here? Ah, my tears fall off at the end of these rocks.

When I sigh, it becomes the Southeast wind, and when I shed tears, it becomes the overflowing river.

Working all day long in once upon a time, where is my loved one he does not come until now?

He is the object of my grudge for thousands of years,

He is the object of my grudge for ten thousands of years.

Did my mother give birth to me only to have calloused hands?

Eoyang, eoyang, eoyang eoyo, eokiya diya Sangsan ie ro da
 Ah~~~~~yang Eo~~~~~yang Eo~~~~yo(back chorus)
 My mother gave birth to me for future prosperity.
 There is no prosperity to be seen anywhere, and the previous life
 was so ill-fated.
 If only I had been born on the same day as the lucky one.
 Why would I cry when he cries? Why would I cry when he cries?
 The water that gathers at Hallasan is mixed with thousands of
 leaves,
 and the water that gathers at Sanjicheon Harbor is water mixed
 with the rotten ropes from thousand ships.
 Her heart has rotted to flow out as bitter tears.
 The shipowner rows well with double masts and sails well.
 The farmer plows well with his tool and farms well.
 Go over the mountain with my song, go over the sea with my
 song
 The rich harvest year has come, has come.
 The year of the money has come to the Nonggae Seas.
 Let' s put the prow in front and let' s put the end at the back
 The baeritbae* is the best even if there are three thousand net
 knots.
 Let' s play the guardian god game and go.
 Let' s play the guardian god game and go.

* The most important rope which becomes the central foundation

High tide becomes the west seas, and the low tide becomes the east seas.

When the water comes in, it stays in the water,

When the water is poured, it stays in the riverbank.

C) I-yeo-do-sa-na, I-yeo-do-sa-na

The haenyeos' song made its beat and melody was not suitable for dancing which is why Yi Yeo-su said that he rearranged the haenyeos' lyrics and song. This rearranged haenyeos' song made its debut in the 'Haenyeos' Play' which had been dramatized and entered into the 12th Ethnic Contest held in Jeon-ju in 1971. Following this chance, a new haenyeos' song became popular. The tune is more beautiful than the labor song of the haenyeos' and is suitable for dancing because of the exciting beat.

I-yeo-do-sa-na yeo-cha-yeo-cha

I-yeo-do um um um

I-yeo-do-sa-na yeo-cha

Where am I going

Um um um

Let's go to the Jindo sea area

I-yeo-do-sa-na I-yeo-do-sa-na

che-ra cheo-ra yeo-cha yeo-cha

I-yeo-do-sa-na

The ship' s cook under the main mast
Is time for the water is getting more and more late
Eo-eo I-eo-do-sa-na
cheo-ra cheo-ra
I-eo-do-sa-na
Good good
I am going going, I am going
Ah ah, I am going to go into the water
The ship' s cook under the main mast
is time for the water is getting more and more late

I-eo-do-sa-na Chya-ra-chya
I-eo-do-sa-na yeo-cha, yeo-cha
I-eo-do-sa-na um um um
I-eo-do-sa-na Eo-heo-eo
I-eo-do-sa-na Um um um
The ship' s cook under the main mast
is time for the water is getting more and more late
Eo-heo-eo I-eo-do-sa-na
Chya-ra-chya I-eo-do-sa-na
I-eo-do-sa-na Kung jak kung jak

IV. The spirit of the Haenyeo and their sentiments

1. The rowing work and its situation

○ The pinewood boat slides along/ The wooden boat glides along
/ with the 10 thousand Haenyeo on board/ to make their mark in
history with tithes

○ Set out the boat towards Seoul with valuable cargo/ breeze
smooth as silk on the silky sea/ beltfish breeze blow with westwind

○ The East Sea(東海)on the ebb tide/ The West Sea(西海) on the
rising tide/ Set forth the boat on the Han River(漢江)/ It is indeed a
stream that melts our guts

○ That wave, this wave/ what have you swallowed to come up in
such huge bulges/ Did you swallow the oil tank/ Or did you swallow
the ginseng/ Or have you swallowed the wind tank?

○ The front boatman at the bow/ the back boatman at the stern

The galley cook(火匠兒) under the mast/ the high tide gets
delayed.”

○ Let's go quickly with these oars/ quick and light our boat is/
while other boats so slow. Our boat has the golden luck/ let's go fast,

our boat/ breeze smooth as silk on the silky sea

○ Boat, boat, my boat/ I entrust my body to you/ where can I go from here/ take that ocean as one marker/ and take that one wave as a threshold/ one league two leagues into the sea/ looking for abalones and conches/ suffering in this sea

○ There are humps in the sea/ and there are humps in the mountain fields(山田)/ The boat is good and the oars are good/ Where can we go with this boat/ let's go to the pearl filled valley in the sea

○ There are humps on the roof/ how can you say that there will be no humps in the height of your youth/ let us row, let us endure/ let us row over this hump

○ like an old rat eating salt/ like an old man getting married/ let us row and go to the shore

○ Oh, the big waves of the three brothers/ the current of the 4 brothers/ if you come crying, scared we will be

○ A steamer(火輪船) is floating in the Seoul seas/ A seaweed boat is floating in the Jeju seas/ The yellow corvina boat is floating in Pyeongyang(平壤)

○ A long song for the long ocean/ A short song for the short ocean/ Where will we go rowing these oars(櫓)

○ There is a hump even on the roof/ How can there be no humps during the height of youth/ Let us row forward, endure forward/ Let us row over this hump/ No, we can't row forward/ Let's just go where we can row forward

○ What has this wave eaten/ to become so plump/ Did it eat the

wind tank/ or has it eaten the cloud tank/ how well it rises up

○ It's the stallion(雄馬) that runs in the mountain/ It's the boat that goes over the rocks under the sea/ The gold and silver in this sea/ lies shimmering at the bottom/ But, it's like a fruit high up a tree

○ How well our boat glides/ How fast the baby hawk flies/ Where will we go if we board this boat/ I will go to the valley of the Jindo Sea/ There is a hump even in the sea/ There is a hump ridge on the roof

○ The front boatman at the bow/ the back boatman at the stern/ The galley cook under the mast/ the high tide gets delayed/ cheorabaegyeo, up goes the boat

○ When my parents gave birth to me/ day and night just like these oars/ work until your back hurts/ Is that what you want me to do cheorabaegyeo/ you can't go without doing this/ this rapids, that rapids, it is surely a strong channel

2. The diving work

○ With the coffin board (魂帛箱子) on my back/ The taewak in front of my breast/ One hand holding the 'bitchang' / The other hand holding the Roe/ One league, two leagues, deep deep into the sea/ floundering, floundering into the sea

○ Measuring the wide ocean in front/ entering one league, two leagues/ back and forth between the netherworld

○ The bottom lining board of a coffin which we ride on/ the

funeral cloth that we cover ourselves with/ This is work we shouldn' t
be doing/ Please don' t let the wild gale(狂風) blow

○ Swimming forward with front legs/ Splashing with the back
legs/ the Dragon Sea God(龍王) under the water/ My beloved on the
water/ Row row, row over the rapid/ Let us go to the island

○ When my parents gave birth to me/ On what day did they give
birth to me/ Taewak in one hand/ Bitchang in the other/ One league,
two leagues down/ In front of the Dragon Sea God(龍王) is my fate/
Tears when I go down/ Sighs when I come up

○ Measuring the wide sea in front of me/ One league, two leagues
into the sea/ mussels and clams peeking out here and there/ Seaweed
leaves swaying gently/ Concentrating only on the seaweed/ Only
doing the seaweed work/ Didn' t even realize that I couldn' t breathe

○ When I become fifteen/ The best wide leaves of the seaweed of
Biyang Island(飛揚島)/ I will go to move and pluck the thorn trees

○ It' s the stallion(雄馬) that runs in the mountain/ It' s the boat
that goes over the rocks under the sea/ The gold and silver in this sea/
lies shimmering at the bottom/ But, it' s like a fruit high up a tree

○ How far Chagwi Island is/ Going into Chagwi Island/ Further
away than the Han River/ Further away than Seoul/ No, I can' t go/ I
can go when I row fast/ I breastfeed the crying baby/ As for the
efficacious husband/ I make the dinner and serve him/ But can' t go
ahead without rowing

○ How well our boat goes/ Like a flying baby hawk/ How well it
goes yi-eo-sa-na/ cheora cheora underneath this water/ gold and silver

galore at the bottom/ but so unattainable like high up a tree

- With a coffin board on my back/ With the taewak in front of my breast/ With the bitchang in one hand/ And a hoe in the other/ One league two leagues under the deep sea/ floundering, floundering into the sea

- With the taewak firmly planted in one hand/ With the bitchang in the other hand/ One league two leagues into the sea/ It is surely a straight way to the netherworld

- The bottom lining board of a coffin which we ride on/ the funeral cloth we cover ourselves with/ This is work we shouldn't be doing/ Please don't let the wild gale(狂風) blow/ With the goggles on my eyes/ with the taewak in front of my breasts/ with the steel bitchang in my hands/ into the deep waters we go/ abalones galore in the deep waters/ but couldn't get them as my breath was short

- Deep we go under the water/ It is not the boat that I was related with/ It's not the boat that I slept in/ sneaking up slowly

- The wind in front strikes hard/ catch the wind behind with my back legs/ Let us go forward, follow my parents and set the sail/ Dive into the water

3. Diving away from home

- Let us go together my friends/ I will go first to that area/ and start working on the seaweed/ I will go to Wulsan(蔚山) and earn some money/ Buy a house with extended eaves/ buy a field with large

land area/ and live a joyful life

○ Leaving with Halla Mountain behind me/ Adopting the Daecheon Seas as my home/ when we bid farewell to siblings and parents/ how can the handkerchief be not wet with tears

○ My hometown/ is Seongsan Harbor(城山浦) of Jeju/ The place that I dwell for a while/ is Dongsunggu東成區) of Osaka/ and I live on street number 12

○ My beloved mother's face/ I can see vividly before my eyes/ the sound of my beloved baby's crying/ rings in my ears

○ Good bye Seongsan Harbor/ When the spring comes again next year/ we will meet again if we survive/ eternal parting if we die

○ Money money that doesn't answer/ If not for money/ Where is the Du-man River in Russia(露國 豆滿江)/ Where is Buryeong Cheongjin(富寧 清津)? When I looked around after coming to Buryeong Cheongjin/ come in quickly oh wanderer/ come in quickly oh people from Jeju

4. Life history

○ Stones for the fence/ cow for butchering to eat/ wood for the fire/ rockfish for roasting to eat/ but what can we do with a stupid fool?

○ The green leaves of the mountain/ blossoms newly every year/ they come and go/ yet our life, once it goes/ when can it ever come back?

○ The sweetbriars of Myeongsansipri/ don't feel sad that you wither away/ when the spring comes back again/ you may come back again/ but our life once it goes/ will never come back

○ That person to me/ I try to give my affection/ how can I give away my affection/ Within the small millet songpyeon/ only the inside has been heated up

○ At the Galmi Peak of Jagunae/ is my beloved there or not/ within the bosom of the young head of the family/ sleeping restlessly/ ie-eo-chera cheora baegyeo/ do they give water to the family head/ or do they feed the dogs and pigs/ do we breastfeed the young baby/ let's take a quick peek and go

○ The wind that blows on the pine tree and another man's concubine/ the sound makes living difficult/ the first wives and the stones that are on the oreums/ they would survive even after being rolled around/ don't go become a concubine to the village chief/ go as the proper wife to the man who roams the fields with horses

5. Life with the in-laws

○ After living the tiring 3 years with the in-laws/ hair falls out in clumps from the braids/ every hump was a pain/ were there any words that did not rot away the gut

○ Going to the in-laws after 3 months/ opening the doors of the narrow wooden porch and looking in/ father-in-law has the soul of conches/ shrinking visibly upon seeing me/ mother-in-law as the soul

of abalones/ jumping out of her skin upon seeing me/ sister-in-law as
the soul of a small bird/ she chirps upon seeing me/ my husband as
the soul of octopus/ shrivels upon seeing me

○ When my father-in-law comes/ I will make a bridge with
precious stones of Hwangbuseok/ For my mother-in-law' s painful
eyes/ the one and only medicine is liquid from the water pepper

○ A maiden with a beautiful face but an evil mind/ she spreads
out in the wide field/ even though she may be shining good/ she is
still an evil minded maiden

○ I don' t want to go when they say we must go/ but we cannot
not go/ like a kite stuck in a jujube tree/ this is because of the young
baby

○ Oh you who have become a concubine so nimbly/ go into the
middle of Daecheon Sea/ spend a whole moonlit bright night there/
we can tell whether a body of water is deep or shallow/ we do not
know the mind of the beloved we live together with/ and our guts rot
away

○ The ebb tide flows into the East Sea/ the rising tide flows into
the Western Sea/ The Yudal Mountain of Mokpo is fit for
merrymaking/ The Geumgang Mountain of Kangwon the best to see/
the best to live with is a husband who studies/ a healthy husband
would be a man who plows the field

○ I have come to the in-law' s house/ sister-in-law, don' t be so
arrogant/ I am a mother myself if I go/ I am like the rich sesame oli
poured into a cup

○ Could not speak out for 3 years/ Could not see for 3 years/ after living such years, there is no invitation to come and go

○ The man with 3 concubines in one village/ Light the fire under the three pots/ you will only have smoke but no fire in the mind

6. Lamenting about life

○ I tried to die but was told that I am still young/ I tried to live but was told that life is hard/ my hair was a mess when my beloved left me/ Who shall I put on the makeup for?/ We can tell people to buy cotton or hemp cloth/ but where can I go to tell people to buy this body of mine

○ I became a widow in the year with the long monsoon/ I embrace the cold pillar to make my rounds/ if there is a grave that died of sorrow/ why does the stone come back

○ I went to scold the concubine/ like a convolvulus flower in a rich field/ sitting languorously pretty/ she appeared pretty even to my eyes/ so how much she would appear to be in my husband's eyes

○ Getting a concubine for merrymaking/ where and when did you carry this out/ short summer jacket and long skirt/ Never was there a time where I dusted at all

○ When my parents gave birth to me/ there was no sun nor moon/ why did you give birth at that time/ some people have all the luck/ being high born in a palace/ with a long smoking pipe/ sleeping in the den/ what kind of life is a haenyeo/ with a coffin board on my back/

back and forth into the blue water

○ Kimnyoung Bukchon(金寧 北村) is an island I've been to/ I sigh in between my sleep

○ When my mother gave birth to me/ Did she give give birth to me after working hard all day long/ with the thornbush pestle/ did she have callouses on her hands

○ If you divide the water, you will get a rock/ If you divide the tree you will get powder/ ah ah the island that I go to/ there is no water nor tree

○ A baby someone knows/ was so high born/ that it dwelled in a palace/ it leads a life with all that wealth can buy/ the baby that my parents gave birth to/ what life is it with the taewak all day/ pitiful and pathetic/ where even time has passed by these women/ ah woe is this work/ It is indeed pitiful and pathetic when we think about it

○ On the islet/ the ducks play/ on the cruel blue sea/ my body floats/ 'bitchang' in one hand a hoe in the other/ educate the young 'uns with seaweed and abalones/ My poor body that suffers on the sea to make my children a Jeju judge/ When will I ever be able to meet the good fortune in this world/ and live like others

○ For the black corals(黑珊瑚) of the sea/ would the dew gather even if it shines/ Will there be a bright moonlit night to fulfill my wish/ Will there be a day when I get my heart's desire

○ My beloved mother who gave birth to me/ from which sea did she eat the seaweed soup/ Whenever the wind blows to raise up the waves/ she suffers in the sway

○ Some people have all the luck/ being high born in a palace/
leading a life with all that wealth can buy/ but for people like us, we
are born on a certain day/ throughout the seasons/ whenever the
weather is good/ floating on that sea/ one league two leagues into the
deep sea/ as often as I enter my house/ plucking the abalones to pacify
the young 'uns/ experiencing all the suffering possible

○ How hard our life is/ with dry twigs for a house/ with the oars
that hang like scarecrows/ with the sea like a home/ how hard our life
is

○ If there is a fire in the mountains and fields/ it will go out when
the rains come/ but the fire inside the mind of a widow/ cannot be put
out with just water

7. Strenuous efforts, diligence

○ If this rope breaks/ there must be the rope from Incheon(仁川)
Harbor/ If this oar breaks/ there must be the stout wood from
Busan(釜山) Harbor/ how well it goes/ my friends this is quite
adequate to go on with

○ The hag who looks like a cow set the fire on the field/ what can
you do to earn your living/ through cruel and hard work

○ The highest rich is rich in the heavens/ the second rich is rich
under of the knee/ hollow of the knee it's hollow of the knee

○ Should this rope fall off/ there must be the electric line/ Should
this oar fall off/ there must be the thornbush

○ When I am only 20 or 30/ Do you think I would ever give this oar to anybody else/ The diving deep into the sea/ It won't help to give the work to others/ I am not the one to give it to others

○ You who stay at home, do not boast so much/ With the jujube tree as a pillar/ with the roof timber hanging on the zelkova tree/ Now that it's built, it is a house

○ If you can't even work with your hands/ don't shout so much in vain/ make it so that even faraway people can hear/ so that nearby people can see it well/ there is nothing that I can't do/ Even though I may gamble away the agar agar to others/ I won't give away the abalones/ this amount of work is just pittance

○ Using all my 12 bones/ Let us row these oars/ even if this rope would break/ has the sinseoran(hemp) become extinct/ even if my wrist will break/ has the head of the Busan hospital become extinct

○ Even though this oar may break/ there must be the thornbush/ Even though this rope might break/ there must be the hasano of Busan Harbor/ Don't complain that this oar is bad/ the agar agar might be gambled away/ but I won't give away the conch or the abalone to others

○ This rapids that rapids/ it overflows/ should this oar break, there must be the wood from Seonheulgoet/ Should this rope break/ there must be the rope from Busan Harbor

○ One league two leagues into the deep sea/ floundering floundering into the sea/ did I let go of these shoulders/ should I buy the rice fields or the farm fields/ let us go wherever it takes us

8. One with nature, assimilation

○ Rowing the oars in the Han River/ Will there be abalones if I go to this island/ Will there be pearls if I go to that island/ I jump in with a big splash/ the fish gather together/ and attempted to make me their friends

○ Eating the wind as rice/ excreting with the clouds/ with the waves as a home/ leaving behind my beloved mother/ leaving behind my beloved father/ parting with parents and siblings/ With the Han River as home/ destiny says I should do this work/ is that why my body was born?

○ With the gulfweed clump as a home/ with the wave humps as my mother/ if I lived in this sea/ which sea would be allotted to me

9. Prayers

○ When I become 15years/ the wide leaved seaweeds of Biyang Island/ Maybe I should go to move the thornbush raft

○ If you catch the conch/ allow only 5 seoms(about 180 liters) of it/ if you catch the abalones/ allow only 8 seoms/ Our sorrowful existence/ let us escape with this chance

○ My husband in our boat/ splashing with front legs/ splashing with back legs/ please let us reach the end of the journey successfully/ and let us go where there are abalones galore

○ Young man, tie up your hair and let us go into the water/ Get

packed and ready to go to the island/ the place that our boat is going/
the end of the rock where the seaweed is the best/ the place that other
boats are going/ Hongdonggae where the purple laver is the best/
Where shall we go on this boat/ Let us go to the Jindo(珍島)seas

10. Beloved

○ At the island surrounded by the sea(四面海)/ diving all day long
foregoing the three meals a day/ one penny two pennies collected/
gets wasted away by my husband's drinking

○ Climbing the mountain I hear the sound of saljanggu/ Going
into the water I hear the sound of sumbi/ Going into the house I hear
the sound of grinding millstone/ Is it the answer to an earnest prayer
of my true love coming/ Or is it the spiritual awakening of my
venturing out/ The sound of silk pants of floss/ it resonates vividly in
my ears

○ My beloved who has gone to Buryeong Cheongjin(富寧 淸津)/
he will come back if he has earned money/ but the beloved who has
gone to the public cemetery/ will only come back during the
ancestral ceremony

○ If you can't come because the mountain is high/ take the horse
and come over/ If you can't because the water is too deep/ take the
boat and come over

○ The sound of Daecheon Sea waves/ only rings in Sanji
Harbor(山地港)/ The sound of my parents talking who have gone to

the public cemetery/ Only rings in the mountains and rivers/ My beloved who has gone to Tokyo Japan/ has gone to earn money/ but the beloved who has gone to the public cemetery/ only comes back during the ancestral ceremony

○ On a day where it has become dark after sunset/ smoke arises from every alley/ but where has my beloved gone and do not come back?

○ I don't know how to light the silk lantern/ Will my beloved come if I wait sitting down/ Will sleep come if I lie down/ My beloved nor sleep is not coming to me

○ My beloved if you don't like me, abandon me/ Please dump me when I am still beautiful and young like a flower/ Abandon me while I still have leaves/ When can I go to that place/ I sneak up slowly

11. Money

○ Take this body of mine/ and set it afloat on the ebb tide of the Han River/ One league two leagues half in half out/ If I call out to you, please return oh money thine/ Why would I go through this suffering if not for money

○ Oh money that does not have eyes/ where have you gone not to come to me/ come back when I beckon you

○ Let us go together my friends/ I will go first to that shore/ and go the seaweed work before anyone else/ go to Wulsan and come back with money/ Buy a big house with spreading eaves/ buy a big

farmland with lots of fields/ and have a wonderful fun life

○ Take this body of mine and set it afloat on the Han River/ set it afloat on the ebb and rising tide/ deep into the one league two leagues sea/ half in half out/ when we call out money/ if not for money/ why would I go through this suffering

○ Money money that doesn't answer/ If not for money/ one thousand lis by land(陸路千里) and one thousand lis by water(水路千里)/ Will go anywhere within the Manligangsan(萬里江山)/ Money money that doesn't answer/ deaf and blind money/ come back when I beckon you

12. Parents and mother

○ Went to Jeseokgung(帝釋宮) to buy back my mother/ staking 5 mals of pearls as down payment/ ventured into Jeseokgung(帝釋宮)/ there were plenty of people to buy/ but no one that looked like my mother

○ Picking up one handful of needles in the water/ embroidering the pouch with gold threads/ went to Seoul to buy some parents/ none even resembling my parents

○ With the gulfweed as a home/ with the wave humps as my mother/ I would like to live on this sea/ will a sea ever be allotted to me?

○ Sleep sleep peacefully my baby how well it sleeps/ What a filial child you are to your parents/ an element of harmony in the

household/ an element of generosity amongst the neighborhood/ an element of patriotism to the country/ an element of fertility to the nutmeg tree/ an element of preciousness to the okja tree/ a beacon of precious light for all the universe/ as if a sun had been engraved in the forehead/ as if a moon had been engraved in the back forehead/ be like the gem under the sea/ with the wings of the crow/ with the mouth of a swallow/ and I will bequeath to you this wide rice fields/ I will also leave you the wide wide fields/ I will leave you all the valuable brassware goods/ I will leave you the pestle and mortar/ I will also leave you the pot on the fire/ I will leave you the food larder/ I will leave you the water jars

○ I feel so embittered with my mother's death/ my hair has grown into 50 lengths/ my hair 50 lengths/ I cut it off to make a black boat/ the black boat is also 50 lengths/ Went to Jaeseokgung to buy my mother back/ with a down payment of 5 mals of pearls/ ventured into the Jaeseokgung/ many people to buy/ but none resembling my mother

○ My precious baby like gold and gems/ a beacon of precious light for all the universe, my child/ a baby worthy as green silk/ even though I may come up with the south and north fields/ how can I be happier/ even though I may have picked the corals and pearls/ how can it be more than this/ sleep sleep peacefully sleep

○ My mother who went to the netherworld and not of this world/ don't go to a place where its wet and muddy but come to the bright place

○ When my lamenting parents gave birth to me/ what kind of destiny did they give me at birth/ it is not by destiny but by some hidden fate/ must have been born to become so dear

○ If I go I may see my mother/ I miss her because I don't go/ If I were to tell my mother that I will go/ before the water in the pot on the fire boils/ I will go like a bird looking at the heavens/ I will run or even crawl with shoes off/ on the sharply cut off slanted big and small bamboo trees

○ I attempted to carry that mountain on my back/ my knapsack was too small/ when I attempted to pay back my parents kindness/ my life span was too short

○ Don't even start calling the heat of June something hot/ It is the month of July that becomes the summer heat/ my beloved parents with their wanderer's fate/ this body of mind becomes the raincloud/ and will create shades wherever it goes

○ People with both parents/ do your filial duty while you are alive/ you pay your respects three times after you're dead/ appoint two stewards at the Samheongwan(三獻官)/ offer three cups of alcohol/ and they wonder which cup is empty

13. Children

○ Would we be buried in a silver box(銀槨) if we have a son/ or would we be buried in a brass box if we don't have a son/ Even queen Mun/ who has given birth to 9, 10 babies/ she is buried in a box of

pinewood

○ The most basics of this world are the babies/ If there are a lot of basics, there is also a lot of sadness/ Would we want to drink water if we don't have babies/ We will say we do not have babies from the start

○ The tree that grows from a stone/ get it and plant it in good soil/ Since its body is healthy/ It refuses to recognize me, the person who has planted it

14. Siblings

○ The shade is better where the trees are lush/ Your dignity is raised if you have a lot of younger siblings/ Like the lone camellia on a tree/ it laments the fact that it has sprung up alone

○ Worries spring up when the waves of the sea cry out/ Worries spring up when the waves of the shore cry out/ Letting the one and only younger sibling out into the water/ Staying up all night with apprehension

○ When laying out the braids plaited in three/ Even though we had parents and younger siblings/ plaiting the three braids into six braids/ Parents and younger siblings are bluffing

15. Yi-yeo-do

○ Yi-yeo-do-ha-ra Yi-yeo-do-ha-ra/ The Yi-yeo-do road is road to

the netherworld/ Take off the beoseon(Korean socks) and lay it down/
Starch the clothes you wear and iron it out/ wait with gut wrenching
anxiety/ but it never comes back

○ The Yi-yeo-do door is the gate/ It is the embankment behind the
gate/ It is the lotus behind the embankment/ Admiring the lotus is all
well and good but/ to admire the lotus/ you can' t come back

○ Tears come out when you say Yi-yeo-do/ Swallow the word Yi-
yeo and turn back/ If you go to Kangnam, take a look at Haenam/
they say Yi-yeo-do is half of that

○ Yi-yeo-do is full of abalones/ Yi-yeo-do is full of seaweed/
Abalones and seaweed/ Bring them back and educate my son/ Let us
go to Yi-yeo-do, go to Yi-yeo-do

해녀노래

(1) 백대웅 채보의 '김녕리 해녀노래'

※ 『브리태니커 팔도소리(제3권)-제주도』(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0), 75쪽.

이여도사나

김주옥 피창
백대웅 채보

이여도사나 = 아 - 아 = 이여도사나 아 - 아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흐 냇물결 - 어 - 어 - 어릴 가보 오 - 건 도바달 따 - 풀로나가자 아 -
 흐 냇물결 - 어 어 어릴 가리 건 도바달 풀로나가자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아 -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요노-동 어 이 - 어 무엇을먹고 이여도사나
 이 사공아 - 아 - 고물-매는 따 - 도사-공아 - - - - - 이여도사나
 아 - 아 - 이 사공아 고 물매는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화-영아아 - 아 - 물 매칠릴 어 - 늦어나간다 빛 - 저어라 저
 어 - 어 화영 아아 물 매칠릴 어 어 늦어나간다 저어라 저

(2) 조영배 채보의 '행원리 해녀노래'

※ 『제주도무형문화재음악연구』(도서출판 디딤돌, 1995), 152~157쪽.

- | | |
|----------|----------------------------------|
| ① 채보자 : | 선소리 - 인도인 |
| | 릿소리 - 김갑자 김동자 홍성인 |
| ② 채집일 : | 1993년 12월 30일 |
| ③ 채집장소 : |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KBS제주방송출국 스튜디오) |
| ④ 채집자 : | 조영배 |
| ⑤ 녹음기 : | TEAC(V-9700) |

* 가창방법 : 선후 모방창으로 전개됨.

〈선〉 빠르게(힘치계) *이 부분에서 릿소리가 선소리를 모방함)









